



3

주체 89 (2000)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89(2000)년 제3호

(루계 제 629 호)

◆◆◆◆◆◆◆◆◆◆ 차 례 ◆◆◆◆◆◆◆◆◆◆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4
고무적기치를 안겨주시려	6
풍운조화를 일으키시다.....	7
푸른 숲의 설레임소리 들으며	9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 높이 부르며.....	10
그이는 향도성, 인민의 태양.....	11
남산의 푸른 소나무	12
명언해설	13
기념비앞에서.....	14
내 조국의 아침	15
그 위대한 손으로.....	16
행복한 부부.....	16
기둥	17
그 하나의 작은 불꽃은.....	19
나는 불이 되련다.....	20

이 금메달을 받아주세요	22
주체태양의 품속에서 성장한 시와 시인	23
내 고향의 새 풍경	31
해가 웃네 물이 웃네	31
실화문학창작에서 작가의 깊은 탐구정신	32
나는 장군님 총대	38
평범한 생활속에서 시대의 주인공을 보여준 참신한 형상세계	39
다섯가지 음식맛의 작용	42
첫 소대장	43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기후의 영향	49
숲에 대한 생각	50
생활에서 새겨둔 생각 몇토막	52
철의 기지에서	54
이 길은	58
《봉쇄》와 처녀들	59
동생의 부탁	59
《상봉》	60
누이의 목소리	61
대뇌활동의 월규칙성과 일규칙성	68
류다른 결혼식	69
력사의 추물들을 단죄한다	76

공동시설에서 제시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지금 온 나라는 승리와 영광으로 빛날 희망찬 새 해 주체89(2000)년을 뜻깊게 맞이한 전체 인민들의 양양된 혁명적열의로 들끓고 있다.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시설에서는 당창건 55돐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 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일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공동시설은 현시기 우리 당이 내세우고 있는 중요한 정책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중시 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가 명백히 제시되어있다. 또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당면한 과업으로부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인류의 자주위업과 사회주의위업앞에 지닌 국제적임무를 다할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현시기 우리 당과 인민이 수행하여야 할 전투적과업들이 뚜렷이 명시되어 있다.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다시한번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킴으로써 당창건 5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일데 대한 공동시설의 기본정신을 심장깊이 아로새기고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들은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참된 주체형의 혁명적문예전사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다양한 주제, 다양한 종류의 성과작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당창건 55돐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는 우리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무엇보다 먼저 강성대국건설의 3대기둥인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중시로선 관철에 이바지할 다양한 주제의 작품창작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여야 한다.

사상중시는 우리 당의 제일생명선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근본이다.

우리 작가들은 죽으나 사나 사상을 틀어쥐고나가는 철저한 사상론자로 준비하여 모든 작품에 사상중시에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이 빛나게 구현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상에서 근본핵은 혁명의 수뇌부옹위정신이다.

우리 작가들은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인생의 청

춘기도 로년기도 빛나게 장식한 시대의 전형을 적극 찾아내어 이를 훌륭히 형상한 우수한 작품들을 많이 써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작가들 모두가 혁명적군인정신으로 한목숨 기꺼이 바쳐 위대한 장군님을 옹위하는 총폭탄용사, 장군님께서 벽을 올리시면 강산을 올리는 결사관철의 기수, 당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정열적인 실천가로 튼튼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확고한 계급적립장과 견결한 반제투쟁정신에 의하여 수호되는 불패의 보루이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 당 사상전선의 전초병답게 사회주의의 계급적진지를 초석으로 다질 반제투쟁정신이 투철한 작품창작 특히는 반제계급교양주제의 작품창작에 적극 나서야 한다.

총대중시는 제국주의가 있고 혁명이 계속되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며 모든 부문에서 최우선시 되어야 할 국사중의 제일국사이다.

총대중시는 곧 국방중시이며 우리 당의 독창적인 선군정치로선의 빛나는 구현이다.

우리 작가들은 수령옹위의 불타는 녀이 깃들여있고 원썩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는 계급적각오가 어려있는 우리 인민군대 총대중시기풍에 심장을 불태우며 이들의 생활을 훌륭히 반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창작전투를 벌려야 한다.

인민군대를 형상함에 있어서 항일유격대식으로 싸워 이기는 백두산3대장군의 군대이라는데 모를 박아야 한다. 그래야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썩을 치는 백절불굴의 투지, 물과 공기만 있으면 끝까지 살아서 싸우는 무비의 강의성, 언제나 주도권을 쥐고 적들을 답새기는 신출귀몰의 전법 등이 백두산기질을 타고난 우리 군대의 싸움하는 본때이며 주도적인 성격적특질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훌륭히 그려낼수 있다.

과학기술중시사상은 과학과 기술에 튼튼히 의거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해 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에서 나온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원대한 포부와 피타는 탐구정신,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내 조국의 과학기술발전에 발벗고 나선 과학자, 기술자들을 잘 형상함으로써 그들모두가 주체적인 과학기술을 최단기간내에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며 강성대국건설에서 절실한 과학기술적문제를 풀어내기 위하여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누구나 과학기술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도록 하며

과학자, 기술자들을 사회적으로 내세워주도록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을 특색있게, 깊이있게, 아름답게 그려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이 큰힘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주제 영역은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관련한 사회주의현실물작품창작이다.

우리 작가들은 들끓는 현실에 몸을 잠그고 현실 체험을 실속있게 하여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그 기세로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총돌격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구보행군의 역센 기상을 실감있게 그려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지금 전후 빈터에서 일떠서던 그 기세로 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과 개천-태성호물길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 건설장과 사회주의건설의 전초선인 발전소들과 탄광이며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를 힘있게 밀고나가는 사회주의농촌마다에 현실체험지를 정하고 현실체험을 실속있게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현실체험을 실속있게 하는것, 이것은 우리 작가들의 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 올 시대의 명작, 성과작을 창작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그것은 들끓는 현실속에서만 성강의 봉화따라 강계정신으로 당의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전변시켜나가는 시대의 전형을 미화분식함이 없이 진실하게 그려낼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현실체험을 생활화, 습성화하여 우리 당이 키워주고 내세워준 우리 시대 영웅들의 숭고한 투쟁정신과 기풍을 따라배워 시대의 전형들의 생활을 그들의 높은 정신세계의 높이에서 형상할수 있게 자신을 준비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이와 함께 조국해방 55돐이 되는 올해 2000년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력사적인 전환의 해로 되게 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조국통일주체의 작품들과 기타 주체의 작품창작에서도 보다 큰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창작으로 공동시설에서 제시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우리 작가들의 임무는 참으로 영예롭고도 아름다운 과제이다.

우리 작가들은 모두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사는 커다란 영광과 행복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창건 55돐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경애하는 장군님을 충효일심으로 받들어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일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작가들은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서의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 특히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시대를 펼쳐놓으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실록을 깊이 체득하고 수령형상작품들과 송가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작품창작에 계속 주되는 힘을 기울여야 한다.

실력전은 창작의 선결조건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회세의 실력가형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모를 따라배워 충실성과 실력으로 당의 방침관철에 이바지할 시대의 명작들을 많이 써내야 한다.

문학적 자질과 재능이 없이는 당에 도움을 줄수 없고 당의 문예로선을 관철할수도 없다.

작가는 문학적자질이 높아야 작품창작에서 계속 혁신, 계속전진해나갈수 있다. 명작을 내놓는가, 내놓지 못하는가 하는것도 결국 작가의 문학적재능이 어떠한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다. 때문에 우리 작가들은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생활체험을 많이 쌓아 생활의 박식가, 창작의 능수가 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또한 창작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여 내용에서 사회주의적이고 형식에서 민족적인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나가야 한다.

오늘 조성된 정세는 의연히 침예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전쟁도발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우리 작가들은 모두가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펜을 들고 공동시설을 관철하기 위한 창작전투에 힘차게 떨쳐나 오늘의 투쟁은 간고하지만 온 사회에 노래도 있고 웃음도 있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량만이 차넘치게 하는 혁명적작품들을 왕성하게 써내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는 한 우리 작가들의 앞길은 무한히 창창하다.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창건 5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당의 방침 관철에 적극 이바지할 문학작품창작에 힘차게 떨쳐나 주체문학을 명작대풍으로 빛내이도록 하여야 한다.

고무적기치를 안겨주시려

혁명적구호는 당의 방침 관철에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당창건 55돛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해 힘찬 전진을 다그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전투성과 호소성이 맥박치는 투쟁구호와 투쟁방향을 제시하시어 전당과 전체 인민을 새로운 위훈으로 불러 일으키는 령도예술의 빛나는 귀감을 창조하여오시였다.

공동사설은 당의 방침이다. 공동사설에는 우리 당의 방침과 의도, 혁명적립장이 그대로 담겨지고 그 수행을 위한 과업과 방도가 명백히 밝혀져 있다. 이처럼 올해 공동사설이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투쟁과 위훈으로 적극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로, 힘있는 고무적기치로 될 수 있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지난해에 벌써 인민군부대들과 공장, 농촌을 비롯한 여러 부문을 현지에서 지도해주시는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새해 공동사설에서 지침으로 될 내용적문제들을 다 밝혀주시였다.

그뿐아니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공동사설초안을 여러번이나 보아주시면서 문장 하나, 표현 하나에도 깊은 뜻이 담겨지도록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번 공동사설의 완성을 위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얼마나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셨는가 하는것은 제목과 관련한 사실만 놓고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지난해가 저물어 가던 어느날이였다.

저녁무렵에 뜨거운 사연이 깃든 전화종소리가 해당 부문 일군의 방에 울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공동사설 특히 제목과 관련하여 걸어오신 전화였다. 송수화기를 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한자한자 새겨 가는 그 일군의 가슴은 뜨거운 격정으로 차올랐다.

바로 그날 낮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전화를

거시여 공동사설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던것이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제목을 잘 다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제목을 잘 달아야 사람들이 당의 정책적의도를 명백히 알수 있다고 세심히 일깨워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 이제 공동사설제목을 저녁까지 더 생각하였다가 알려주겠다고 하시였던것이다. 그로부터 얼마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려 보내주신 공동사설초안에는 제목도 우리 혁명의 실천적요구를 반영한 높은 호소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것이였다.

그런데 저녁전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목과 관련하여 또다시 전화를 걸어주시는것이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창건 55돛이 되는 올해의 성격에 맞게 공동사설제목을 더 완성시켜주시였다. 그리고 강성대국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공동사설제목을 우리 당과 군대, 인민들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로 정할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였다.

《당창건 55돛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깊은 뜻이 담겨져있는 이 전투적구호에는 우리 인민의 거세찬 진군열기가 맥맥히 굽이치고있는것이다. 실로 우리 당 창건 55돛을 맞이하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울으신 로고는 끝이 없다.

이것은 비단 이번 공동사설만이 아니다. 주체83(1994)년이 저물어가던 그때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새해를 맞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공동사설이 당의 방침이 되도록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기울여오시였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오늘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의도대로 준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쥐고 구보행군의 박차를 가해나가고있다. 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은 당창건 55돛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날마다 새로운 혁신을 이룩해가고 있다.

풍문조화를 일으키시다

위인의 자옥마다에는 력사에 불멸할 업적과 함께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질 전설이 창조되기마련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께서 마식령 산줄기와 철령산줄기를 타고넘으시며 전선 동부에서 서부지구으로 이어가신 천여리 전선시찰의 자옥 자옥마다에는 수많은 전설들이 창조되어 전해지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대덕산일대에서는 지금 《구름을 물고다니는 장군》, 《천기를 다스리는 령장》이라는 전설들이 전해져 우리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을 무한히 격동시키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의 남대문초소인 대덕산을 찾으신것은 주체85(1996)년 3월 18일이였다.

이날 대덕산은 크나큰 흥분과 감격으로 끓어번졌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33년전에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오셨던 장군님께서 두번째로 일당백의 고향을 찾아오시는것이였다.

장군님을 맞이하는 군부대장 문국의 가슴은 차오르는 걱정으로 하여 터질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과 걱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었다.

그것은 대덕산으로 올라오는 도로의 어느 한 구간이 적 《헌병》 초소에서 뻗히 바라보였기때문이였다.

적들은 두눈에 쌍심지를 켜고 늘 이 구간에 대한 감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다.

무분별하기 그지없는놈들이라 여기예다 대고 그 어느 순간에 무슨 짓을 할지 누구도 모르는 일이였다.

그런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로 이런 위험한 구간을 통과하여 대덕산에 오르시게 되었으니 어찌 그의 가슴이 조여들지 않겠는가.

그는 초소군인들이 순간도 눈길을 떼지 않고 이 구역을 예리하게 감시할데 대하여 몇번이나 강조하였다. 이날 오후시간이 퍼그나 지났을 때였다.

장군님께서 오실 시간을 기다리며 사소한 적정의 변화도 놓치지 않고 예리하게 감시하고있던 초소군인들의 눈길은 일시에 어느 한 나무가지에로 쏠리였다.

느닷없이 새 한마리가 그 나무가지에 날아와 앉는것이였다.

보고를 받은 문국은 그 새를 잘 관찰할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대덕산에 있는것이라면 돌 하나, 풀 한포기로부터 잠시 들렀다가 사라지는 철새들마저 속속들이 꿰뚫고있는 그들이지만 처음 보는 새여서 무슨 새인지 알수가 없었다.

이상한것은 감시병들이 다같이 그 새를 포착하였으나 색깔과 생김새가 사람마다 눈에 다르게 비쳐든것이였다.

과랑게 보이는가 하면 희게도 보이고 또 붉게도 보이는 신기한 새였다.

새마다 습성이 달라 어떤 새가 나타났는가에 따라 생길수 있는 정황을 미리 예견할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처음 보는 새여서 알수가 없었다.

새는 두눈을 또록거리며 주위를 살피더니 갑자기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공중으로 치솟아올랐다. 감시병들은 그 새에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잠시후 새는 검은 점으로 보이더니 구름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바로 이때였다. 갑자기 세찬 바람이 일며 검은 구름장들이 대덕산상공으로 밀려오더니 진눈까비를 날리기 시작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대덕산과 그 주변은 삽시에 어둑컴컴해지고 안개발같은것이 서리어 어디가 어딘지 통 분간하기조차 어렵게 되었다.

위험이 겹음마다 뒤따르는 전연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뵈게 된 군부대장과 초소의 군인들은 그이의 신변안전문제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천기조화에 너무도 기뻐 환성을 질렀다.

《야! 신기하다! 하늘도 우리 마음을 알아주나.》

여기저기서 군인들의 경탄의 목소리가 울리는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대덕산마루에서서히 올라섰다.

그들의 걱정은 하늘을 찌를듯하였다.

문국이와 군인들은 장군님을 모신 감격과 기쁨으로 하여 그 이상한 새에 대해서는 감감 잊어버리고 말았다.

영접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걸으시였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비, 《일당백》 구호바위, 현지도도사적비를 거쳐 감시소로 오르시였다.

이때였다. 구름속에 사라졌던 새가 전방감시소 상공에 다시 나타났다. 새는 감시소 하늘우를 가로세로 날아예더니 놈들이 도사리고 있는 적진 상공을 한바퀴 휘-익 날아돌았다.

그리고는 다시 하늘높이 날아올라 사라지고말았다.

그러자 또 신기한 조화가 일어났다.

군사분계선너머 적측이 있는 상공에 덮여있던 먹장구름이 갈라지면서 조명등마냥 눈부신 해빛이 쏟아져 내렸다.

장군님께서는 불이 환히 켜진 무대를 보시듯 분계선너머에 시선을 주시였다.

해빛이 비치는 적정은 날날이 드러났다.

적들의 초소와 분렬의 콘크리트장벽 그리고 놈들의 일거일동이 손금보이듯 뻔히 바라보였다.

반대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서계시는 전망감시소에는 짙은 그늘이 저서 적진에서는 잘 볼수가 없었다.

《정말 하늘이 어찌면 이리도 우리 마음을 잘 알아 줄가?》

《하늘이 낸 우리 장군님이 아니신가!》

《옳지, 그러니 하늘이 조화를 부려 장군님을 호위해 드리는구만.》

군인들은 신기해하며 서로 이런 말을 주고 받았다.

문국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대덕산에서 오래동안 근무한 문국이도 이런 현상은 처음 보았던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한번 놀랐다.

새들은 눈이 내릴 때면 웬만해서는 잘 날아다니지 않는다.

그런데 문국이와 군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발자취를 따라 중대 교양실과 병실을 돌아보실 때 내리던 진눈까비대신 햇슴같은 함박눈이 펄펄 쏟아져내리는 하늘에서 훨훨 날고 있는 그 새를 보았던것이다.

대덕산은 33년전의 그날처럼 흰눈으로 뒤덮이고 나무가지마다 하얀 눈꽃이 활짝 피어났다.

현란한 절경을 펼쳐놓은 대덕산의 눈꽃은 그지없이 아름다웠다.

문국이는 경탄을 금치 못하며 군인들과 함께 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촬영을 하게 될 장소로 달려갔다.

그러나 촬영시간이 다가올수록 군인들의 근심은 산같이 커지기만 하였다.

고지우에 낮게 드리운 먹장구름과 아직 채 멎지 않은 진눈까비로 하여 날씨가 어둑침침해졌기때문에 사진이 잘 안될가봐서였다.

문국은 승용차전조등으로 모자라는 빛을 보충할 준비까지 사전에 갖추어 놓았다.

그러나 그것은 괜한 걱정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기념사진을 찍으시기 위해 중대병실을 나서시였을 때였다.

갑자기 난데없이 그 신기한 새가 또다시 나타나더니 중대운동장우를 한바퀴 돌고 하늘로 날아올랐

다.

그러자 하늘이 네번째 조화를 부리기 시작했다.

먹장구름이 뒤덮인 하늘에 둥그런 구멍이 생기더니 그리로 눈부신 해빛이 촬영대가 놓인 중대운동장으로 쏟아져내렸다.

《야!-》

군인들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일시에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한두번도 아니고 무려 네번씩이나 장군님을 위하여 하늘이 련속 신기한 조화를 부리니 그들은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정말 우리 장군님은 하늘이 알아보는 위인이심이 틀림없어.》

《아무렴, 그러참구. 하늘이 낸 장군이시니 하늘이 알고 이런 조화를 부릴거야.》

《그런데 그 새는 무슨 새일까? 그 새가 나타나면 매번 천기조화가 일어나군하니 말이야.》

《그 새는 장군님의 령을 하늘에 전하는 천조일거야. 그러니까 그 새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하늘이 장군님의 뜻대로 조화를 부리거든.》

태양처럼 환히 웃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이런 말을 주고받는 군인들의 얼굴마다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절출한 위인을 모신 끝없는 영애와 행복이 함뿍 어려있었다고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덕산에 다녀가신후 이 지방에서는 《하늘이 내린 네가지 명령》이라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다.

그 전설에 의하면 하늘이 낸 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덕산에 가시게 되자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천기를 맡은 대신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하늘에서 내리신 위인이 대덕산에 가시게 되니 경은 나의 지엄한 령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지킬것이다.

첫째로, 천출위인이 대덕산에 가시는 그 시간을 맞춰 대덕산근방에 세찬 바람을 일으키고 주위를 어둑게 하고 진눈까비를 내리게 하여 어떤 나쁜놈도 범접치 못하게 할지이다.

둘째로, 그 위인이 원수놈들의 아성을 멀리 내다보실 때 위대한 지략을 펴시도록 하기 위해 내리는 눈비는 순간에 멈추며 구름을 삼시간에 걷히도록 할지이다.

셋째로, 그 위인이 대덕산을 돌아보실 때 그분을 축하하여 진눈까비대신 함박눈을 내리게 하라.

넷째로, 그 위인이 부하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촬영을 하실 때 그분의 숭엄한 영상을 대덕산에 밝고 선명하게 새기기 위해 지는 해는 멈추어서며 위인의 신변을 옹위하던 구름은 순간에 갈라져 밝고 밝은 해빛을 비쳐드리도록 할지이다.》

대덕산의 천기조화는 세월이 흐를수록 가지가지 전설들을 창조하고 있다.

아무리 천변만화하고 조화무궁한 하늘이라 한들
어찌 이런 조화를 거듭 일으킬수 있겠는가!

동서고금의 전설들을 들추어보아도 이런 신기한
조화는 전해지는것이 없다.

먼 옛날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에짚트땅에서 도망쳐나올 때 홍해의 물이 갑자기
말라 그들은 바다를 걸어 건너 구원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이 사실을 가지고 자기들을 《신이 선택한
백성》들이라고 자처하였으나 한갓 전설로만 인정
되었다.

수천년후 나뿔레옹의 에짚트원정때 다시 홍해의
물이 밀려나가 그의 앞에 바다가 룯로로 되는 기적

이 일어났으니 나뿔레옹은 자기를 《하느님의 사
도》로, 자신이 행하는바를 《하느님의 섭리》라고
자칭하였다.

모름지기 수천년을 주기로 일어난 자연의 기이가
한 민족과 한 인간을 신 다음의 존재로 자처하게
하였으니 그렇다면 하루동안에 그것도 단 몇시간사
이에 네번이나 반복된 이 자연의 기이에 대하여서
는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우리 장군님 가시는 걸음걸음마다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천기조화는 그대로 장군님이 하늘이심을 확
신시켜준다고 해야 할것이다.

푸른 숲의 설레임소리 들으며

리영

그이 오신 자욱을 따르며
그이 주신 말씀을 새기며
박사는 거닌다
과학지구의 구내를...
생각을 밝는다 조용히 천천히...
3월도 이른 3월
이해따라 봄은 서둘러 왔는가
정원수 아지에 물이 오르는 소리
내돋는 햇순들의 생신한 숨결소리

그는 지금 기쁘다
그의 가슴은 뜨겁다
탐구의 하루가 저무는 이 저녁 노을속에서
그이 주신 화창한 봄을 안으며
그이 주신 푸른 여름 싱그러운 가을을 다 안으며

아껴 주시는 마음
얼마나 뜨거우시면
주실것 다 주시고도 모자라시여
여기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여기엔 숲이 있어야 한다고
그처럼 뜨겁게 말씀하셨으랴

탐구에 바치는 고심을
맑은 공기로 가져 주시려
실험실에 이어지는 그 낮과 밤을
청신한 시간속에 이어 주시려
푸른 잎의 설레임소리를 구내가득 불러주신
그 사랑은 진정

알면서도 다 몰랐던 세상 큰 사랑

그 누가 벌써 심었는가
땅을 짚고 일어서는
전나무며 감나무 애어린 아지들엔
환희로운 봄빛이 한껏 실렸는데
앞에 올 푸른 계절속을 여기서 거닐어보는
박사의 마음은 벌써 여름이다 가을이다

물오른 아지를 매만져 보며
깃을 치는 새소리에 귀기울이며
훨훨 날아보는 환상의 하늘가에
해발처럼 가득차 오는것은
아 그리도 고마우신
위대한 장군님 모습

그이의 숨결이 뜨거워
봄이 화창한 구내길이다
그이의 해빛이 따사로워
푸른 숲처럼 일어서며 설레임
우리 과학이다

3월도 이른 3월
푸른 숲의 설레임소리 들으며
박사의 마음 박사의 사색속에서는
새로운 방정식이 세워지고 있었다
장군님 그 사랑에 보답할
과학자의 의리와 량심에 대한 방정식이!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 높이 부르며

노래가 울린다.

당창건 5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빛나는 승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돌격전에 온 나라 인민 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 우리의 행군대오에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울린다.

인민군인들이 지켜선 조국방선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나래치는 공장과 농촌, 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장을 비롯한 천리마대고조의 불길 드높은 온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서나 힘차게 울려퍼지는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 신념의 노래.

노래는 혁명승리의 상징이다. 노래소리 높은곳에 혁명의 승리가 있고 미래에 대한 낙관이 있으며 불굴의 신념과 의지가 있다.

이것은 고난도 많고 시련도 많은 간고한 로정을 노래와 함께 승리로 빛내여온 성스러운 조선혁명의 력사가 보여주는 진리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언제나 노래를 혁명의 무기로 삼으시고 중중첩첩 겹쌓이는 고난과 시련을 노래와 함께 이겨내시며 우리 인민 모두가 혁명의 노래 높이 부르며 필승의 신심과 낙관에 넘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구보행군길을 내달리게 하신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의 길에는 노래와 함께 얼마나 감동깊은 화폭들이 펼쳐졌던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87(1998)년 희천시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였던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강제정신, 자강도사람들의 일본새를 창조한 로동계급을 축하해주어야 한다고, 자신께서는 이 정신, 이 일본새를 본받아 온 나라가 오늘의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헤쳐나가게 하자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오늘의 강행군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해야 할 자강도 로동계급들이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과 조선인민군 제313대련합부대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보면 혁명적군인정신을 더 깊이 새기게 되며 힘이 부쩍부쩍 솟아날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강도 로동계급이 인민군대의 노래를 강행군대오에 울리는 힘찬 군악으로 여기고 그 군악에 발걸음을 맞추어 투쟁기세를 더

욱 올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며 세찬 충격으로 가슴이 달아 올랐다.

강행군대오에 진격의 나팔소리와 같이 울리는 혁명군가!

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올려주신 힘찬 군악에 진군의 발걸음을 맞추며 더욱 과감하게 떨쳐나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갈 로동계급의 투쟁모습이 안겨와 가슴벅찬 흥분과 격동에 휩싸였다.

이윽고 청년전기련합기업소(당시)의 로동자문화회관에 이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강도내의 로동자대표들, 희천시내의 로동계급들과 함께 공연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공연을 보는 로동자들은 선군혁명령도의 기치를 드시고 천하를 쥐락펴락하시며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시는 장군님의 무적필승의 기상과 강철의 의지, 무비의 담력이 그대로 안겨와 가슴을 들먹이기도 하고 장군님의 다정다감한 정서를 뜨겁게 느끼며 크나큰 감동에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였다.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노래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가 울리고있을 때 온 관람석에 격정의 파도가 일었다.

빈터에서 모든것을 시작하시여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아버지수령님식대로 기어이 이 땅에 주체의 강성대국, 자력갱생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실 굳은 신념과 강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그 신념, 그 의지로 천만사람을 불러일으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결심이 어린 노래.

우리 수령님께서 로동계급과 인민을 믿으시고 건국의 첫 삽을 박으시던 해방후의 나날들과 재가루만 날리는 폐허우에서 언제나 로동계급과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전설속의 천리마를 이 땅에 불러오신 전후의 나날들, 력사의 그 나날들이 뜨겁게 추억되시여 소리없이 눈굽을 적시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영상을 우러르며 말없는 충효의 맹세로 심장의 피를 끓인 자강도의 로동계급.

한편의 노래를 두고 우리 장군님과 로동계급사이에는 얼마나 뜨거운것이 오갔던가.

참으로 그것은 령도자와 인민이 하나의 마음, 하나의 숨결로 심장의 박동을 함께하는 감동깊은 화폭,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숭엄하고 위대한 혼연일체의 화폭이었다.

우리 인민이 지난 몇해동안 그토록 간고하고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길과 강행군길에서도 주저않지 않고 꿋꿋이 걸어올수 있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 신념의 노래가 있었기때문이었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노래 《우리는 맹세한다》를 부르며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할 맹세를 안고 피눈물바다에서 거연히 일떠섰다.

노래 《높이 들자 붉은기》를 부르며 어버이수령님의 성스러운 한생이 어려있는 붉은기를 더욱 높이 추켜들었으며 《동지애의 노래》의 구절구절을 심

장에 새기면서 오직 장군님만을 우러르며 수령님께 다진 맹세를 끝까지 실천할 신념과 의지를 더욱 철석같이 굳혀 왔다.

오늘은 《신심높이 가리라》의 힘찬 박자에 맞추어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눈앞에 바라보며 천리마대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다.

노래와 함께 전진해오고 승리해온 우리 혁명.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영원히 21세기의 태양 **김정일** 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 신념의 노래 높이 부르면서 혁명적량만과 승리의 신심에 넘쳐 준마를 타고 구보로 달려 이 땅위에 기어이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울것이다.

본사기자

그이는 향도성, 인민의 태양

씨꾸 드라오레

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

그이는 정력적인 혁명활동으로

진정한 인민의 락원 가꿔 오신분

인민은 그이의 은정속에 살며

더 큰 행복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설레이여라

언제나 인민 위해 복무하는것

혁명에 모든것을 바치는것

그것은 그이의 가장 큰 기쁨

한없이 겸허하고 친절하신

그이의 숭고한 품모

사람들은 높이 칭송하여라

숭고한 그 품모

그것은 만경대혁명일가의 고결한 전통

그이는 인민에게 정치적생명 안겨 주신

위대한 은인, 자애로운 어버이

그이의 사랑과 은정 대지를 꽃피우는 해빛같아라

오직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그이

눈비도 가림없이 휴식도 없이

인민이 사는곳 그 어디나

끝없는 사랑의 길 걷고걸으시여라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여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높이 모신것은

조선인민의 가장 큰 행복

가장 높은 궁지

그이께서는 비상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으로

현 세계의 자주의 키를 잡으시고

머나먼 혁명의 길 개척하시여라

수령님의 숭고한 그 뜻 이으시여

인민에 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펼쳐가시여라

(필자는 기네시인임)

남산의 푸른 소나무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억울함과 설움, 분노가 한데 뒤엉켜 돌아가던 20세기초엽, 온 나라가 일제의 철창없는 감옥으로 변했던 20세기초엽에 누가 진정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두고 잠 못 이루었고 누가 진정 나라의 독립을 위한 새로운 투쟁의 길에 한생을 바치었던가.

나라가 겪는 불행과 고초를 두고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고 나라의 비운을 가시려고 애쓰는 사람을 애국자라고 하며 제 한몸을 불태워 진리를 밝히고 만민을 불러일으켜 불의의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만이 진정한 혁명가이다.

주체7(1918)년 가을 어느날, 이날은 조선국민회의 지도자이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300여일간의 형기를 마치시고 평양감옥에서 나오시는 날이었다.

전물의형만 보아도 사람들의 혼을 뺄수 있으리만큼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평양감옥! 철문, 담장, 망루, 쇠살창은 물론 파수병의 검은 복장과 눈길에 이르기까지 살기가 넘치고 독기가 풍기는 감옥, 그날 우중충한 감옥문앞에선 선생님의 일가친척들과 동지들이 이제나저제나 김형직선생님께서 나오시기만을 기다리고있었고 동네사람들은 송산리에서 만경대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선생님을 기다리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드디어 감옥문이 열리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겨우 걸음을 옮기어 감옥문밖으로 나오시었다.

모두가 일제히 달려가 선생님을 부축하여드렸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정겨운 눈길로 마중온 일가친척들과 동지들을 보시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들을 하였는가고 먼저 인사를 하시었다.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온몸이 만신창이 되어 온신조차 할수 없게 된 형편에서도 자신의 고생보다도 오히려 마중온 사람들의 고생부터 헤아려주시는 김형직선생님.

아버님이신 김보현선생님께서서는 아드님의 정상에 억이 막히시여 일제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떠시며 갈리신 음성으로 들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었다.

《예 와서 늙거라.》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아버님의 따뜻한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지셨으나 굳이 사양하시며 이렇게 말

씀하시었다.

《제 발로 걸어가겠습니다. 목숨이 끊어지기전에야 제가 어떻게 원썬놈들앞에서 들것에 들러가겠느냐. 놈들이 보란듯이 제 발로 걸어가야 합니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원썬놈들앞에서 나약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시려고 꺾이면 꺾일지언정 휘어 들지 않는 백철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모진 아픔을 이겨내시며 혼연히 걸음을 옮기시었다.

선생님께서서는 옥중에서 한시도 잊은적 없는 고향 땅을 직접 밟아보고싶으셨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싶으셨다. 선생님께서서는 만경대까지의 먼길을 힘겹게 한걸음두걸음 걸으셨으나 또다시 새로운 투쟁마당에 나서신 선생님의 마음은 날듯이 가벼우시었다.

집에 돌아오신후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형제분들을 앓혀놓고 일제교형리들의 잔인성과 악랄성에 대해 일깨워주시면서 근엄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나는 감옥에서 물이라도 더 먹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가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심을 했다. 세상에 제일 못된놈들이 일본놈들인데 그놈들을 그냥 놔둘수가 있느냐. 형록이나 형권이도 왜놈들과 싸워야 한다. 죽어도 피값은 해야 한다.》

김형직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혁명일가분들은 몸이 찢겨 가루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제국주의자들과 끝까지 싸워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높으신 뜻을 다시금 깊이 새기었고 일제와 끝까지 싸울 결심들을 더 굳게 다지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몸이 채 추서기도전에 파괴된 조선국민회조직들을 복구할 결심을 안으시고 평안북도일대에도 떠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그때를 회고하시며 이렇게 쓰시었다.

《아버지는 그때 고향을 떠나기에 앞서 <남산의 푸른 소나무>라는 시를 남기었다. 그것은 몸이 찢겨 가루가 되어도 대를 이어가며 굴함없이 싸워 삼천리금수강산에 기어이 독립의 새봄을 가져오려는 아버지의 굳은 맹세였다.》

고향을 떠나기 며칠전날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지평이에 의지하여 소나무가 우거진 남산으로 오르시

였다.

양지바른 낭떠러지에는 푸른 소나무들이 바위에 뿌리내리고 거연히 서있었다.

오랜 세월 모진 눈서리를 이겨내면서 사시장철 푸르싱싱하게 자라고있는 푸른 소나무, 그 소나무들을 보시는 김형직선생님의 마음은 더욱더 굳세어 지시였다.

모진 비바람에 시달리고 눈서리에 파묻혀서도 변함없이 푸른 빛을 뿌리며 새봄을 맞는 소나무처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필승의 신념으로 몸이 찢겨 가루가 되어도 기어이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시려는 김형직선생님의 비장한 결의, 나라를 위하여 한 몸을 바쳐 싸우다가 쓰러지면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반드시 삼천리강산에 새봄을 안아오시려는 선생님의 불타는 결의.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주체7(1918)년 가을 자신의 맹세를 시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담아 읊으시었다.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괴롭 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줄을
동무야 알겠느냐

나라의 독립을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리
몸이 찢겨 가루되어도

광복의 한길에서 굴함 없을줄
동포야 믿어다오

이 한몸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싸워서도
금수강산삼천리에
양춘을 찾아올제 독립만세를
조선아 불러다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선구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그날에 읊으신 시의 맹세대로 나라의 독립을 위한 새로운 방침들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해,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생을 불처럼 뜨겁게 바치시었다.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사상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량만을 그대로 이어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이 시를 읊으시며 간고하고 피어린 투쟁속에서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이 땅에 선생님께서서 그토록 념원하시던 인민의 새 세상,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20세기 초엽 어느 한 가을날에 읊으신 시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어제든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의 준마타고 구보로 달려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할것이다.

명언해설

《정치가 뚫고 들어가기 힘든곳도 문학예술은 뚫고 들어갈수 있으며 총포를 가지고 쟁취할수 없는것도 문학예술을 가지고 쟁취할수 있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문학예술이 정치나 총포로 해결할수 없는것도 할수 있게 하는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은 숭고하고 아름다운 인간세계를 펼쳐보이며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와 투쟁의 길을 가르쳐준다. 문학예

술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고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생동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깨우쳐준다는데 그 중요한 특성이 있다. 문학예술은 인간과 그 생활을 형상적으로 반영한것으로 하여 정치가 들어가기 힘든곳에도 들어갈수 있고 총포를 가지고 쟁취할수 없는것도 쟁취할수 있게 한다.

기념비앞에서

손영복

평양 만수대에술극장 분수공원의 웃쪽 자그마한 공지에는 크지 않은 사적비가 세워져 있다.

화강석을 정교하게 다듬어 소나무부각까지 한 이 사적비는 《조선국민회》결성을 기념하여 세운 비이다. 지금으로부터 83년전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당시 학당골이라 불리우던 이곳에서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중추적조직인 《조선국민회》를 내오시었다.

가끔 이 사적비앞을 지날 때면 나는 늘 아쉬운 감을 받아안곤하였다.

평양학생소년궁전이며 1백화점, 만수대에술극장 등 주변의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들에 둘러싸인 탓인지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전해야 할 이 기념비가 별로 작고 주변 또한 호젓해 보이는 것이 웅당한 자기 빛을 다 내지 못하고 있는듯했기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 편집부의 청탁을 받은 글을 쓰기 위하여 이 사적비를 다시 찾으면서 나의 그 생각이 얼마나 지엽적이고 피상적이었던가를 새로이 깨닫게 되었다.

3월초였다.

경칩을 며칠 앞둔 때라 날씨도 퍼그나 따듯했다. 음달진 구석구석에서는 아직 겨울의 찬 랭기가 독을 쓰고있었지만 물기가 오르기 시작한 길가의 가로수들이며 풀잔디들,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의 차림새며 회열에 넘친 얼굴들에서는 벌써 봄이 야동하고있었다.

날이 좋아서인지 만수대에술극장 분수공원에도 사람들이 많았다. 따듯한 해별을 쏘이며 쌍쌍이 거니는 청춘남녀들, 잔디밭이 좁다하게 뛰고 덩구는 조무래기들... 분수가의 주변에서는 울긋불긋 화려한 차림을 하고 결혼기념사진을 찍는 신랑신부들을 축복해주는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그칠새 없었다.

새로운 계절이 안겨주는 환희와 행복넘친 수도의 거리풍경을 즐겁게 감수하며 사적비에 다달으니 마당에는 대학생대렬이 가득차있고 그앞에서는 빨간 비로도치마저고리를 입은 강사가 해설강의를 하고 있었다.

강사는 맑고 류창한 목소리로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사상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다.

대학생들은 숨소리마저 죽이고 듣고 있었다.

나역시 강사의 해설을 듣고싶었던차라 조용히 대학생들의 뒤에 서서 강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지원>이란 문자그대로 뜻을 원대하게 가져야

한다는것입니다.

뜻을 원대하게 가진다는것은 침략과 예측, 압박과 착취를 반대하고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며 자기 나라,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 힘을 키워서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이룩하며 행복한 새 사회를 건설할 때까지 싸워나간다는것을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지니신 《지원》의 사상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인생관입니다.

뜻을 원대하게 가질데 대한 <지원>의 사상은 개인의 리익과 공명출세가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사회적 정의와 진리를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는것을 가장 값있는 삶으로 보는 관점에서 인생의 원대한 목적을 세워야 한다는 숭고한 사상입니다.

뜻을 크게 두시고 멀리 내다보시였기에 선생님께서서는 어떤 권력도 향락도 추구하지 않으시였으며 오로지 나라의 해방과 근로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한몸을 서슴없이 바치시였습니다.

한생을 나라를 위해 살을 저미고 뼈를 깎으며 힘이 진하면 지평이를 질고 배가 고프면 생눈을 움켜삼키시면서도 뒤를 돌아보거나 주춤거리지 않고 곧장 앞으로만 걸어간 김형직선생님의 값높은 고귀한 삶, 그것은 바로 <지원>의 사상, 혁명적인생관의 위대한 발현이였습니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지원>의 사상을 내놓으시였을뿐아니라 그것으로 독립운동자들과 청소년학생들, 광범한 민중을 교양하시였으며 국내외의 광범한 지역에서 대중적지반을 축성하고 수많은 핵심력량을 육성하시고 드디어 주체6(1917)년 3월 28일 이곳에서 평양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였습니다.》

이미 많이 듣고 책을 통해서 다 알고있는 사실이였지만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다시금 상기하노라니 생각이 깊어졌다.

《지원》- 뜻을 크게 가지라...

예나 지금이나 뜻을 원대하게 가지라는 말은 사람들속에서 많이 써오는 말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훈시할 때에도 뜻을 크게 가져야 한다고 말하곤한다. 그러나 《지원》의 사상은 그러한 세속적인 인생교훈이 아니라 나라와 인민을 위한 애국의 길, 혁명의 길에서 견지해야 할 립장과 관점, 투쟁정신을 밝힌 교상하고 심원한 사상인것이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한생 이러한 《지원》의 사상을 지니셨기에 투쟁의 길에서 부닥치게 되는 어

면 고난과 시련도 두려움을 모르고 맞받아나간 것처럼 이리라.

선생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굶어 죽을수도 있고 맞아 죽을수도 있고 얼어죽을수도 있다는 아사, 타사, 동사의 3대각오를 다지시게 된것도 바로 이러한 《지원》의 사상,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에서 출발한것이 아니겠는가.

몸이 찢겨 가루가 되어도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서라도 조국해방을 이룩하시려는 철석같은 신념을 그대로 《지원》의 큰뜻에 담으시고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생을 바쳐오신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투쟁의 길이 눈앞에 삼삼히 어려 왔다.

《지원》의 그 숭고한 뜻이 현실로 이루어진 오늘 내 조국의 모습을 선생님께서 보실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에 눈곱이 저도 모르게 축축해졌다.

강사의 해설이 끝나자 대학생들이 저저마다 앞으로 달려나가 자기의 결의들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조용하던 사적비 앞마당은 순간에 결의모임터로 변했다.

여러 남녀학생들이 토론했는데 제일 인상적인것은 몸이 다부지게 생긴 청년이었다.

그는 감정을 누르지 못해서인지 두손을 내흔들며 열변을 토했다.

《오늘 우리 당에서는 천리마대고조의 불길드높이 강성대국건설에서 비약을 일으킬것을 바라고있습니다.

지금은 모든것이 어렵습니다. 어렵기때문에 우리에게는 신념이 중요하며 백번 쓰러지면 천번 다시 일어나는 결사의 각오가 중요한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속에 김형직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지원>의 높은 뜻이 뜨겁게 굽이치는 한 우리나라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사회주의락원으로 전변시키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원대한 그 뜻은 멀지 않은 앞날에 반드시 실현될것입니다.》

가사

조국의 번영 위해 먼길을 헤쳐 오신
현지도 차창가에 노을이 비껴 올 때
장군님은 인민의 념원이 꽃피여날
아 강성대국 새 아침 그려 보시네

인민의 행복 지켜 밤길을 이어 오신
최전연고지우에 먼동이 터오는데

토론들은 짧았지만 하나와 같이 기백이 있었다. 그들의 불같은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크나큰 감동을 받아안았다.

력사의 험난한 새벽길을 헤쳐오신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너무도 짧은 생애를 마치시였으나 선생님께서 남기신 그 위대한 정신적유산은 세대와 세대를 넘어오면서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힘있게 맥박치고 있지 않는가. 그 힘찬 맥박은 어려운 난국을 이겨내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는 우리모두의 가슴에 힘과 용기, 백절불굴의 투지를 가다듬게 해주고있다.

불쑥 생각나는 일이지만 나는 이전에 어떤 가정들에서나 청사, 공공건물들에서 《지원》이라고 쓴 족자를 많이 보아왔었다. 그때에는 그저 범상히 보고 지나쳤지만 지금엔 그 의미가 새롭게 안겨온다.

그것은 단순히 장식을 위한 족자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애국애족의 큰뜻이 담긴 그 글발을 거울삼아 자신을 가다듬고 부단히 수양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정신적지향의 반영이 아니겠는가.

대학생대렬이 떠나가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사적비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속에 묻혀 비에 새겨진 글자들을 자자구구 읽어보느라니 문득 이 기념비가 거대한 폭과 높이를 가진 기념탑처럼 굴절되어 안겨오는것이였다.

본질과 의의, 가치는 결코 외형에 정비례하는것이 아니다.

이 사적비는 크지 않아도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여기서 크나큰 뜻과 참으로 귀중한 정신적힘을 받아 안고 있다.

그렇다.

조선국민회결성기념비와 더불어 김형직선생님께서 지니셨던 《지원》의 숭고한 뜻이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기념비마냥 세워져있거늘 이 기념비는 천만년 세월이 흘러간대도 영원히 거대한 기념비로 찬란한 빛을 뿌릴것이다.

내 조국의 아침

정 삼

장군님은 이슬내린 전호가를 걸으시며
아 강성대국 새 아침 불러오시네

비오나 눈이 오나 혁명의 진두에서
내 조국의 첫 새벽을 담먼저 맞으시네
장군님이 한평생 걸으시는 그 길우에
아 강성대국 새 아침 밝아온다네

그 위대한 손으로

김송남

오신 길 얼마이신가
수도를 떠나시어 멀리 또 멀리
어이하여 또다시
쪽잠도 잊으시는 그이의 하루밤이
이 땅의 먼길우에 흘러야 했던가

감격에 젖는다 함흥분원 과학기지가
눈물에 젖는다 과학자들의 가슴가슴이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우리 선거분구에
우리의 연구사 립 후보에게
우리와 함께 투표하러 오시었다고...

목메여 터치는 만세의 환호에
잠을 깨는 하늘땅은 넓게 열리고
솟는 해도 이 아침엔 한결 더 눈부신데
뜨거운 손길 흔들어 주시는
그이의 미소 해빛보다 더 밝다

소리치는 구보진군의 하많은 일터
이름높은 고장들을 다 지나시어
그이 오신 이곳은 다만
반응로속에서 시험관안에서
그것을 지켜 보는 충혈된 그 눈빛들에서
남모르는 사색이 조용히 타끓는곳

그것이 귀중하시어
그것을 제1선에 내세워
조국의 21세기를 높이 안아 일으키시려
과학중시의 큰뜻을 펼쳐 가시는
거룩한 자욱자욱

천리전선길 넘고 지나시어

가사

강행군의 어려운 앞장에서 다 헤치시어
사뭇 엄숙히
못내 정중히
이 아침 선거표 받아드시는 그 손은
이미 위대한 승리를 틀어잡고계셨나니

다만 한표의 찬성이 아니시여라
우리의 과학자 그 한사람한사람을
우리의 과학기술 그 솟음치는 새힘을
21세기로 파견하시는
믿음의 증표여

평범한 과학자 그 이름조차
더욱 빛나는 의미로 력사앞에 나섰다
과학의 어깨가 굵어진
무거운 사명감을 큰눈 떠보며
연구실 창문들이 해빛안고 번쩍인다

이 한표를 바치시려
또다시 쪽잠마저 잊으며 오신
그이의 먼길우에 떠실려 온 미래여
아득한 물질세계의 그 한끝을 헤쳐낸
새로운 원소들과 분자식들을 디디고
무한대의 신비로운 과학의 힘을 디디고
더 높이 나래쳐오를 조국의 모습이여

아 정녕 그 위대한 손으로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이 아침 들어올리고계시였다
과학기술의 제일왕국
주체의 위대한 강성대국
내 조국이 맞이할 21세기의 영광을!

행복한 부부

오필천

그대여 말해 주오 우리 서로 만나서
이보다 큰 기쁨 그 언저 있어 봤소
한기대에서 일하는 우리 부부 만나시고
장군님 기념사진 크게 찍어 주시었소

그대여 이보다 큰 행복 또 있겠소
복중에 큰 복을 우리가 다 받았소

장군님 기쁘시어 혁신자부부라고
우리를 온 나라에 자랑해주시었소

부부간 오누이라 살뜰한 가정의 꽃
부부간 경쟁자로 소문난 일터의 꽃
장군님대가정의 충효의 꽃피워가는
우리는 행복한 로동자부부라고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원대한 포부와 피타는 탐구정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내 조국의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공동시설에서-

수필

기동

김광수

올해 공동시설을 받아안은 온 나라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공장과 농촌, 립산마을 그 어디나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돌파한 우리 인민의 환희에 넘친 웃음소리가 넘쳐나고있다.

래일에 대한 희망과 랑만이 세월을 주름잡았는가 이해의 봄은 더 빨리 온듯싶다.

꽃피는 계절에 접어들며 나도 조바심이 났다.

격동적인 시대를 체험하고있는 작가로서 의무감과 책임감이 앞서 현치취재의 길로 떠날것을 채찍질하였다. 누구나 시대를 직감하고있는 작가라면 응당 그렇듯이 어떻게 하면 좋은 작품을 쓸가, 그래서 우리 인민의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수 있을가 하고 창작의욕에 불탈것이다.

더우기 올해는 당창건 55돐을 맞는 뜻깊은 해가 아닌가. 이해에 좋은 작품을 쓰지 못하면 일생 빈축정이농사를 지은 농사꾼과 무엇이 다르랴.

나는 안해가 꾸려주는 목직한 배낭을 메며 《이번엔 좋은 작품을 써가지고 와야지.》 하고 호기있게 말하였다. 그러나 안해는 못미더운지 웃으며 《예구, 가서 앓지나 마세요.》 한다. 못밧겠다는 소리다. 하긴 그 말에 변명할 여지가 없다. 지난 시기 소리칠만한 작품 하나 변변히 쓰지 못한 나로서는 응당 들어야 할 동정인것이다.

내가 제철소가 바라보이는 언덕우에 올라섰을 때는 점심시간이 퍼그나 지났을 때였다.

얼굴에 맺힌 땀방울을 훔치며 제철소경치를 내려다보는 맛이란 별맛이었다.

싱긋하면서도 비릿한 제철지구의 고유한 냄새, 여전히 변함없는 대야금기지의 웅장한 자세, 제철소구내에 붉은색으로 쓴 《당창건 55돐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대형구호가 한눈에 확 안겨왔다.

올해 공동시설을 철저히 관찰하기 위하여 덩치 큰 제철소가 통채로 움썽움썽 힘을 쓰고있는것 같다.

비유해보면 제철소가 그대로 천리마가 되어 대진군을 하는것 같다.

공장구내에서 솟구쳐오르는 흰 증기는 그대로 하늘에 뜬 흰구름이요, 쿵쿵 지심을 울리는 파쇄장의 동음은 천리마의 발굽소리 같다. 또 장입기가 로에 파철을 쏟아낼 때 《왕-》하는 소리는 천리마의 힘찬 투레질소리와 다를바 없다.

제철지구를 둘러볼수록 감회가 깊어진다.

내가 이 제철지구를 잘 알게 된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다.

이 부근에서 군사복무를 하던 나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병사작가》로 수시로 용해공들과 접촉하며 취재를 했었고 대학기간에는 창작실습의 배낭을 여기에 풀어놓고 용해공들과 뒹썰렸다.

하여 어느 로의 로장은 누구이고 어느 직장구내에 무쇠기동은 몇개라는것까지 환하게 알게 되었다.

희망이 봄날의 흰구름처럼 피어오르던 그 나날 나는 이곳 사람들의 생활을 담은 단편소설을 써서 현상응모에 입선하는 영예를 지니었고 대학시절 창작실습에서는 단막희곡으로 구성되었던 작품이 그릇이 작다고 인정되어 중막으로 불어났지만 잘 되었다고 평가를 받았다. 극중인물들의 성격이 개성적이라는 호평을 받고 어깨가 으쓱 올라갔던 일이 어제런듯싶다. 그러다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을 알고 제철소 구석구석을 익힌셈이다.

그저 취재방향의 화살을 어디다 박고 지난 시기 재미를 붙였던 《그물》을 크게 치고 점차 조여들여가는 취재방법을 쓰리라 계획을 세웠다.

구내길을 걸어가던 나는 철강재들이 쌓인 야외적재장에서 심중하게 무슨 말을 하는 두사람을 띄어보고 반가움을 금치 못하였다.

고문로장아바이와 부기사장인 《되박이마》준섭이가 아닌가.

그러나 다음순간 나는 주춤하고 멈춰서지 않을수 없었다.

고문로장의 엄한 목소리가 귀전을 쳤기때문이었다.

《뭐 생산이 바쁘다고 부기사장이 기술혁신조를 해산시켰다면? 그러구두 젊은이들의 <밀거름>이 되겠다구 한다면... 구실이 그럴듯하오. 70년대에 그렇듯 탐구적이던 <되박이마>가 60도 못됐는데 현실을 도피하려는게 아니요.》

《현실도피와 <밀거름>은 차이가 있지요.》

《구실이요. 올해가 어떤 해인지 나보다도 더 잘 아는 부기사장이 아니요. 현실은 머리를 싸매구 실력을 높이지 않고는 자기자리를 지켜낼수 없다는걸 알아야 하오. 그러구두 뭐 제철소의 무쇠기동이라구. 서까래감두 못되오.》

《허, 별말씀을 다합니다.》

《마음속에 쇠물이 끓지 않으면 무쇠기동도 녹이

쓸구 구부러든단 말이요. 명백히 하라구. 무쇠기둥인가 서까래감인가?)

특한 고문로장의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이 깊어짐을 어쩔수 없었다.

(무쇠기둥인가, 서까래감인가.)

범상히 한 말이나 얼마나 많은 뜻이 담겨진 말인가. 올해 공동사설에도 명백히 밝혀져있지만 지금은 과학기술중시의 시대이다. 지난날에 쌓은 지식을 우려먹으며 자리지킴이나 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 발전하는 현실에서 자기몫을 하려면 최신 과학기술을 소유해야 한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하려고 해도 모르면 할수 없다. 모르면 쇠물의 슬라크처럼 밀려나게 되고 오히려 발전하는 현실에 걸림돌이 될수도 있다. 본의아닌 파오도 범할수 있고 인민앞에 죄를 지을수도 있다.

고문로장의 말처럼 지난날에는 제철소의 기둥이었다 할지라도 실력의 탑을 계속 쌓지 않는다면 서까래감이 되어 남이 떠받들고있는 지붕우에 올라가 누워있게 되는 신세가 되고만다.

나는 팍구멍이 승승한 고문로장의 얼굴과 꺼멥게 질린 《되박이마》를 생각깊이 바라보았다.

그러노라니 70년대에 있었던 잊을수 없는 일들이 생동한 화폭처럼 명확히 떠올랐다.

그때 나는 대학에서 창작실습을 이곳에 나와 했다. 취재상 편리를 위해 준섭이가 있는 합숙호실에 함께 있었다. 그것은 현장기사인 준섭이 이름이 제철소구내 그 어디에나 불리우고있었기때문이다. 기술자들과 용해공들속에서는 《우리 준섭기사》, 《우리 <되박이마>》 하는 말이 떠날줄 몰랐다. 그나날 그는 언제 자고 언제 밥을 먹는지... 또 제철소구내 어디서나 준섭의 얼굴이 비치지 않는데가 없었다.

하루는 밤도 이숙한데 불현듯 복스럽게 생긴 젊은 녀성이 찾아왔다. 알고보니 갓 결혼한 준섭의 아내였다. 얼굴을 붉히며 손톱여물을 썰던 그 녀자는 준섭에게 말했다.

《왜 집에 들어오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어머니가 걱정해요.》

《도면을 완성하느라구 못들어 갔구만...》

그 녀자의 기색을 보니 시어머니의 이름을 빗댄 자기의 심정이었다. 갓 신혼생활, 한창 남편의 애무를 기다리는 순박한 녀인의 간절한 마음이 눈빛에 어려있었다.

《전번에 집에서 내온 구멍탄기계는 용접했나요?》

그 물음에 준섭은 어쭙은 기색으로 탄기계를 접어들었다.

내가 그 탄기계를 방구석에서 본지 이젠 보름도 넘었을것이다. 오히려 내가 급한 생각이 들었다.

《참, 준섭동무두... 아주머니, 잠깐 기다리십시오.》

나는 탄기계를 들고 호실문을 나섰다. 용접기로

한번만 지지면 될걸 가지구... 덜렁스럽다. 아니 그는 제철소적으로 제일 깐깐한 사람중의 하나였다. 그런데도 자기 일에만은 무관심한 그였다...

시간이 무척 짧은 어느 봄밤이었다.

준섭은 호실에 있는 물주전자에 입을 대고 정신없이 마셨다. 나는 놀랐다.

《아하, 나 모르게 어디 가서 잘 잡순 모양이다.》

《아니야, 자다가도 소변이 보구싶어 인차 깨어나려구 그래. 저 영문판기술서적을 오늘날중으로 봐야 하겠는데...》

언제나 시간이 모자라는 그였다.

나는 그의 향학열에 탄복하곤했다.

제철소에서는 준섭이란 이름대신 《되박이마》란 애칭이 널리 퍼졌다. 그의 도두룩한 이마에서 막힘없이 기발한 창안들이 쉼없이 흘러나온다고 그런 칭호가 붙은것이다.

우리 호실문은 낮과 밤이 따로없이 닫기고 열린다. 그러고는 《여보게 <되박이마>, 또 기술을 한 되박 꾸어주게나.》 하고는 무릅없이 데리고 간다. 또 어떤 때는 호실안에 도면을 펴놓고 밤새도록 담배연기를 호실안에 채워놓는다.

20년전 내 《창작일지》, 이제는 누렇게 퇴색했고 잉크가 핀 종이장들우에 잘 찍힌 영화화면처럼 그의 모습이 2중로출되어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그렇듯 정열적이고 탐구적이던 현장기사, 제철소를 떠받들고있던 무쇠기둥이 세월의 흐름과 함께 서까래감으로 변했다만인가. 믿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와의 상봉을 미루고 여러날 간접취재의 그물을 치기 시작했다.

고문로장의 엄한 추궁이 옳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전날의 《되박이마》와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있었다.

오늘의 생산에만 눈이 어두워 청년들의 탐구열, 학구열을 이해하려고 안하거나 걸림돌이 되고있다는것이였다. 현장기사로부터 제철소부기사장... 세월속에 준섭의 성격은 퍼그나 변했다.

그후 나는 어느 휴식일날 두키로남짓할 가물치를 구해들고 그의 집을 찾아갔다. 충고할 말도 단단히 버트어가면서.

몸이 보기 좋게 난 준섭의 안해는 한참만에야 나를 알아보고 그 어진 눈가에 눈물을 그렇게 피여올리며 반가와했다. 허나 준섭은 없었다.

나는 준비를 잘해놓으라고 부탁하고는 그가 있을 만한곳을 찾아갔다.

틀림없었다. 로앞에서 그는 용해공들과 함께 무슨 도면을 놓고 열정적으로 토론하고있었다. 대학을 갓 졸업한 현장기사가 연방 머리를 끄덕인다. 나는 기쁨이 솟아올랐다.

(그러면 그렇겠지. 그 무쇠기둥이 어디 가겠는가. 자칫하면 비바람에 녹이 쓸뻔했구나.)

내 가슴속엔 그에 대한 믿음이 그들먹해졌다.

그렇다. 오늘은 과학기술중시의 시대이다. 실력이 없이는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할수 없다.

공동사설에서는 올해에 명실공히 실력전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얼마나 현명한 당의 방침인가.

우리 로동계급들은 실력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뜻을 빛내여가는 강성대국건설의 전위들, 무쇠기둥이다. 인공지구위성이 하늘을 날고 있는 시대에 지식의 탑을 쌓은 실력가가 되지 않고서는

21세기의 성공탑, 강성대국을 건설할수 없다.

우리는 이해에 누구나 실력전을 벌려 강성대국을 떠받드는데서 평범한 나무기둥이 아니고 무쇠기둥이 되어야 한다.

총돌격전을 벌려 강성대국건설의 3대기둥으로 억세계 준비해가야 한다.

생각이 깊어지는 이 시각, 내 가슴속에도 신념의 무쇠기둥이 깊숙이 뿌리내리고있음을 느꼈다.

그 하나의 작은 불꽃은

최정용

그 누구의 눈길도 끈적이 없이
그 누구의 발걸음 멈춰세워본적도 없이
전시대우엔 가볍게 놓여 있었다
다만 탐구의 작은 불꽃을 담은
크지 않은 유리병 하나

감빛으로 빛나는 액체
그 몇방울에 대한
너무도 간명한 설명서앞에
그 어떤 력사의 시각이
오래오래 멈춰 섰던가

거기 산악을 누벼가는 무쇠철마
바다를 밀며 솟아오르는
연연 제방이 보이는것도 아니였건만
그 무슨 신비로운 음향을 들으시는듯
그 어디 펼쳐지는 새땅을 보시는듯
그앞에 발걸음 멈추신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
기쁘시여 만족하시여
수고가 많았다고 큰일을 했다고

한방울 이슬에서 온 우주를 헤아리듯
흘러간 10년세월
거기에 바친 수고를 다 헤아려 주시는
그 사랑에 목매여 두볼을 적신것은
그이앞에 서있던 과학자들뿐이었던가

아직은 애어린 봄싹과 같은
아직은 반짝이는 불꽃과도 같은
탐구의 그 작은 성과를
새로운 창조의 도표위에 높이 실어주시며
그 액체 방울방울에
새 세기의 해빛을 안겨주실 때
과학자들의 가슴은 넓게도 열렸거니

아 유리병속의 작은 불꽃은
작은 유리병속에 담겨진 과학자의 한생은
그 위대한 사랑으로
미구에 밝아올 새 세기를 비칠
과학의 섬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강성대국의 래일을 위해
거세찬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다

우리 주체형의 혁명가들은 죽으나 사나 사상을 틀어쥐고 나가는 철저한 사상론자가 되어야 한다.

-공동사설에서-

련시

나는 불이 되련다

한창우

명중

땅-
총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총알은 보이지 않는다

허나
내가 쏘는 총알은
천만자루 총검의 위력 담았나니

사정거리 무한한
나의 총알
원쑤의 아성에 한번 날리면

과녁을 놓치지 않는다

그렇다
한자한자 나의 붓이 새기는 글발
장군님 주신 사상의 총알

오 한알한알
백두령장의 사상이 장약된 나의 총알
한번 쏘면 지구의 끝에 닿고
언제나 백발백중!

나는 불이 되련다

나는 불이 되련다
백두에서 타오른 그 불길
나의 심장에 그대로 옮겨 놓은
조선의 총천 불의 시인이 되련다

나는 불이 되련다
온갖 잡쓰레기
시대의 오물을 다 불태우는
사나운 불길이 되련다

내 붓 원고지에 닿으면
천만병사의 총창에 번개가 일고
내 심장의 불 병사들 심장에 담으면
폭풍치는 눈비속에서도
천길 물속에서도 꺼질줄 모르고

홀로 숨지는 적후에서도
영원히 타는 불길로 솟구치게 하련다

한번은 가야 할
천리 불길속 선참 달릴 때
불속에서 단련된 불의 강자가 되련다
원쑤들의 검은 불
나의 붉은 불로 짓누르련다

오, 이몸 불로 타
장군님사상의 불길에 보탬이 된다면
내 통일성전에 한점 재로 사라진대도
기꺼이 이몸을 내대리라
온 세계를 주체의 붉은 노을로 물들이는
그 노을속에 타리라

무릎책상

노도치는 철의 대오
근위사단의 행군길
땀에 젖은 발싸개 다시 할새 없어도
나는 쓴다 무릎우의 원고지에

낮도 없이 밤도 없이
다그치는 행군길에 넘치는 기상
장군님 병사들의 만만한
배짱과 신심을 그대로 쓰노라

신들메 한번 풀새 없이
젖은 군화 잠시 말릴새 없이
달빛을 조명삼아 쓰고쓸 때
땀젖은 무릎은 그대로 나의 책상

무릎우에 나래치는 번개의 섬광
줄줄이 새겨지는 그 글발들에
장군님 병사의 진실한 초상이
진하디진하게 새겨지니

보이는곳에서도
보이지 않는곳에서도
병사들의 가슴마다에
승리의 기발로 나뭇기는
장군님 정의의 그 필봉

병사들 탄알을 재우는 순간에 앞서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에 앞서
신념과 의지의 량식을 안겨주나니

항일의 시인들처럼
전화속의 종군기자들처럼

허위와 과장이 깃들새 없고
후회가 없다네

오, 아늑한 서재 창작실도 아닌
훈련장의 내 무릎은
전투장의 내 무릎은
흐르는 땀 씻을새 없는
진짜 나의 책상

탄알보다 더 빠른

그 진리 그 정의를
남먼저 알고
남먼저 병사들에게 안겨주는
우리는 철저한 사상론자들

하거늘 너와 나
우리 사상의 총탄은 불발을 모른다
탄알보다 더 빨리
폭탄보다 더 위력하게
원쑤의 아성 송두리채
뒤집어놓으리

최후의 그 순간

팔다리가 부서지고
총탄마저 떨어진
결사의 고지우에서 수류탄 입에 문
병사의 군복설엔 소중한 시첩 하나
그속에 내가 쓴 시도 있는가

최후의 그 순간
원쑤의 천만총구앞에서도
떳떳이 머리 치여들고
심장으로 읊어본 시 한수
그속에 내 마음도 담겨졌는가

오, 자폭의 그 순간
영생의 언덕으로 떠밀어준 시
변절과 죽음을 차던진 그런 시
나에게 있는가? 너에게 있는가?

시대의 숨결로 될 그런 시로
이 땅을 금별의 위훈으로 덮게 할 때
장군님 그리도 믿어 내세운
우리는 오늘의 총권 종군시인

우리의 붓대

군복입은
오늘의 종군작가들이여
우리가 새기는 글 한자한자가
병사들 가슴에 피방울처럼 흘러 들수 있는가
항일의 그 나날
투사들 배낭속에 지고 다니던

그 등사기에서 찍어낸 그날의 글처럼
신념과 의지의 량식만을
병사들 심장에 안겨줄수 있는가
총창이 번개치는 훈련장마다에
우리가 새긴 한자한자의 글이

병사들의 심장에
 멸적의 불줄기로 채워졌는가
 우리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
 위훈의 언덕으로 떠밀었는가

우리가 들어진 붓대가 흔들리면
 병사들 총대가 흔들리고
 우리의 붓대가 휘어지면
 병사들 총대가 휘어지나니

내 만약 붓에 적실 잉크가 떨어지면
 나의 붉은피로 새기리라

내 만약 종이가 떨어지면
 나의 한몸 다 내대리라

오늘의 종군작가들이여
 운명처럼
 온 뉘트로 들어진 또하나의 총대
 장군님 뒤에주신 이 붓대를
 더더욱 억세게 틀어쥐라

현대전의 가장 위력한 백승의 무기
 우리만이 들어진 성스러운 총대
 장군님 사상 만탄창한 이 붓대를!

이 금메달을 받아주세요

-세계 《마라손녀왕》 정성옥의 심정이 되어본다-

김철혁

이제야 오늘에야
 이 금메달을 안아 왔어요
 나를 키워 내세워준
 어머니조국이여

얼마나 그 얼마나
 이 메달을 고대해 온 그대입니까
 64년전의 그 일이
 지금토록 아물지 않은 상처로
 가슴에 맺혀있는 이 땅

그날에도 이런 금메달은 땀이었지만
 그것을 빛내여 줄 제 나라 국호가 없고
 그 영광 창공에 떠받들 제 나라 국기가 없어
 망국의 치욕에 피눈물 뿌리던 내 조국...

그 일을 못잊으시여
 그리도 가슴아파하시던 어버이수령님
 그날에 절절히 하신 그 말씀
 마라손은
 나라가 없을 때도 1등을 했는데
 나라가 있는 오늘에야
 왜 1등을 못하겠는가고...

조국의 영예를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던
 수령님 뜻은 우리 장군님 뜻
 마라손대오를 친히 무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전법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

그 뜻을 안고 이 딸은 달렸어요
 105리 마라손주로
 몸은 2시간 26분 59초를 달렸건만
 마음은
 오늘의 수령님이신 장군님을 그리며
 그 명예회복의 64년을 달렸어요

마음속엔 폭풍이 휘몰아치고
 발걸음엔 번개가 일었습니다
 내 모든 정신력
 내 만신의 기력이
 오직 그 하나를 위해
 뛰고 달리며 용암처럼 끓어번졌습니다

아, 그런데 조국은 이 금메달보다
 천만배 더 빛을 뿌리는 영광을 내게 주십니까
 민족의 장한 딸이라고
 조선의 훌륭한 딸이라고
 시상대에서도 다 바라볼수 없던 높이에
 나를 올려세워주십니까

받아 주세요
 어머니조국이여
 내 삶의 전부인 이 금메달
 언제나 어느때나 고마운 그대 위해
 서슴없이 한몸 던져 한이 없을
 나의 이 심장을 받아주세요!...

주체태양의 품속에서 성장한 시와 시인

-최승철의 시들을 읽고-

박종식

문학과 예술일반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시는 썸물과 같이 깨끗한 마음, 시인의 량심에서 울려나온다고 말해야 한다.

량심, 그것은 사람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심장의 목소리이고 웨침이며 박동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리성과 감성의 정화이며 참되고 착하고 아름다운것을 지향하는 인간의 참모습이다.

그러나 흘러간 낡은 착취사회에서 봉건통치자들이 자기의 반인간적인 전제권력으로 참된 시와 시인을 《하늘의 하사품》이라고 으르대는 그앞에서 그것을 부정의와 악의라고 규탄한다는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던가. 량심으로 헤쳐가는 정의의 길은 목숨을 바쳐야 하는 험난한 수난의 길이였다. 백성들을 편든 지성인들은 형장과 귀양지에서 한을 품고 죽으면서도 량심의 저서와 시를 유산으로 남겼으며 무덤도 없이 희생된 무인, 의병들도 주옥같은 애국시가를 남겼다.

시가 예로부터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것은 이렇게 어둠속에서도 광명을 지향하고 역경에서도 진실과 미와 정의를 주장한 목소리였으며 이러한 사명으로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과 불의를 반대하여 싸우게 하며 운명을 개척하는 투쟁의 무기로 되어온 때문이다.

그러나 낡은 사회에서는 많은 경우 시가 지성인들의 소유물이었고 일반 인민들속에는 생활화될수가 없었다.

시는 오직 우리 시대, 주체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광범한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대체 누가 한치알도 어둠던 수난자들에게 구원의 광명을 주고 혁명으로 압제자들을 짓부시고 인민의 새 세상을 세워주었던가. 그분은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가 주체의 태양으로 받들어모시는 아버지수령 **김일성** 동지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거친 들의 락엽처럼 버림받던 사람들을 자기 운명과 세상만물의 주인으로 내세워 주셨으며 우리 인민을 민족자주, 인간자주의 아름다운 기술예로 이끌어 주시면서 인류에게 드넓은 자주의 궤도를 펼쳐 주시였다.

참으로 그이께서 이 땅에 일떠세우신 자주의 사회주의강국과 주체의 락원은 인류사가 처음으로 맞이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세계이다.

사람들이 시인을 사랑하는것은 바로 그가 시대의 가수, 시대의 나팔수로서 남먼저 생활에서 이러한 숭고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예민하게 감득하고 복잡다단한 생활속에서 생의 참뜻과 진리를 찾아내어 사람들을 이끌어주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시인은 시대의 가수, 시대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 가슴에 늘 시대를 안고 몸부림치며 시대의 숨결과 호흡을 같이하기 위하여 아글라글 애쓰는 사람이라야 참다운 시인이 될수 있다.》

우리 민족, 우리 인민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세계를 진실하게 반영한 문학의 으뜸가는 기본주제는 주체의 태양송가이다. 그것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우리 수령님과 수령님의 천품을 그대로 지니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티없는 량심과 견결한 신념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민족,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반영한 주체의 태양송가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주체의 태양송가는 그 규모에 있어서, 부르고 칭송하는 열도에 있어서 마치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우주의 태양에 생을 의탁하고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우러르는것과도 같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에 류례없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빼앗긴 조국을 해방하고 이 땅위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였기때문이다.

또한 그이께서 우리 민족과 인류앞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위훈이 가장 뜨거운 인간사랑에서 피여오른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보편성의 아름다운 꽃이며 결실이기때문이다.

주체의 태양송가문학을 품위있게 장식하고있는 시인들중에는 값진 지성과 풍만한 서정을 독특하게 결합한 작품들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있는 시인 최승철도 있다.

시인 최승철은 장중편, 단편소설을 비롯한 여러 형식의 문제작들을 수많은 냇지만 시와 산문 어느 글을 보아도 탐구된 주제와 뚜렷한 개성미로 특이한 시인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의 시집 **《빛나는**

모습들》(주체63년)과 그후에 발표된 많은 서정시들만 보아도 거기에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 사회, 주체의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시는 나날에 언제나 우리의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전체 인민을 자주적존재로 키워주시는 은혜로운 사랑과 우리 인민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자연과 사회, 인간을 변혁하는 창조의 거세찬 흐름이 랑만적화폭으로 박력있게 그려져 있다.

시인의 시집의 첫 시 《송가》[주체62(1973)년]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장쾌한 퇴성인가, 만장의 환호
훈장의 금물결, 영웅들의 행진이다
웃으시는 태양 자애로운 수령님
손을 높이 흔드시며 환호에 답례하시여라

항일의 혈전 불구름 만리에
안고오신 조국, 키우신 세대
세기의 한없는 사랑 펼쳐주 주셨으니
담대한 투사들 바다처럼 흘러라!

...

시인은 이 《송가》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민족의 세기적속망이던 조국해방을 안아오시고 우리 인민을 열렬한 혁명가, 위력한 새 사회 건설자로 키우신 주체위업의 승리적전진을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에게 민족자주, 인간자주의 생명수를 주시고 주체의 새 시대를 열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과 그이의 령도따라 새 사회 건설을 힘차게 다그쳐가는 우리 인민의 긍지높은 새 생활이 거창한 대하로 흐르고있는 힘의 원천을 본다.

...

백두산, 너에게는 거룩한 모든것이
호탕한 웃음도 깊은 사색도
시대를 정복한 칼같은 기상도
신묘한 광채로 머물러 있었구나!
정녕 우리의 주체위업은
너처럼 장하고 너처럼 거창하여
영원토록 후손들의 하늘에 솟아 있으리

오, 내 나라의 높은 이마우에
찬란한 금관처럼 빛나는 백두산이여
용감하고 담대한 기수의 머리에
얼마나 얼마나 어울리는가!
원썩들은 눈이 멀어 비칠거리리!

복받은 조국이여
나는 삼가 이 성스러운 절정에 올라

구름바다우에서 세계에 웨치노라-
빛나게 살자
백두산이 굽어본다!

시 《백두산》(주체55년)에서

이 시는 백두산이야말로 우리모두의 마음의 고향이며 민족이 자랑으로 품고있는 영광과 숭고함의 엄숙한 상징임을 감동적으로 확인하고있다. 이러한 성산을 자랑으로 쳐다보며 그 기슭에서 생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응당 한생을 값있게, 영웅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기에 《빛나게 살자 백두산이 굽어본다!》고 한 시인의 웨침은 그대로 시대의 웨침이며 우리 모두의 웨침으로 된다.

주체의 태양송가는 그것이 진실할수록 조국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열렬한 사랑의 송가로 구체화될 수밖에 없으며 수령님의 그 위대한 모범을 따라 사람들을 인민과 민족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과 충성으로 부르는 격조높은 노래로 될수밖에 없다.

조국에 대한 사랑은 다른 모든 사랑이 그러한것처럼 미사려구의 관념적인 선언일수 없으며 그것은 지혜와 인내와 용기를 다하여 조국을 지키고 다듬어나가는 헌신적인 실천의 세계이다. 근세이래의 우리 나라 력사는 세계사에 류례가 드문 중첩되는 난관과 고난의 돌파과정이었으며 그것을 반영한 조국애는 헌신적인 투쟁의 위훈으로 엮여져 있다.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고향 만경대를 떠나 한겨울의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느시며 조국해방의 굳은 결심을 다지시던 그날로부터 우리 수령님 걷고 걸으신 혁명의 길은 참으로 조국애로 빛나는 피의 행군길이였다.

그것은 혁명의 진리를 수난당하는 인민들의 생활속에서 찾으시고 혈전속에 풍찬로숙하며 그 진리를 실천에 옮기신 준엄한 혁명의 길이였으며 간난신고로 되찾은 조국땅우에 인민의 새 세상,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신 창조와 변혁의 로정이였다.

최승철시집 《빛나는 모습들》과 그후에 발표된 그의 많은 시들에는 백두에서 시작된 혁명의 붉은 기 높이 드시고 고난의 행군길을 헤치시며 걸으신 우리 수령님의 거룩한 모습이 그려지고 그이를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는 혁명전사들의 대오가 잇달아 흐른다.

이 시집에서 시인이 심장의 박동으로, 녀의 웨침으로 노래한 내 조국, 이는 우리 민족의 머리에 숭엄하게 높이 솟아있는 백두성산을 절정에 두고 동서남으로 수려하게 펼쳐진 대지와 푸른 바다, 저 맑고 새파란 하늘아래 자주의 생을 가꾸는 우리 민

죽의 정신과 삶의 총체인것이다. 내 조국, 이는 그 어떤 추상적인 상징과 비유를 초월한 구체적이고 감각적이며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우리 겨레의 사랑과 인정이 무르익은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집단적 삶의 세계이다.

내 조국, 이는 저 푸르고 해빛밝은 하늘아래 우리 인민의 창조적인 노동과 투쟁이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대지이며 그 누가 일깨워주고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우리의 뼈와 살, 심장속에 그리움과 사랑으로 스며든 그 모든것이다.

시인은 시집에서 우리 인민의 창조적생활에 대하여, 우리의 보다 아름다운 조국의 미래에 대하여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조국이어! 그대의 품, 그대의 넓이엔
정녕 끝이 없는듯 생각되누나
영명하신 수령님 그대우에 펼쳐드신
찬란한 미래로 하여
그대의 넓이엔 한계없어라!
밑창이 없는 재부의 깊이가
하늘의 성좌도 무색한
땅우에 펼쳐진 불빛의 바다가
넓이에 한계를 주지 않아라!
그 어떤 계산기도 재여낼 길 없는
인민의 혁명적정열로 하여
그대를 바라보며 내가 잠기는
끝없는 환희와 노래로 하여
그대의 넓이엔 한계 없어라!

《대교조의 노래》 [주체62(1973)년]에서

참다운 시인의 시야는 높은 산정에 올라 아득한 지평선 멀리 펼쳐진 광활한 대지를 굽어보듯 한계 없는 넓은 세계이다. 그의 상상의 날개는 옛전설에 있는 큰 새의 날개와 같이 하늘땅을 날은다고 말할 수 있다. 시인 최승철의 시적시야, 그의 사색의 날개는 생활의 진실과 진리를 찾아 조국의 대지우를 끝없이 날은다. 이것이 그의 시적사색의 광활성이 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는 노동계급과 농민의 창조적로동이 들끓는 생활의 대지를 체험하고 여기서 가장 의의있고 아름다운 창조적로동을 경쾌하고 대담한 필치로 노래하였다. 이것은 그의 시적개성이 무게있고 호방하며 진폭이 매우 크다는것을 말해 준다.

최승철의 시 《조국이 부르는 소리》(주체87년 1월)는 탐색의 독창성과 형상의 원숙미를 유감없이 보여주고있다. 이 시는 태양송가와 조국애의 노래가 높은 수준에서 유기적으로 통일된 작품으로서 혁명적락관주의로 중첩되는 난관을 맞받아 헤치며 《고난의 행군》을 거세차게 벌려가는 우리 인민에게 조국애의 참뜻을 깨우쳐주며 파감한 창조적투쟁을 호소하는 시대정신이 불타는 노래이다.

시인이 감동적으로 노래한것처럼 조국은 조상들이 대를 이어 헤아릴길 없는 희생을 바쳐온 역사적인 유산일뿐아니라 이 땅우에 생을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창조적인 노동과 투쟁으로 마련한 지성의 선물을 안고 후손들을 마중가는 민족의 도도한 흐름이다.

조국이어
너는 역사가 모여 파도치는것
선렬들이 우리에게 화불을 넘겨준
엄숙한 투쟁의 터전
죽어도 못버릴 인생의 전호
너는 사람마다 창조의 선물 안고
후손들을 마중가는 도도한 흐름이어라

진정 조국은
민족의 거창한 집단예술
대를 이어 다듬는 인민의 궁전
거기 구경군은 설 자리 없나니
사람마다의 참다운 이름도
한생의 충성우에 지어지더라

시적사색이 고도로 농축되고 예각화되어 분화구처럼 뿜어나온 이 두개의 편에는 조국에 대한 시인의 깊은 철학적사색의 열매가 번뜩이고있으며 조국앞에 선 우리 동시대인들의 무겁고도 영예로운 사명이 힘차게 굽이치고있다.

이 시의 커다란 감화력은 시인이 조국이란 숭고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주장에 머물지 않고 조국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각에서 립체적으로 탐구하면서 민족의 성원모두가 한생을 바쳐 심혈의 지성품으로 끊임없이 다듬고 완성해나가는 창조와 투쟁의 터전임을 깨우쳐주는데 있다.

조국에 대한 사랑이 고귀하고 영원한것으로 되게 하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해답이 명백히 주어져있다.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시대와 세계앞에 뚜렷이 보여주신 조국애의 숭고한 모범을 본받고 따르는 그것이다.

...
원하노라
수령님 바라보시는 저 한끝까지
조국을 온통 눈부신 탑으로
하늘 가득히 세우고싶구나
그러면 그 광채 누리를 휩쓸제
인류는 소리모아 웨치리라
-창조의 영원한 사랑을 알려거든
조선의 사회주의를 보라고!

시인은 이처럼 철학적탐색과 정치적예리성, 저력있는 량면적호소를 력학적으로 잘 맞물림으로써 한편의 시로 우리의 조국애를 불멸의 진리와 미로 칭

송하였으며 《장군님의 성스러운 위업을 위하여 우리에게 불타는 심장이 있고 하늘아래 대지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예술적으로 확인하는데 성공하였다.

그의 시집에는 조국, 민족, 행복, 사랑과 같은 추상의 아름다운 세계가 진실하게 펼쳐져 있을뿐만 아니라 창조적로동에서 위훈떨친 숨은 영웅들의 모습도 다채롭게 그려지고 있다. 거기에는 평범하고 소박한 용해공으로부터 류별공, 조립공, 선로감시원 그리고 이름없는 리발사에 이르는 여러 부류의 근로자들이 등장한다. 시인은 그들에 대한 아버지 수령님의 사랑과 수령님에 대한 그들의 뜨거운 호모의 정을 감명깊게 노래하고 있다.

시인의 시야는 생활의 대지를 두루 살필뿐 아니라 산맥의 밝은 눈초리로 인간의 내면세계의 의의 있는 사소한 움직임도 밝혀낸다.

인민들속에서 애송되고있는 그의 담시 《수령님과 리발사》(《기쁨의 담시》 주체50년)를 살펴 보자.

학교의 리발사로인이 봄철아침에 강가에 낚시대를 드리우고 앉아있는데 때마침 개나리꽃 흐늘어진 언덕길로 수령님께서 사색에 잠겨 걸어오신다. 수령님을 알아보고 기쁨에 머리가 핑그르 돈 리발사로인은 무릎을 철썩 친다. 대통을 끄느라, 옷맵시 보느라 앉았다 섰다 꽤나 덤빈다. 로인이 드리는 인사를 받으신 수령님께서서는 몇마디 말씀끝에 그의 직업을 물으신다.

이렇게 되자 로인은 매우 난처해한다. 자기는 나라에서 크게 내세우는 제강소의 용해공이나 이름난 건설자도 못된것이 미안하고 부끄럽기만 하여 눈길을 떨구고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저는... 그저... 학교... 리발삽니다.》 하고 겨우 대답한다.

그런데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전혀 뜻밖에 평범한 리발사인 그의 직업을 부러워하시듯 치하와 축하를 아낌없이 베풀신다.

《리발사, 학교의 리발사라...

-그이는 호수가를 거닐으신다-

좋은 일이지 얼마나 기쁘겠소

매일같이 아이들의 머리를 만지며

불을 쏘어주며 단장을 시켜 주니...

나는 일이 바빠서 그러지 못하누만...

우리의 미래, 우리의 후손들

꽃보다 곱고 황금보다 귀하오!

그렇지 않소, 로인님은 장한 일 맡았소...》

로인의 가슴 울렁인다, 숨가쁘다

황홀한 눈을 들고 그이를 바라본다

그때라 노을속에 해는 솟아 오르고

하늘과 땅은 꿈속처럼 곱네

바람은 노래하고 수림은 춤추고

호수는 찬란히 빛을 뿜어라-

넘치는 축복에 행복한 로인

이 아침을 영원토록 기억하라고

작별의 인사를 나누신 그이

동산을 넘으시여 보이지 않건만

멋지게 코수염을 비틀어 올린 로인

넋을 잃은듯 오래오래 서있어라

세상에 오만가지 직업이 있어

사람마다 제 일을 자랑하지만

어림없어, 리발사가 상 으뜸이지!

우리 수령님과 인민의 관계는 이러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주신 사랑의 정은 이렇게 뜨겁고 가장 인간적인 것이었다. 그이께서 지니신 겸손성, 인민을 하늘의 높이에 두시고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그들의 사업을 축복하시는 그이의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 그리고 민족, 겨레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이 땅에서 생명을 받아안은 모든 사람들, 이 땅의 하늘아래 날으는 새들과 흐르는 강물과 시내물우에 비끼는 칠색무지개, 이 땅에 뿌리내린 푸른 숲과 이끼덮인 거목들이 그 사랑, 그 위인상을 력사의 증인인양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한 우리 수령님의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숭고한 위인상을 시집의 갈피갈피들에 명료하고 생동한 화폭으로 수놓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의 높은 정신세계와 창조적위훈에 대하여 환희와 감격의 노래를 바친 시인은 참다운 행복의 의미를 이렇게 주장한다.

행복이란 무엇이겠니?

그것은 심혈의 창조물을 인민에게 섬기고

아이들의 밝은 눈을 들여다 보는것

그것은 온통으로 서사시인 강토를 거느리고

꽃에 물린 명절의 광장으로 나아가

인민의 태양이신 김일성원수님의

자애로운 미소의 축복을 받는것이란다

《행복에 대한 생각》(주체62년)

시인은 우리의 참다운 행복은 나라와 혁명앞에 소중하고 보람있는 일을 하고 느끼는 자부심이며 인생을 값있게 사는 긍지를 안고 어린아이들의 티없이 맑고 천진란만한 눈동자를 들여다보는 것이며 자기의 창조물을 거느리고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미소의 축복을 받는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수령과 당, 나라와 후손들앞에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자랑이 되는 장한 일을 하는데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생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라는 이 관점은 우리 인민이 도달한 정신적높이를 힘있게 증

언하고 있다.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행복감은 개인주의와 리기주의에 함몰되어 저 하나만의 안락과 안일만을 추구하는 부르조아지들의 행복관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성스러운 주체위업을 위하여, 조국의 존엄과 민족자주를 위하여 자기 한몸을 바쳐나서는 고상한 자세, 이는 오직 민족의 어버이이신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창조될수 있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화폭이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사회를 꿈과 이상이 아니라 현실생활에서 깊은 체험을 통하여 량심의 언어로 노래하고 있다.

문예부흥기의 인문주의사상가들과 자유, 평등, 박애를 부르짖는 계몽기의 선도자들로부터 현대실존주의철학의 주창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부르짖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나 《행복한 사회》는 그들의 꿈과 이상속에 념원으로만 머물러있었다. 부르조아지들과 그 대변자들의 인생론리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다만 현존하는 《나》만이 있다는 비판주의인생관으로 채색되고 있다.

그들은 사람을 호상 고립된 자아중심의 리기적인 생물학적존재로 보며 인간적인 꿈도 사회적인 리상도 없이 오직 자기자신을 팔아 물질적욕구를 해결하는데만 전전공공하는 《소비동물》로 본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자주에로 추동하는 사회적가치를 창조할 능력이 없다.

물론 부르조아사회에도 착취제도에 저항하는 인민대중의 대변자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제나름으로 설정한 정의와 진리의 주장자, 설교자로 머물러있을뿐 자기들의 리상을 지상의 현실에 구현하고 실천하는 자기 희생의 가시발길을 걷지 않았고 또 걸을수도 없었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이 그리고 인민대중을 조직교양하여 수령의 주체위업을 실현하는데로 향도하는 우리 당만이 자주의 락원을 갈망해온 사람들의 오랜 꿈과 리상을 처음으로 지상의 현실로 꽃피워주었다. 그러기에 시인은 인민을 받들어 빛내여주는 령도자와 수령을 충성으로 받드는 인민의 모습에서 고결한 진, 선, 미의 세계를 발견하고 매혹되며 거기서 심장의 노래를 엮어내는것이다. 따라서 우리 시인들이 한결같이 부르는 주체의 태양송가는 민족시문학을 자주시대의 요구의 높이에 끌어올린 자랑스러운 성과로 되며 그것은 그대로 진보적인류의 시문학에 대한 값높은 기여로 된다.

시인 최승철의 인간적개성과 시적개성의 특성은 또한 그가 지성의 시인이라는데 있다.

사람들이 시인을 사랑하는 까닭은 학문의 여러 분야에 특별히 밝거나 가슴에 많은 훈장을 달고있

어서가 아니라 그가 시대의 앞장에 서서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된 길을 가르쳐주는 친절한 길동무이라는데 있다. 여기에 또한 시인의 영예가 있는것이다.

시인은 남보다 견문이 넓고 박식해야 하지만 그보다도 그는 복잡다단한 생활속에서 삶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진실이라는 예술적화폭에 담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시인은 사물과 사회현상의 참과 거짓을 통찰하는 데서 누구보다도 예리한 지성의 눈초리를 가지고있어야 한다. 참과 거짓, 정의와 불의, 선과 악, 밝은 것과 어두운것, 미래를 가지고 태어나는 새것과 버림을 받고 무너져가는 낡은것 등을 정확히 밝혀내고 정의롭고 아름다운것에 대한 사랑과 부정의와 추악에 대한 증오가 누구보다도 뚜렷하고 강렬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을 정의에로 이끄는 기수적 인간, 시인이 될수 있다.

시인 최승철을 가리켜 지성의 시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많은 시가 그에게 특유한 풍부한 감성의 세계를 려과하여 솟아오른 값진 지성적사색으로 펼쳐지기때문이다. 그는 밝고 예리한 지성적눈으로 생활의 본질을 투시하고 현실의 명암을 밝혀내면서 감성의 파도우에 지성의 불꽃을 피울줄 안다. 그의 지성적인 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입에 올리면서도 그 참뜻을 얼른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추상의 세계, 레하면 주체, 조국, 민족, 행복, 사랑과 같은 사회적범주나 미학적개념까지도 시대의 바람과 대지의 향기가 물씬 풍기게 형상하고 있다.

이 시인이 민족이라는 개념에서 얼마나 사색적이며 날카로운 시를 뽑아 냈는가를 보자.

한번 그속에 태어나면
죽어서도 떠날수 없는것
민족이여

유구한 력사의 추억 돌러메고
폭풍우의 난바다 헤쳐 가는
민족이여

듣는가
조상들 환란의 세월 헤쳐 오며
모질게 두드리는 북소리, 바라소리
피속에 불을 다는 저 웨침소리
-분별은 죽음이다

양키의 총칼에 맞아, 불에 활키워
원한에 눈뜨고 간 렬사들
지평선에, 산발에 구름같이 일어나
목갈리게 웨치는 저 소리
-분별은 죽음이다

북남 삼천리 온 겨레 들쭉아
칼이발의 분렬역귀 짓몰아 때리며
뢰성처럼 웨치는 저 소리
-고려런방 하늘높이 받들어 올러
민족이여, 하나이거라

버리면 내 뿌리 잘려 죽고
받들면 내 영생을 노래할
아, 민족이여
반만년을 자란 락락장송이여
자주의 냇으로 질푸르거라

《아, 민족이여》 [주체74(1985)년]

나는 시인이 냇의 웨침으로 노래한 이 시에서 오랜 세월 수난을 운명처럼 걸머지고 《폭풍우의 난바다》를 헤쳐온 우리 민족의 억울함과 분노를 보며 그 억울함과 분노에서 압축공기처럼 터져나오는 자주통일의 피타는 호소를 듣는다.

《한번 그속에 태어나면 죽어서도 떠날수 없는 것》이 민족이라는 시인의 말에는 체험된 력사가 남긴 불가항력의 엄한 진리가 번뜩이고있으며 민족문제앞에서는 그 누구도 방관자로 살수 없다는 철의 요구가 울리고있다.

우리는 현실의 시공간을 넘어 조상들이 《환란의 세월을 헤쳐오며 모질게 두드리는 북소리, 바라소리》를 들으며 《분렬은 죽음》이라고 피속에 불을 달며 웨치는 조상들의 처절한 목소리를 듣는다. 외세의 칼에 맞아 희생된 렬사들이 《지평선에, 산발에 구름같이 일어나 목갈리게 웨치는 저 소리》도 《분렬은 죽음》이라는 무서운 교훈과 엄한 경고이다.

시인의 호소는 천만번 정당하다. 사람의 한몸이 둘로 갈라져서 살수 없는것처럼 민족도 하나의 운명공동체이므로 둘로 갈라진다는것은 민족의 해체이고 생명선의 단절일수밖에 없다. 민족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하여 삶이 충만된 하나의 생명체로 만드는 길은 북과 남이 힘을 합쳐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세우는 그것이다. 그러므로 시인이 이처럼 강한 력학적구조우에 《버리면 내 뿌리 잘려 죽고/ 받들면 내 영생을 노래할/아, 민족이여/반만년을 자란 락락장송이여/자주의 냇으로 질푸르거라》고 한 절절한 축원은 민족성원모두의 피타는 갈망에서 터져나온 시대의 웨침으로 되는것이다.

시적지성이란 번다스러운 학술적지식의 라렬인것이 아니라 이 시에서처럼 깊이 체험되고 고도로 정제된 진리와 리성이 농도가 짙은 감정과 하나로 되어 시의 주제를 날카롭게 버리어내는 그러한 예술적능력이다.

민족의 갈망을 모아 통일을 부르며 괴뢰역도들의 정수리에 철추를 내리는 시인의 필봉은 그가 지성의 시인일뿐아니라 민족의 슬픔과 기쁨을 자기의것으로 만든 정열적인 감정의 시인이라는것을 보여준

다.

자신을 민족의 나팔수로, 전초병으로 자부하는 시인은 겨레들에게 재난만 들썩우는 침략자들에게 분노의 철추를 안긴다.

피맛들인 야수는 처단해야 한다
겨레들이여, 보복의 주먹을 높이 들라
인간과 민족의 존엄을 위해
하늘아래 땅이 있음을 알게 하라!

《네놈들의 이름은 범죄목록》 [주체56(1967)년]에서

《인간과 민족의 존엄을 위해 하늘아래 땅이 있음을 알게 하라!》는 시인의 이 말에는 주체위업의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신 조선사람들이 외래침략자들과 반통일세력을 발밑에 굽어보는 거인적인 기상이 뚜렷이 비껴있다. 함축된 몇마디 말속에 얼마나 큰 사상이 들어있는가!

최승철은 정전직후에 등장한 시인이며 소설가이다.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에서 조선문학을 전공하던 시절인 주체44(1955)년에 조국통일주체의 시《미소》를 발표하면서부터 창작을 시작한 그는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시대 작가이다. 그는 시대의 가수로서 수령과 당, 인민의 위훈을 빛나는 형상으로 창조하기 위하여 재능과 열정을 아낌없이 기울이고있다. 그의 첫 시집 《빛나는 모습들》에 담긴 70편의 시와 그후에 창작한 수백편의 서정시, 서사시, 장시들과 장중편소설들과 단편소설들에 이르는 모든 작품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함경남도 함주벌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그가 수많은 성과작들로 인민의 사랑을 받는 이름난 시인, 작가로 자라난것은 전적으로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덕분이다.

고마와라, 나를 키워준 자애로운 품이여
수령님의 사랑은 얼어붙은 대지를 흔들어깨운
장쾌한 봄우뢰, 눈부신 해빛
나는 태양을 노래하러 피어난 붉은 꽃
수령님의 사랑은 세상의 진리가 빛나는 책
나는 그것을 읽고 눈뜬 사람
수령님의 사랑은 붉은 기발 날리며 달리는 기관차
나는 생활과 행복을 싣고 뒤따르는 차량
수령님은 어버이!
나는 아들!

《길》 [주체50(1961년)에서

이는 이 시인의 심장과 광심의 토로이다.

최승철의 시적개성과 시의 품격을 론하는김에 그의 언어구사의 장점에 대해서도 몇마디 하고싶다. 훌륭한 작가, 시인은 누구나 민족어를 다듬고 그 표

현능력을 높이는 언어의 명수들이지만 그점에서도 이 시인은 주목할만하다.

그는 시창작에 고유한 함축, 비유, 상징의 수법을 자유자재로 능숙하게 활용하여 시적형상을 예리하게 부각시키는 솜씨를 가지고있다. 일부 경우 어떤 시들에는 수사학적소질을 지나치게 조밀하고 숨가쁘게 휘둘러서 표현이 야단스럽고 어려운것도 있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통속적이고 구수한 속담 같은 조상전래의 민족성이나 민요같은 소박성과 평이성이 부족한 점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약점도 세월과 함께 인생체험이 깊어지는데 따라 극복되었고 그의 장기인 철학적사고력과 강렬한 서정성, 언어구사의 섬세하고 감각적인 회화성으로 하여 경쾌한 속도감과 개성미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문학은 언어의 예술이다. 그중에서도 작은 공간속에 가치있는 사상과 미를 돌려야 하는 시는 더욱 그러하다,

시인이 대상의 본질을 명료하게 밝혀주고 거기에 음악성과 회화적형상까지 갖춘 예술적매력을 주는 적중한 시어를 찾아내자면 막돌속에서 금싸래기를 얻어내고 풀숲에서 값진 약초를 찾아내는것과 같은 치밀한 탐색과 함께 숙련된 솜씨가 있어야 한다. 그 점에서도 이 시인의 시들은 주목할만하다.

임의로 몇편의 시들을 살펴보자.

서간도의 자연은 무섭기도 하여라
산들은 아스라히 험준을 자랑하고
맹수의 이발같이 날카로운 피부리들
얼음같은 하늘을 옥물고 요동치며 울부짖는곳
산불에 놀라 뛰는 짐승의 무리런가
눈보라는 깎아지른 벼랑들을 허비며 두드리며
일천팔짜기를 휩쓸며 들뛰여라

이것은 장시 《고난의 행군》의 첫편이다. 7행으로 이루어진 짧은 단락이지만 여기에는 벌써 눈보라가 울부짖는 서간도의 스산한 대자연이 살아움직이는듯한 대화폭으로 육박해온다. 조선화가 장기로 자랑하는 굵직하고 신묘한 물골법이 감각적인 언어표현으로 생동하게 부각되고있다. 엄밀하게 선택된 언어들로 대상의 정수를 형상으로 끌어내면서 생동한 세부들이 전체의 운치와 예술적인 조화를 이루고있다.

그 어떤 가능성이 네게 깃들었으랴!
너는 궁전으로 하늘가에 일어설수도
우주를 꿰뚫고 날수도 있어라
너는 조국의 갑옷이 되어, 장검이 되어
사나운 원썬도 징벌할수 있어라

...

너는 우리 로동계급의 머리우에서

활활 타는 불날개를 퍼덕이면서
혁명의 대공을 날고 있구나!

시 《쇠물앞에서》의 이 구절에서는 용광로의 쇠물을 보는 시인의 왕성한 상상력과 비유의 비범성에 주목하게 된다. 펄펄 끓는 쇠물은 그대로 인간화된 열정과 위훈에 대한 갈망으로 안겨온다. 쇠물은 궁전으로, 우주를 나는 과학수단으로 혹은 원썬들을 징벌하는 조국의 갑옷과 장검으로 솟아나며 로동계급의 머리우에서 불날개를 퍼덕이면서 혁명의 대공을 나는데까지 승화된다.

이 시인의 시들에는 류사한 개념들사이를 오가는 단순하고 감칠맛있는 비유로 형상과 서정을 돋구는것들도 많지만 이 경우에는 환상에 힘입은 비약적인 비유가 랑만적풍경을 높여주고있다.

용해공은 말없네, 그는 쇠물빛으로
정열과 사랑을 세상에 말했거니
쳐너는 아네, 그와 한생 사노라면
저도 쇠물처럼 영원히 끓을것을
《쳐너는 용해공과 나란히 거니네》 중에서

장하여라, 청춘! 일손엔 불 일고
노래는 새무리처럼 들날리거니
들이여, 네우론 가을의 미소가
소리없는 번개처럼 비껴 가도다
《가을하는 처녀들》 중에서

이 구절들은 두 서정시의 세부들이지만 그대로 별개의 훌륭한 단시와 같은 묘미를 준다. 고도로 정제되고 함축된 시어들을 계단처럼 상승적으로 쌓고 그 정점에 주제를 기발처럼 날리며 깊은 여운을 남기는 이 시인의 솜씨는 세련된 독특한 시풍을 보여준다. 그의 언어들은 세부와 전체가 통일된 공간에서 교향악단의 각이한 악기들처럼 저마다 경쟁색깔있는 소리를 내면서 조화로운 안삼불을 이루고 있다.

수령과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비롯하여 당과 인민의 위용,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일상생활의 다양한 주제에 이르는 그의 작품들은 인민을 세상만물우에 세워 주는 주체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일관되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인을 훌륭한 다른 시인들과 함께 시대와 인민의 앞장에 선 기수시인이라고 부르게 된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는 력사발전의 새로운 시대이다. 우리 시대는 유구한 세월 력사밖에 버림받아온 인민대중이 압제와 굴욕의 쇠사슬을 끊고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힘과 지혜, 자기의 손으로 개척하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가 요구하는 참다운 시인은 자기의 심장을 시대와 일치시키고 인민의 지향과 희망, 요구와 소원을 실현하는 신성한 위업에 한생토록 심혈로 창조한 우수한 시가들을 바치는것을 유일한 사명과 영예로 아는 신념의 시인이다.

시인이 시대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하자면 무엇보다먼저 시대의 숨결, 인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고 몸부림쳐야 하며 그러자면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현실침투, 이는 작가일반에게 속하는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요구이지만 특히 시인에게 이 요구를 강조하는것은 부르조아형식주의의 시인들이 그리하듯이 시가 자기 도취, 자기 위안을 위한 오락물로 되지 말아야 한다는 그것때문이다. 그들의 시에는 언어곡예는 있으나 생동한 생활이 없는것이다. 한때 형식주의시풍조를 따르다가 신세를 망쳤다고 하면서 부패한 형식주의의 진흙탕속에서 발을 뽑고 현실참여의 시인으로, 비판적사실주의의 시인으로 개변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시인들을 우리는 알고있다. 참다운 시인은 교조주의를 따르지 않고 인정의 세계에 무르익은 생활이라는 시의 원천, 시의 대지에 서서 시대와 함께 숨쉬고 몸부림친다. 생활, 그것은 인민과 함께 영원한 삶의 흐름이며 보다 살기 좋고 보다 행복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다. 생활을 떠난곳에는 아름다움이 있을수 없으며 온갖 비현실적인 관념의 가공품은 가짜로 락인되어 떨어질수밖에 없다. 생활의 아름다움이란 단절되지 않는 인민의 창조적력사의 흐름 위에 넘치고 나뭇기는 인간승리의 노래인것이다.

시인 최승철이 수령흠모와 여러 단계의 혁명과 건설, 북과 남의 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에 이르는 광범한 주제에 걸쳐 사색깊은 지성과 랑만적서정이 결합된 우수한 시들을 많이 창작할수 있는것은 생활의 대지에 굳건히 서서 인민의 정신속에 깊이 침투하여 그 정수를 체득한데서 이루어진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인민은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겹쌓인 난관에 부닥쳐도 그것을 뚫고 승리적으로 전진하며 그속에서 솟아나는 시가들은 전투적기치를 더욱 높이 든다.

이 시인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신날에 올린 추도사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

망국노 민족을 한품에 안으시고
해방으로 헤쳐 오신 혈전만리여
눈보라길에 잡수신 풀뿌리를 떠올리며
흘러간 세월의 락엽에 묻힌
그이의 낡은 초신과 지하족을 더듬으며
통곡하노라

...

수령님의 위업은 인간애로 아름답고
인간애로 숭고하여 영원에 닿았거니
수천년 하느님을 믿던 인류는
처음으로 사람중의 위인을 숭배하리라
신의 자리에 인민을 세워 주신
불세출의 성인 **김일성**동지를!

인민이여, 울음을 삼키고 일어나라
강철의 령장 **김정일**동지를
진두에 모시여 신심 넘치도다
듣는가, 력사가 내딛는 발걸음소리
그이를 목숨으로 지키고 받들어
수령님의 위업을 기어이 완성하자!
통일조국의 높은 단상에 그이를 모시는 날
은 나라 수령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

시인이 강조한것처럼 《신》의 자리에 인민을 세워주신 불세출의 성인이신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강철의 령장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셨기에 길이 계승되며 영원히 빛날것이다.

누구의 심정인들 다름바 앓겠지만 참으로 나는 어버이수령님을 생각만 하여도 인자하신 그 미소와 음성, 그립고 사랑의 그 품이 그리워 뜨거운것을 삼키군한다. 하지만 어느 한순간도 맥을 놓는 때가 없다. 나는 주체원년에 출생하여 이제는 비록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어 거동도 불편한 형편이지만 그럴수록 마음의 탕개를 조이며 용기를 가다듬고 당에 보탬이 되는 글을 쓰려고 애를 쓴다. 그것은 우리에게 리념과 예지, 신념과 혁명의 거인이신 **김정일**동지께서 계시고 그이께서 우리모두를 사회주의위업과 조국통일의 승리자로 최후의 웃음을 웃을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때문이다.

나는 자신에게와 모든 동시대인들에게 최승철의 시 《백두산》의 결구를 웨치고싶다.

《빛나게 살자 백두산이 굽어본다!》

내 고향의 새 풍경

리영철

앞산의 진달래
뒤산의 밤나무숲은
옛적부터 있어온 내 고향 풍경
산골이라 산밖에는 볼것 없던 고장에
푸른 바다 설레이는 새 풍경이 펼쳐졌다오

돌바위를 들추며 내 어릴적 가재 잡던곳
어제는 발전소가 솟아나더니
높다란 제방따라 버들길이 천리요
고기떼 춤을 추는 양어장이 천리요

해빛이 부서지는 양어못은 못마다
은구슬 금구슬 풍어의 노래

이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 장군님
전선넘어 들을 지나 이 산촌에 오셨댔소

이 아니 흥이요 이 아니 멋이런가
푸른 물을 퍼올리면 고기도 한그물
에헤라 노저으면 웃음도 한배
복받은 생활이 이 못에 넘쳐나오

아, 태양의 미소속에
눈부시게 밝아진 산촌의 바다
고마워라 고마워
장군님 펼쳐주신 내 조국의 새 풍경이여!

해가 웃네 물이 웃네

박정애

실실이 휘늘어진 수양버들
훈풍에 설레이는 그아래로
살진 물고기들 떼지어 흐르니
복받은 양어장에 해가 웃네 물이 웃네

숫구치며 꼬리치는 물고기떼들
굳니는 물결에 해빛은 부서지고
떠가던 흰구름도 한점 꽃으로 없어 놓으니
양어장은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네

여길 한번 찾으면 차마 걸음 못떼고
다시 보고 또 보는 이 풍경
산촌에 비낀 가슴 젖는 그 사랑에
물이 설레여 해가 웃는가

하루해 기울도록 쪽빛 한번 못담던

십산의 실개천 전변의 호수우에
이리 덩굴 저리 덩굴 해따라 고기들 노닐어
나도 절로 웃음이 샘솟는 양어장

종구나 인민에게 풍성한 생활 안겨주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그 고마움 한껏 어린
산촌의 양어장은 그대로 행복의 바다
집집에 사랑이 흘러드는 은정의 바다

그래서 실버들 흐느적이는 양어장
한눈에 안아볼 때면
고기떼 설레여 물이 웃고
물이 웃어 해가 웃네
해가 웃어 내가 웃고 고향이 웃고
오 조국이 웃네

실화문학창작에서 작가의 깊은 탐구정신

명일식

현실체험의 배낭을 메고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며 잘 읽히우는 실화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것은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 나신 절실한 문제의 하나이다.

실화문학은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 영웅적위훈이 창조되고있는 우리의 현실속에서 살아움직이는 산 인간의 실재한 모습들을 있는 사실 그대로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는것으로 하여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시기에 더 이채를 띠고 많이 창작되고있는 실화문학에서 주목되고있는것은 인간학적요구를 훌륭하게 잘 구현하고 있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소설, 실화소설은 다 실재한 인물과 사실에 충실하면서도 철저히 인간학으로 되여야 한다.》

실화문학에서 인간학적요구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성적인 인간성격을 창조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인상깊은 생활세부들을 깊이 탐구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최근에 세편의 실화문학 《영생의 언덕으로》(단행본 《영웅의 노래》), 《푸른 섬광》(단행본 《빛나는 로정》), 《행복이 기다리는 곳으로》(단행본 《꽃피는 봄》)를 련이어 우수하게 창작한 소설가 김광남의 깊은 탐구정신에서 찾아 볼수 있다.

그러면 이 소설가가 우수한 실화문학을 세편이나 련속 써낸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평론가인 나는 그가 생활체험은 어떻게 하며 인간문제와 인상깊은 생활세부들은 어떻게 탐구하는가를 알고싶었다.

그 비결을 정확히 알기 위하여 나는 그와 함께 배낭을 메고 현지로 떠나갔다.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힘찬 투쟁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던 지난 정초의 이른아침이었다.

현지인 탄광으로 떠날 차비를 한 광남동무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나는 그의 수수한 옷차림새와 자전거우에 실은 류달리 큰 배낭을 보고 놀랐다. 마치도 친척집으로 찾아가는 그런 기분이였다.

《현지에 가는 작가의 배낭에 무엇을 넣었기에 그렇게 크오?》

나의 물음에 그는 얼굴에 느슨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 배낭안에는 정말 없는것이 없었다. 막장으로 들어갈수 있게 작업복과 신발도 두세켄레 있었고 원고지와 참고도서 그리고 탄부들이 부탁했다는 책들과 지어는 그들과 함께 마실것까지 있다보니 배낭이 그렇게 클수밖에 없었다.

현지에 도착한 날 저녁이었다. 광남동무는 배낭을 풀더니 작업복을 주섬주섬 꺼내입는것이였다.

《이 밤에 어딜 갈려고?》

《탄부들에게 인사부터 해야지요.》

《?!...》

나는 백여리가 넘는 길을 자전거를 타고오느라 다리가 뻣뻣하고 맥이 없었지만 하는수 없이 그를 따라섰다.

우리는 배낭을 다시 메고서 5경 《2중3대혁명붉은기》 5중대의 막장으로 찾아갔다.

《아, 작가선생이 또 오셨군요.》

중대세포비서인 공훈탄부 김유봉동무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김광남동무는 친혈육을 만난것처럼 기쁨에 넘친 얼굴로 탄가루가 꺼멓게 배인 그의 손을 허물없이 잡고 인사를 나누었다. 탄부들도 오래동안 기다리던 친혈육이나 온것처럼 좋아했다. 막장안은 한집안처럼 기쁨으로 설레였다. 우리도 그들의 일손을 도와 나섰다. 탄을 더 힘있게 캐는 사람, 아릅드리동발을 메고 달리는 사람, 광차에 석탄을 불이 나게 퍼담는 사람 말그대로 막장안은 총포성이 없는 전투장이였다.

어느덧 식사시간이 되여 10여명이 되는 탄부들이 둥그렇게 모여앉았다.

이때 광남동무는 준비해가지고 온것을 내놓았다.

《자, 땀을 많이 흘렸는데 한모금 드십시오.》

《원 작가선생두, 우리한테 자주 오시는것만두 고 마운데 매번 이런것까지 다...》

탄부들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즐겁게 웃으며 저마다 밥알이 붙은 밥곽뚜껑을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탄을 더 많이 캐겠습니다.》

탄부들이 한결같이 하는 그 심장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어쩐지 가슴이 뭉클했다.

얼마나 소박하고 진실한 사람들인가!

나는 그제야 려로의 피로도 풀사이 없이 탄부들을 찾아 막장으로 달려오고 일요일이나 명절날에조차 탄부들을 먼저 찾는 광남동무의 그 마음을 알게 되였다. 친혈육의 정이 뜨겁게 느껴졌다.

작가는 이미 탄부들의 마음속깊이에 들어가있었

다. 나는 광남동무가 세련의 실화문학을 편이어 성공할수 있는 기본비결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다.

나의 생각을 다시 증명이라도 해주듯이 광남동무는 지금 새로 쓰고있는 실화문학 《젊은 탄광지배인》의 주인공을 나에게 소개해주었다.

그는 이 탄광지배인 문명학이었다.

30대부터 특급기업소인 이 탄광의 기사장을 거쳐 지배인까지 된 참으로 젊고 패기에 넘친 일꾼이었다. 첫눈에도 키가 크고 듬직해보이었다.

《작가선생이야 우리와 한집식구인데 저녁에 같이 집에 오십시오.》

하고 그는 집으로 우리를 초청까지 했다.

우리는 흐뭇한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왔다.

탄광의 밤은 참으로 류달랐다.

어둠속에서 씩씩이 번쩍이는 전차의 푸른 섬광과 함께 석탄을 싣고 나오는 광차소리, 교대로 오가는 사람들의 발자국소리, 웃고떠드는 소리로 탄전의 밤은 정녕 잠들줄을 몰랐다.

광남동무는 나에게 새로 쓰고있는 실화문학의 줄거리를 간단히 들려주었다.

석탄생산을 위한 굴진을 앞세우는데서 기본중심고리의 하나인 정알(뽀베지트)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는데 성공한 이야기였다. 나도 놀랐다. 석탄이나 캐는 탄부들의 힘으로 현대무기화학공업의 최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정알을 만들어냈다니 어찌 감탄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실화문학의 줄거리는 고심어리게 정알을 만들어냈다는 과정의 사실들뿐이었다. 그래서인지 작가도 나도 큰 감동이 없었다.

그후 작가는 창작적고충으로 펜을 들지 못하고 몇밤을 새우며 모태기고 있었다.

이 고충을 풀어준것은 바로 주인공 문명학지배인의 안해 민향실이었다.

민향실이라도 작가를 친정아버지처럼 허물없이 믿고 따르며 마음속을 터놓았다. 그는 결혼식날부터 자기보다 탄을 더 사랑하는 남편과 산다고 웃으며 말하면서 정알때문에 고심한 젊은 탄광지배인의 성격을 한마디로 다 보여줄수 있는 술과 담배에 대한 사연을 들려주었다.

문명학지배인은 오랜 탄부생활과 함께 즐거운 술담배였지만 지도일군다운 강의한 의지와 탄부의 깨끗한 량심을 지켜내기 위하여 정알을 다 만들어낼 때까지 단호히 끊어버리었던것이다.

순간 김광남동무는 《이것이다!》하고 무릎을 탁 쳤다.

친혈육처럼 가까워진 민향실의 소박한 이야기에서 찾은 이 하나의 생활세부에서 개성적인 성격을 훌륭히 보여줄수 있는 령감이 번개처럼 떠올랐기때문이었다. 막혔던 물목이 터지듯 새로운 실화문학 《젊은 탄광지배인》의 초고가 단숨에 써여졌다. 역시 성과가 기대되는 읽히우는 실화문학의 초고였다.

작가는 배낭을 메고 탄부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친혈육으로 가까워지고 고락을 같이하며 취재가 아니라 심장을 맞대고 실속있게 체험을 깊이 하였기때문에 인상깊은 생활세부들을 많이 탐구할수 있었고 가장 어려운 《고난의 행군》속에서 더 강해지고 더 깨끗하고 아름다워진 새로운 인간의 개성적인 성격을 훌륭하게 창조한 우수한 실화문학들을 쓸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서 실속있게 생활을 체험하여 읽히우는 실화문학들을 편이어 창작한 김광남의 깊은 탐구정신을 놓고서 작품의 종자와 소재도 생활세부도 다 현실속에 있다고 하시면서 현실이야말로 창작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며 창작적재능을 꽃피울수 있는 터전이라고 명철하게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문예방침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에 대하여 더 깊이 느끼게 되는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힘을 얻고 이 작가가 쓴 세련의 실화문학들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인상깊은 생활세부들은 어떻게 탐구되었는가

인간학적요구를 잘 구현한 김광남의 세련의 실화문학에서 특징적인것은 인상깊은 생활세부들을 깊이 탐구하여 개성적인 인간성격을 훌륭하게 창조한것이다.

작가가 현실속에 들어갔다고 하여 인상깊은 생활세부들이 저절로 탐구되는것은 아니다. 인상깊은 생활세부의 탐구는 우선 작가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주인공들과 친혈육으로 친숙하여지고 애착을 가진데 기초하여 그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에서 찾아야 한다. 작가가 주인공의 정신세계와 생활을 어떤 안목으로 보며 어떻게 사색하는가에 의해 비록 스쳐버릴수 있는 작은 생활현상도 의의깊고 감동깊은 생활세부로 될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작가는 주인공들의 사상정신세계부터 높은 사상미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이 작가의 생활세부의 탐구경험들이 바로 그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작가가 탄부들과 한식술이 되어 살면서 심장으로 크게 느낀것은 바로 우리 탄부들이야말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그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안고사는 높은 정신세계를 가진 백옥같이 깨끗한 량심의 인간들이라는것이다.

탄부들은 일터자체가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지하막장이지만 그들은 탄을 한삽 캐어도 한걸음을 걸어도 오직 위대한 장군님만을 위하여 살며 석탄산을 더 높이 쌓아가고있다.

하기에 작가는 탄부들을 것처럼 사랑하며 탄광을 늘 가고싶은곳으로 생각하면서 탄광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것이였다.

그러면 탄부들의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어떤 생활세부에 집약되어 있는가.

작가는 그것을 실화문학 《푸른 섬광》(공화국 창간 50돐기념축전당선작품)에서 전차운전실벽에 붙여놓은 한장의 천연색바다풍경화세부에서 찾았다.

이 생활세부는 주인공 현려진이 석탄생산에서 걸린 기본문제를 풀기 위하여 전차를 타고 갱막장으로 들어갈 때 안전등불빛으로 비쳐본것이다.

...현려진은 안전등으로 운전실을 비쳐보았다. 한쪽 벽에는 《전차운전규정》이 붙어있고 다른쪽벽에는 어느 달력에서 오려붙인듯한 천연색 바다풍경이 둥그런 불빛에 드러나보였다. 흰 물결을 가르며 달리는 려객선우에서 화려한 옷차림을 한 처녀총각들이 꽃수건을 날리며 즐겁게 웃고있다...

보는것처럼 이 세부는 막장속에서 일하는 탄부처녀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생활모습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주인공은 이 세부를 통하여 수천길 어두운 지하막장에서 일하는 탄부처녀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바다우로 꽃수건을 날리며 즐겁게 웃는 그런 아름다운 희망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더 깊이 느끼었던것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아름다운 행복을 안고사는 이런 웃음은 그 누구에게나 다 있는것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만을 믿고 승리의 신심에 넘쳐있는 깨끗한 량심을 안고사는 사람들에게서만 볼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이 풍경화세부의 다음의 장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

...그들은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며 강낭뽕을 달게 먹었다.

현려진은 이 기특하고 가룩한 처녀에게 무엇인가 도와주고싶은 충동을 누를수 없었다.

《금순이, 무슨 소원이나 부탁할것이 없나?》

《소원이요! 있긴 한데...》

《무엇인지 어서 말해보라구!》

금순은 벽에 붙여놓은 바다풍경을 황홀하게 바라보았다.

《아바이, 난 말이에요. 저 사진에 있는것처럼 화려한 옷차림으로 배를 타고서 경치좋은 우리나라 명승지들을 죄다 돌아보고싶어요. 칠보산이랑, 구월산이랑, 금강산... 전 어버이장군님께서 그 어려운속에서도 칠보산이며 구월산명승지를 찾으시여 우리 인민들의 문화휴식터로 잘 꾸릴데 대하여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텔레비죤화면으로 보면서 얼마나 감동되고 큰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고싶었었어요. 아바이, 내 소원이 너무 크지요?》

...

현려진은 가슴이 뭉클했다.

《고난의 행군》의 어려운 나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털끝만치의 비판을 모르고 밝은 미래에 대한 락관과 신심에 넘쳐있는 금순이의 소박한 꿈은

얼마나 숭고하고 깨끗한것인가!...

보는것처럼 이 생활세부는 깊은 감동과 정서적여운을 안겨주고있다.

이 인상깊은 생활세부를 작가가 어떻게 탐구했는가! 작가는 자기가 막장속에 들어가 취재과정에 본 희미한 안전등불빛에 비친인 그림은 사실 사람들의 기억에도 별로 남지 않는 손바닥만한 화보사진이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림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캄캄한 막장속에서 검은 석탄으로 얼룩진 작업복에 강낭뽕으로 끼니를 에우면서도 마음속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꽃피는 미래에 대한 락관과 희망을 간직하고 살고 있는 탄부처녀들의 발랄하고 깨끗한 마음을 더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실화문학에 형상된것처럼 망망한 바다우로 려객선을 타고달리는 청춘남녀들의 아름다운 생활로 펼쳐보여줄수 있었다.》고 하였다.

작가는 이처럼 주인공 현려진지배인이 금순이와 함께 전차를 탄 사실과 한장의 그림을 보고서 거기에 미래에 대한 희망과 량만에 차넘친 금순이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와 그것을 새롭게 느끼는 주인공의 성격의 전모를 다 보여줄수 있는 인상깊은 생활세부를 발견하였던것이다.

이와 같이 이 실화문학에서 인상깊은 생활세부의 탐구는 주인공의 생활에 대한 작가의 뜨거운 사랑과 함께 높은 미학적안목으로 그들의 정신세계를 투시해보는 깊은 탐구정신이 없이는 도저히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실화문학창작에서 이 작가의 생활세부의 탐구는 또한 주인공들이 생활속에서 특별히 귀중히 여기며 사용하는 애용품들에서도 찾고있는것이다.

생활세부의 탐구는 말그대로 생활속에서 찾아야 하는것이며 생활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주인공의 성격적특징은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수 있지만 특별히 류다르게 귀중히 여기는 애용품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는 취재과정에 절대로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하며 더 관심을 가지고서 깊이 파고들어가야 한다.

이 작가의 다른 실화문학인 《행복이 기다리는곳으로》에서 인상깊은 탁상시계의 생활세부와 손달구지의 달랑소리 생활세부탐구가 그것을 잘 말하여주고 있다.

독자들의 기억속에 깊은 인상을 준 실화문학 《행복이 기다리는곳으로》는 주체83년에 진행된 전국 공산주의미풍대회에 참가하여 토론한 순천시 상하수도사업소 뽕프운전공인 강정선동무에 대한 이야기이다.

강정선은 20여년을 하루와 같이 산분을 모아 15톤이나 협동농장에 보내주었고 20여톤의 량곡을 절약하여 나라에 바친 숨은 공로자이다.

강정선의 이 소행자료는 크고 기특한것이였지만

산분을 모으는 이야기와 랑곡을 나라에 바친 그 사실만을 가지고서는 사실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잘 읽히우는 실화문학을 창작할수 없다.

실화문학에서는 15톤의 산분과 20톤의 랑곡이라는 놀라운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주인공의 높은 정신세계와 그 특징적인 성격을 보여줄수 있는 인상깊은 생활세부를 탐구하여 보여주는것이 더 중요하다. 때문에 작가는 형상의 각광을 먼저 강정선이가 과연 어떤 인생관을 가진 인간인가 하는 것을 밝히는데 돌리고 그의 생활을 깊이 파고들었다.

실화문학에서 주인공 강정선의 높은 정신세계와 성격을 한마디로 보여줄수 있는 인상깊은 생활세부가 바로 탁상시계의 세부와 손달구지의 달랑소리세부이다.

탁상시계의 세부는 꼭절많은 강정선의 한생과 함께 하많은 깊은 사연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

이 실화문학의 시작도 깊이 잠들었던 강정선이를 깨워주는 탁상시계의 자명종소리로부터 시작되고 꼭절많은 그의 인생의 길도 이 탁상시계로부터 시작되고 계속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고 말할수있다.

주인공 강정선에게서 이 탁상시계는 때로는 다정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되어 들려 오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되어 자기를 떠밀어 주고 깨우쳐준다. 오늘도 강정선은 이 탁상시계의 자명종소리를 들으며 충성의 한길을 변함없이 가고 있는것이다.

작가는 이처럼 인상깊은 탁상시계의 세부를 어떻게 탐구하였는가!

작가는 원형인물인 강정선을 처음 만나서 이야기 하던 날부터 그가 저녁마다 특별히 애용하며 관심하는 자그마한 탁상시계의 자명종태엽을 자주 감아주고는 머리맡에 놓는것을 여러번이나 목격하였다고 한다.

《이 탁상시계의 자명종소리가 아니면 난 아침일찍 일어나지 못합니다.》

주인공의 스쳐버릴수도 있는 이 소박한 한마디 말속에서 작가는 큰 충동을 받아안고서 애용품인 탁상시계에 대하여 더 깊이 파고들었던것이다.

탁상시계는 강정선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사준것이다. 시계처럼 정확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면 꼭 성공한다는 어머니의 기원이 담겨져있었다. 그러나 일본땅에서는 민족적인 멸시와 차별로 그것이 실현될수 없었다. 애인인 전병하가 먼저 귀국하자 정선은 났을 잃고 주저앉았다. 그때 부주의로 시계마저 깨어졌다. 했지만 정선은 그 시계부속을 다 모아서 귀중히 간직했었다.

조국의 품에 안겨서 전병하와 결혼하고 새집들이 한 다음날 아침에 남편은 첫 수입으로 받은 돈을 주고 새 시계(탁상시계)를 사다주었다. 이제부터는 조국에서 새로운 시간으로 보람있게 살자고 뜨겁게 고무하였다. 그때 강정선은 진정 행복하였다.

탁상시계세부는 실화문학의 대목대목에서 여러 번 나오지만 그때마다 새라새로운 뜻과 의미를 깨우쳐주며 한생을 시계의 바늘처럼 변함없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고있는 주인공 강정선의 생활과 그의 성격을 정서적인 화폭으로 부각시키면서 매우 강한 여운을 주고 있다.

강정선은 남편이 돌아간 이후에도 이 탁상시계를 남편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초침소리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부지런히 일하면서 살기 위하여 애썼다. 정선은 한생을 자명종소리에 맞추어 일어나 산분을 주어모으며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충성의 길, 행복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고간다.

이처럼 작가는 탁상시계의 세부를 강정선의 생활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그의 성격을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게 잘 형상하고있는것이다.

이 실화문학에서 인상깊은 생활세부인 손달구지의 달랑소리세부도 바로 이런 방법으로 탐구되었다.

아침저녁으로 강정선의 발걸음소리와 함께 걸음 걸음 조용히 들려오는 손달구지의 달랑소리 역시 작가에게는 충성으로 뿜어지는 그의 심장의 맥박소리처럼 들리었다. 산분을 싣고가는 손달구지의 달랑소리는 정선의 뿜어지는 숨결처럼 휴식일이나 명절날에도 쉽없이 들리어오고있으며 1년에 한번씩 기다려오는 남편의 생신날에도 들려왔다.

작가는 그 소리를 순수 자연적인 소리로서가 아니라 산분을 한가득 싣고가는 이 손달구지와 함께 한생을 충성의 길로 변함없이 가고있는 주인공 강정선의 아름다운 마음속에서 울려오는 희망의 종소리로 감수하고 독자들에게 은방울소리와 같은 달랑소리로 정다웁게 들리어 오게 하였다.

이것은 오직 작가의 깊은 탐구정신에서만 나올수 있는 귀중한 발견으로 된다.

그 생동한 모습을 실화문학의 다음의 장면에서 볼수 있다.

...정다운 자명종소리와 함께 손달구지소리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변함없이 울릴것이다.

강정선은 머리를 쳐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변함없이 기다리시는 집!

참된 삶의 진리를 깨우쳐주던 다정한 남편의 고결한 숨결이 여전히 맥박치며 끊임없이 충성의 길로 떠밀어주는곳!

아! 문밖으로 딸과 사위가 나온다. 자그마한 손자녀석이 교사리같은 손을 흔들며 강충강충 뛰어온다.

《할머니, 할아버지 생일인데 어데 갔댔나.》

강정선은 비쳐오는 광휘로운 해빛에 시그러워 눈을 반쯤 감은채 허둥지둥 달려 갔다.

달랑달랑- 손달구지를 끌고서.

행복이 기다리는곳, 기쁨이 마주 오는곳으로!...

얼마나 생동하고 감동깊은 생활의 화폭인가!

우에서 보는것처럼 이 실화문학에서 탁상시계의 세부와 손달구지의 달랑소리세부는 작가가 주인공의 생활속에서 깊이 탐구하여 찾아쥐고 그것을 그의 성격에 꼭 맞게 생동하게 보여주고있기때문에 그토록 깊은 인상을 안겨주며 잘 읽히우고있는것이다.

실화문학창작에서 이 작가의 깊이있는 세부탐구는 다음으로 주인공들의 생활의 류다른 취미와 기호들에도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이 작가의 다른 실화문학 《영생의 언덕으로》에서 뿔에 대한 세부와 사파에 대한 생활세부들에서 볼수 있다.

실화문학 《영생의 언덕으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력사적인 대전해방전투의 기본돌파구를 열어제긴 용감한 땅크병들의 전투위훈을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 오종익은 418호땅크와 함께 피흘리며 싸우던 전우들을 다 잃고 오늘 홀로 남은 전쟁로병이다.

실화문학은 418호땅크의 위훈을 보여준 한쪽의 유화앞에서 포장이었던 오종익에게 이 땅크의 승조원들이 다 희생된줄로만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하는 기자의 의미심장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다.

주인공 오종익은 이 물음에 대답하자면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여야 했다.

작가는 실화문학에서 오종익의 그 하많은 사연들을 그대로는 다 전할수 없는것이다. 하나의 집약된 이야기로 주인공의 성격을 보여줄수 있는 인상깊은 생활세부를 탐구하여야 했다.

그리하여 작가가 깊이 탐구한 생활세부가 바로 뿔에 대한 세부와 사파에 대한 세부이다.

뿔에 대한 생활세부는 주인공인 오종익과 같은 나이이지만 남다른 인간관계를 가지고있던 박종일 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그러면 이 실화문학에서 이처럼 인상깊은 이 뿔에 대한 세부가 어떻게 탐구되고 형상되었는가.

작가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있다.

《처음 제가 취제한것은 말그대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장황한 전투이야기와 사건들뿐이었습니다. 그때문에 저는 선뜻 붓을 들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인간문제를 심어주고 땅크병들의 성격과 생활은 또 어떻게 보여주겠는가 하는것을 놓고서 모대기며 탐구와 탐구를 거듭하였지만 좀처럼 방도가 서지 않았습니다.

저의 이 고충은 당시의 원형인물들과 주인공들을 다시 만나서 땅크병들의 생활취미와 기호들에 대

하여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땅크병들속에서는 노래를 잘 불렀다는 사람, 조기천의 서사시<백두산>을 통달하였다는 등 기이한 생활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가운데서도 축구를 남달리 잘한다고 늘 자랑하며 뿔을 안고다니였지만 그 뿔을 땅크에 놓은채 뿔차는 솜씨를 한번도 보여주지 못하고 대전해방전투에서 용감하게 전사하였다는 부포수 박종일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의 머리속에는 또다시 번개와 같은 령감이 떠올랐습니다.

달리는 땅크, 포탑안의 안전고리에 늘 걸려있는 뿔...

대전을 해방하고 축구경기때 자기의 축구솜씨를 보여주겠다고 자랑하던 박종일, 그는 비록 전사하였지만 생전에 것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다니던 뿔은 랑만적인 박종일의 불굴의 녀인양 땅크포탑안에 걸려서 어려운 전투마다에서 땅크병들을 힘있게 고무하여주는 그 모습으로 눈앞에 선히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즉시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이 뿔세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더라면 저는 전혀 붓을 들지 못하였을것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작가의 이 말은 실화문학에서 인상깊은 생활세부가 주인공들의 류다른 생활취미와 기호속에도 깊이 담겨져있다는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작가는 실화문학에서 이처럼 사연많은 뿔세부를 오종익의 최후전투장면에서 사파세부와 결부하여 생동하게 잘 형상하고 있다.

소대장이 된 오종익은 사랑하는 처녀에게 주려고 온 사파나무발을 다 해매면서 겨우 판 두알의 사파를 호주머니에 소중히 보관해넣은채 전투에 나간다.

오종익에게는 김순우라는 방직공장처녀가 있었다. 오종익은 전선에서 의용군으로 입대하여 간호원이 된 김순우를 샘물가에서 우연히 만났던것이다. 기쁜 마음은 끝없었지만 급한 환자를 후송하는 김순우도 또 긴급전투임무를 수행하는 오종익도 말 한마디 바로 나누지 못하고 아쉽게 헤어졌다. 그들은 헤어지며 달뜨는 저녁에 샘물터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다. 오종익은 그 약속된 시간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호주머니에 넣은 사파만 매만지고있었다. 이때 긴급전투명령이 하달된다. 땅크중대장은 누구를 땅크선전대로 보낼것인가를 가늠해보며 땅크병들을 바라보았다. 중대장의 눈길이 오종익에게 와닿었다. 그 순간 오종익은 간절한 눈빛으로 마음속 말을 했다. 《아니요... 난 오늘저녁 처녀와 약속했소. 만나자구. 아! 이번만은... 오늘저녁만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주저했다.

오종익은 눈앞에 사랑하는 순우를 보며 호주머니에 있는 사과를 움켜쥐었다.

그때 중대장이 《오종익동무,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동무가 가야 하오.》 하고 말하는것 같았다. 사과를 쥔 오종익의 손은 떨리었다. 중대장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는듯싶었다.

오종익은 사과를 더 짊 움켜쥐며 순우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순우동무! 약속을 어겨 미안하오... 이제 승리의 날 우리 만나 못다한 이야기를 끝없이 나누어보지요. 그때 <전승기념> 손수건도 선물 받고...》 오종익은 정신을 차리고 큰소리로 말했다. 《중대장동무! 제가 가겠습니다.》

오종익은 자진하여 선전대로 떠났다. 전투는 처음부터 치열하였다. 첫 땅크는 마지막포알로 통째로 까부셨다. 그뒤로 두번째 땅크가 또 나타났다.

오종익은 그 땅크를 맞받아나갔다. 적땅크와의 거리는 멀지 않았다. 그 순간 오종익은 호주머니안에 있는 애인에게 주지 못한채 가지고온 사과를 다시 움켜쥔다. 순우의 얼굴이 크게 떠올랐다. 오종익은 힘을 모아 사과를 짊 잡았다. 바로 이때 오종익은 이마를 툇 치는것을 느꼈다. 뿔이었다. 박종일의 숨결이 금시 들려오는듯싶었다. 오종익은 눈을 크게 떴다. 박종일의 얼굴이 더 크게 떠올랐다. 순간 오종익은 뿔을 부둥켜안았다.

《용서 하오, 종일이. 순간이나마 주저했던 나를...》

오종익은 박종일의 뿔과 호주머니의 사과를 동시에 짊 움켜잡아쥐고서 마주오는 적땅크를 향해 육박했다. 그의 눈앞에는 승리의 그날,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뿔을 차며 즐기는 그 광경이 크게 떠올랐던것이다.

이 얼마나 주인공들의 성격을 생동하게 잘 보여준 인상깊은 생활세부들인가!

이처럼 이 실화문학에서 뿔세부와 사과세부는 원형인물들의 생활취미와 기호들에서 탐구된것으로서 주인공의 깊은 심리세계까지 생동하게 잘 보여주고 있으며 실화문학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작가의 세편의 실화문학들이 일정한 성과를 거둘수 있는것은 작가가 주인공들의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 인상깊은 생활세부들을 잘 탐구하여 형상한데 근본비결이 있다는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현실속의 주인공들을 만나

현체현에서 나는 실화문학의 주인공들인 현려진지배인과 직동청년탄광 운반쟁 전차운전공 김금순 그리고 《행복이 기다리는곳으로》의 주인공

인 순천상하수도 뿔프운전공인 강정선이기도 만나보았다.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나는 실화문학을 창작하기 위해 기울인 작가의 깊은 탐구정신에 대하여 더 잘 알수 있었다.

내가 실화문학 《푸른 섬팡》이 공화국창건 50돛기념축전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자 주인공인 현려진지배인은 너무도 기쁜김에 작가의 손을 덥석 쥐고서 《정말 수고했소. 축하하오.》 하고 몇번이고 말하는것이였다.

처음에 나는 그 말이 그저 평범한 인사말인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주인공들과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그것이 그저 해보는 평범한 인사말이 아니라 심장으로 뜨겁게 말하는 진심이라는것을 깨달았으며 그들이 말하고있는 작가의 수고란 무엇을 두고서 하는 말인가 하는것도 깊이 느낄수 있었다. 주인공 현려진은 이렇게 말해 주었다.

《작가선생은 우리 탄광에 온 날부터 늘 갱속에 같이 들어가서 탄부들과 함께 한집안식구처럼 친숙하게 지내면서 모든것을 다 주의깊게 살피였답니다. 전차실벽에 붙여놓은 바다풍경화그림도 나는 갱차를 여러번이나 타고다니면서 몇번이나 보았지만 그속에 그렇게도 깊은 뜻이 담겨져있는줄은 책에 나온 실화문학을 보고서 알았지 다는 몰랐답니다. 작가선생이 낮에는 우리와 함께 갱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자정이 넘도록 글을 쓰곤했습니다. 온밤 작가선생의 방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답니다. 나는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쓴 실화문학을 읽고서 정말 큰힘을 얻었으며 앞으로 일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받아안았습니다.》

현려진지배인은 그후 정말 탄부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들과 교락을 같이 나누며 석탄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 나갔다.

나는 주인공 현려진의 이야기에서 작가가 탄부들의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파고들어 현실체험을 실속있게 잘하였는가 하는것과 인상깊은 생활세부의 탐구를 위해 얼마나 피타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었다.

전차운전공인 김금순이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사실 저는 전차실안을 장식하느라고 제 마음에 꼭 드는 화보그림을 붙여놓았는데 그것이 작가선생이 실화문학에 쓴것처럼 우리 탄부들의 소원을 그처럼 진실하고 감동깊게 보여주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작가선생님의 수고가 정말 컸습니다.》

평범한 전차운전공처녀의 소박한 말속에도 작가의 깊은 탐구정신이 뜨겁게 안겨 오고 있었다.

나는 여기에서 실화문학 《푸른 섬팡》의 주인공들이 깊은 감동을 안고서 하나와 같이 말하고있는 작가의 그 수고란 바로 자기들이 살고있는 평범한 생활속에서 미처 다 알지 못하였던 아름다운 생활의 진미를 생동하고 진실하게 펼쳐보여준 작가의

노력과 깊은 탐구정신에 대한 높은 평가라고 생각한다.

실화문학 《행복이 기다리는곳으로》의 주인공 강정선이기도 작가의 깊은 탐구정신에 대하여 이렇게 솔직히 말해 주었다.

《평론가선생, 몇해전이었지요. 젊은 작가선생이 문득 찾아와서 저에 대한 작품을 쓰겠다고 이것저것 시시콜콜히 물을 때 전 속으로 별로 큰 일을 하지 못한 저에 대해 무슨 작품을 쓰겠는가고 생각하며 믿지 않았지요. 전 소설읽기를 즐긴답니다. 소설의 주인공들이란 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모두 우러러보는 인간들로서 그들의 생활도 사랑도 리상도 다 흥미있고 특별한것들이라고 생각했지요. 그에 비하면 제가 한 일들이란 제 자식들마저 다 꺼려하던 산분을 좇는 일이었으니깐요. 그런데 후에 출판되어나온 저에 대한 실화문학을 읽고서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저에 대한 작품이라는데도 감동이 컸지만 보다는 저도 지금까지 미처 느끼지 못하고 지나쳐보낸 평범한 사실들이 그처럼 황홀하고 아름다웠기때문입니다. 나는 너무도 기쁘고 즐거워서 온밤을 잠들지 못하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강정선은 이렇게 허물없이 말하면서 자기의 깊은 속마음까지도 속속들이 다 헤쳐보여준 이 실화문학작품을 늘 배개밑에 놓고 자주 들여다보면서 더 큰 힘을 얻는다고 말하는것이였다. 강정선은 오늘도 도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다시 선거되어 변함없이 일하고 있다.

공훈탄부인 김유봉동무도 나의 손을 뜨겁게 잡고 이렇게 자신의 진심을 터놓았다.

《작가선생이 처음 우리 강에 왔을 때는 먼데서 온 손님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하루만 없어도 막 기다려집니다. 우리 탄부들에 대한 글을 쓴다는

데도 있지만 한식구처럼 함께 일하며 생활하는 과정에 우리 탄부들에게 꼭 있어야 할 생활의 벗으로 되였습니다.》

작가가 얼마나 탄부들의 생활을 깊이 파고들어 친숙해졌으면 주인공들모두가 다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겠는가!

탄부들과 한식술이 되어 그들의 뜨거운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함께 살고 있는 작가는 얼마나 큰 생활의 부자가 되었는가!

현실속의 주인공들의 진정이 담긴 이 이야기속에서 나는 작가가 왜 창작실에서 그처럼 탄광으로 가고 싶어하고 늘 탄부들에 대하여 생각하고있는가하는 그 까닭도 알게 되고 더 인상깊은 생활세부들을 탐구하여 더 훌륭한 실화문학들을 쓰리라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석탄은 비록 검은것이지만 탄을 캐는 탄부주인공들의 마음은 백옥처럼 깨끗하고 진실한것이였다.

어려운 《고난의 행군》속에서 이들의 마음은 더 강해지고 아름다와졌다.

내가 이 평론을 쓰게 된 기본충동도 작가가 탄부들의 이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들을 생동하게 보여준 그 피타는 노력과 깊은 탐구정신에 깊이 감동되었기때문이다.

이 작가의 세편의 실화문학들에서 우리는 인상깊은 생활세부와 함께 소설적인 치밀한 구성과 흥미진진하고 섬세한 감정조직, 분석적인 생동한 묘사들도 찾아 볼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이처럼 진실한 우리 시대의 주인공들이 살고있는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깊은 탐구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진실로 도움을 주고 기쁨을 주며 잘 읽히우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실화문학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가사

나는 장군님 총대

김충기

나는야 꿈많은 청춘시절에
총대와 끊지 못할 인연 맺었네
복무의 나날에 떨어져 못살
총대는 나 나는 장군님 총대

천리행군 먼길도 잠복의 밤도
총대와 함께 있어 두렵 몰랐네
생사운명 같이하는 귀중한 동지
총대는 나 나는 장군님 총대

정의의 이 총대 높이 들고서
내 나라의 강성을 떨쳐 가리라
병사와 조국을 하나로 이어준
총대는 나 나는 장군님 총대

너 없으면 나도 없고 조국도 없어
총대는 나 나는 장군님 총대

평범한 생활속에서 시대의 주인공을 보여준 참신한 형상세계

-텔레비죤실화극 《꺼지지 않는 불》을 보고-

차 수

두리반에 오בות하게 모여앉아 하는 가정의 식사도 나라의 국력을 시위하는 우주정복의 길도 불에 의 해 이루어진다. 하여 사람들은 불에 대한 고마움을 항상 느끼고 산다.

그러나 한생을 불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잊고사는 때가 많다.

텔레비죤실화극 《꺼지지 않는 불》(1, 2부)(박 성철 작)은 불을 위해 묵묵히, 그러나 뜨겁게 생을 빛내이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를 형상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작품에서 진실성을 살리자면 형상에 생활의 본질을 반영하여야 한다.》

현실주제문학작품창작에서 진실성을 보장하자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체험하고 목격하는 생활속에서 새롭고 의의있는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전형적인 인간성격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 전형적인 인간 성격창조에서 중요한것은 생활의 합법직성이 비친 생활을 통해 성격발전과정을 보여주는것이다.

텔레비죤실화극 《꺼지지 않는 불》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는것은 석유공급이 잘 안된다며 신소를 하던 보통너인이 석유인수원이 되어 우리 당이 내세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신념으로 새기며 인민의 생명채산을 지켜 한몫 서슴없이 내대기까지의 성장과정을 꾸밈도 분석도 없이 소박하면서도 깊이있게 보여준데 있다. 즉 우리가 생활에서 늘쌍 보게 되고 체험하는 생활이면서도 깊은 의미가 담긴 이야기속에서 시대의 전형을 창조하고 있다.

텔레비죤실화극에서는 주인공 동명숙의 성격발전과정을 형상함에 있어서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덕성선을 품위있게 그리고있다. 작품에는 해방직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양시민들에게 베푸신 사랑의 이야기, 위대한 수령님을 뜻밖에 잃은 7월의 비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만경대구역 연료사업소 지배인에게 베푸시는 뜨거운 은정, 평양시민들의 땀감으로 군수용연유를 돌려주시는 이야기가 설정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들에게 돌려주신 배려가 생활의 갈피마다에 스며있는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전설을 매일매시각 접하며 뜨거운 눈물을 금치 못하는것이 우리 인민이고보면 작품에 설정된 덕성은 다 생활의 진실한 반영인것이다.

작품에서는 석유공급원들의 후더분한 인정미와 헌신성에 자기를 비추어보며 석유인수원이 된 동명숙이 우리 당의 숭고한 애민사상을 삶의 좌우명으로 새기는 과정을 덕성선을 통하여 형상하고있다. 성격발전의 단락을 지어주는 대목들에 덕성을 자연스럽게 맞물리고있다.

동명숙은 탄광에 갔을 때 자기네 구역에 배당된 탄화차가 탄대로 가자 그앞을 가로막으며 《난 만경대에서 온 수령님의 딸이다.》라고 웨치는 지배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

동명숙은 화차우에서 지배인에게 어떻게 그런말을 할수 있었는가를 조용히 물었다. 그때 지배인은 해방직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양시민들의 연료문제를 해결해주시기 위해 삼신탄광에서 시내까지 삭도를 놓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서 몸소 화불을 드시고 로동자들과 함께 걸으시며 삭도길까지 정해주셨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자기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그날의 화불이 타고있다고 마음속 진정을 터놓는다.

이때에야 비로소 동명숙은 자기가 하는 일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십년전 인민들의 땀감문제를 푸시려 드셨던 화불의 불길을 이어나가는 길임을 어렵듯이 깨닫게 된다.

그후 명숙은 직심스레 일하나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와 그 후파로 초래된 불리한 조건때문에 하루계획된 석유를 전량 끌어못들이며 상점간 균형 역시 원만히 맞추지 못한다. 이로 하여 주민들의 신소가 제기되고 지배인으로부터 추궁도 받는다. 그러나 명숙은 지난날의 자기를 돌이켜보며 신소자들은 다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들이라고 변명도 해본다.

허나 그 나날속에 꿈에도 생각해본적 없는 날을 맞게 된다. 한평생 인민을 위해 바칠수 있는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들을 더 잘 살게 하시기 위하여 애쓰시다 순직하셨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는 동명숙의 마음속에 세찬 폭풍을 일으킨다. 인민생활의 중요한 부문을 책임진 자기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너무나 일찌기 잃었다는 량심의 모대김은 써져린것이였

다.

가실 길 없는 량심의 번민을 안고 몸부림치던 그 나날에 명숙은 너무나 뜻밖의 사랑의 화폭을 목격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께서 말기고가신 인민의 운명을 지켜 수만리 전선길을 이어가시는 속에서도 인민봉사부문사업을 료해하시며 그 과정에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연료사업소 지배인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것을 아시고 친히 일군들을 보내시여 귀중한 보약들을 전달하고 격려도 해주게 하신다.

웅당 벌을 받아야 할 자신들이건만 오히려 석유공급원들의 수고를 헤아리시며 건강문제까지 돌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만사람을 격동시키는 사랑의 화폭을 직접 목격하면서 명숙은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여 인민에 대한 사랑의 력사는 끊임없이 이어짐을 절감하며 한생을 장군님 뜻 받들어 살 결심을 굳힌다. 그 과정에 인민군대좌가 제작한 가정용석유콘로 보온가열판을 보고는 무심히 대하지 않고 그것을 구역에 도입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쓴다.

실화극에서는 작품의 절정부분에 설정된 덕성선 역시 주인공이 발휘하는 영웅적소행의 사상정신적 바탕이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이바지하도록 형상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나라에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었을 때 평양시민들의 석유사정이 어렵다는것을 헤아리시고는 당장 전쟁이 터진다고 해도 인민들의 땀감부터 보장해야 한다시며 군수용연유를 공급하도록 하신다. 그 어느때보다 군사를 중시해야 되는 때에 인민들의 땀감부터 념려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애민관을 접하였을 때 명숙은 솟구치는 걱정을 금치 못한다.

하여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평양시민들에게 안겨주시는 사랑의 불인 한방울한방울의 석유가 그대로 주민들에게 가당게 하기 위해 지칠줄 모르고 일한다. 그 과정에 뜻밖의 정확이 조성되었을 때 생명을 서슴없이 바쳐 인민들을 구원한다.

작품에서는 덕성선을 주인공의 운명과 밀착시키고있기에 그가 생명을 내릴 때 무엇을 위해, 무엇을 생각하였는가를 심장으로 받아안게 한다.

주인공 동명숙은 교육자출신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동명숙의 의식발전과정을 덕성선과 결부시켜 보여준것은 성격의 론리, 생활의 론리에도 부합되는 적중한 형상방법으로 된다.

작품은 이처럼 우리 인민의 몸가까이에 미쳐있는 덕성을 주인공의 운명선과 자연스럽게 결합시킴으로써 형상의 진실성을 보장하고있다.

텔레비죤실화극 《꺼지지 않는 불》에서는 주인공 동명숙을 중심으로 맺어지는 인물관계에서도 오늘날의 시대상이 비껴게 하고있다.

기본인물관계인 지배인과의 관계를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지난 시기 많은 작품들에서는 한명의 영웅을 설정하여 형상하곤하였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시대의 전형이 두명 등장한다. 영웅지배인과 자기 하나만을 알던 녀성이었으나 후에 시대의 영웅으로 자라나는 동명숙이다.

영웅은 그 어떤 비범한 기질을 가진 인물이 아니라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받들어나가는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인간들이다. 조국과 인민앞에 커다란 공헌을 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될수 있다는것이 주체의 영웅관이며 우리 인민모두를 영웅으로 키우려는것이 우리 당의 원대한 뜻이다.

작품에서는 우리 시대 영웅은 어떠한 사람이며 그들처럼 살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두 인물을 통해 밝히고있다.

작품에서는 우리 시대의 영웅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지배인형상을 통하여 친근하면서도 격이 있게 형상하고있는바 여기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눈에 대한 형상은 인상깊다. 지배인은 항상 사람에게는 외부세계를 보는 눈과 함께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눈이 밝기에 인민들에게 끼치는 폐가 가슴저리게 마쳐와 그는 항상 만족을 모르며 일감을 찾곤한다. 그러나 명숙은 제단에는 주민들을 위해 애쓰는다고는 하나 자기를 들여다보는 눈을 못가졌기에 욕도 먹곤한다. 그 후에 자기자신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을 때 명숙은 가슴속 진정을 토로한다.

《언젠가 지배인동진 나에게 눈이 두개밖에 없다고 했지요. 나도 이젠 그 말뜻을 알아요. 사람에게 눈이 두개밖에 없지만 자기를 들여다보는 두개의 눈을 또 가지고있어야 한다는걸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를 알게 되고 자기를 알아야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도 할수 있고…

지배인동진 나에게 그 눈을 띄워주었지요.》

그 어떤 요란한 문구도 없지만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으로 불타고있는 인간의 사상정신적지향세계가 그대로 어려있는 말인것이다. 하여 지배인의 형상을 통하여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한다는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것인가를 생활적으로 깨닫게 한다. 하기에 동명숙이도 그 길을 따라 걷는다. 그 길에 때로는 외국출장지에서 돌아오는 남편을 마중가지도 못하고 사품치는 강물속을 헤치며 유조차를 인도하기도 한다.

작품에서는 기본인물관계외에 맺어지는 여러 인물관계에서 서로 돕고 이끄는 사회적기풍이 활짝 꽃핀 우리 사회의 미풍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고있다.

자기 직장은 아니지만 열성껏 도와주는 동명숙이 고마와 많지는 못해도 맛이나 보라며 참미역꾸레미를 넣어주는 《조엄마》, 늙은 내외가 사는 집에 가스통을 날라주다니 석유공급소를 비워 명숙의 편잔을 받는 영숙이, 불붙는 석유탱크안에 들어가

희생적으로 위험을 막아내는 영숙이의 모습은 그대로 자기보다 먼저 동지와 집단을 생각하는 사회적 기풍으로 명숙의 가슴에 파고든다. 그 기풍에 물젖어가는 명숙이기에 함께 일하는 직장녀성의 가정을 위해 자기 집의 쌀자루를 털어내게 된다.

영웅적행동은 인간의 사상정신적높이와 사랑의 열도에 정비례한다. 인간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뜨거워야 인간을 지켜 생명도 서슴없이 내댈 용단을 내리게 된다. 순간은 결코 많은 사색과 망설임을 요하지 않는다. 영웅적행동은 순간에 결정되며 그 순간은 축적되어온 생활바탕의 귀결이다.

작품에서는 동명숙이 맺게 되는 인물관계가 크나 작으나 인간사랑의 대화원속에 맺어진 관계라는데 모를 박음으로써 그가 발휘하는 영웅적소행이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안겨오게 하고있다.

텔레비존실화극에서는 하나의 세브라도 주인공의 성격발전에 이바지되고 시대상이 안겨오게 형상을 심화시키고있다.

그것이 신소세부이다. 작품에서 신소문제는 시종 일관하게 제기된다. 처음 신소는 동명숙이 구역행정경제위원회에 석유공급문제를 놓고 제기한다. 동명숙은 석유공급원들에 대해 알게 되면서 자신의 신소가 얼마나 부끄러운것이였는가를 스스로 깨닫는다. 그런데 신소는 계속된다. 이를 두고 동명숙은 자기 하나만을 위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의 불편을 걱정한다는 미명하에 신소를 한다고 말한다. 이때 지배인은 동명숙에게 신소자들의 대부분은 우리들이 일을 더 잘하라고 진심으로 하는것이라고 일깨워준다. 그러나 동명숙은 지배인의 말 뜻을 리해못한다. 그후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경제봉쇄책동으로 연유사정은 더 긴장해진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더 커진다. 그런데 신소는 줄어들기만 한다. 그때에야 비로소 동명숙은 우리 사회의 신소란 어떤것인지 그 참의미를 깨닫는다. 신소가 줄어들고있는데 대해 당비서가 물어볼 때 명숙은 신소는 줄어들고있지만 그속에는 더 큰 신소가, 말없는 요구성이 담겨져있다고 이야기한다. 작품은 이처럼 하나의 자그마한 생활세부도 놓치지 않고 주인공의 성격형상과 결부시켜 심화시킴으로써 예술적품위를 돋우고있다.

텔레비존실화극《꺼지지 않는 불》에서는 극작품의 특성에 맞게 대사 하나를 써도 생활적이면서도 인물의 성격과 내면세계가 어리게 하고있다.

극작품에서 기본형상수단은 대사이다. 그런것만큼 영화적요소가 많이 도입된 텔레비존실화극이지만 대사형상을 잘하는것은 극작품으로서의 본성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작품에서는 이로부터 대사 하나를 써도 인물의 성격을 돌구는데 이바지하게 하고있다.

지배인이 동명숙을 질책하는 장면에서 대사형상은 인상깊은것이다. 지배인은 동명숙의 변명을 용서없이 비판한다. 그리고는 터져오르는 울음을 가

카스로 참는 명숙에게 래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나서는 갈 땀 가더라도 단지야 가져가야지라고 말한다. 이 짝박한 대사속에는 동명숙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담긴것으로 하여 지배인의 진정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이외에도 초면인 동명숙의 집에 갔을 때 부엌칼도마우에 놓여있는 오이를 보고도 우리 동무들에게 오이랭국을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지배인의 모습은 아래사람들에 대해 그가 지닌 따뜻한 인정미를 느낄수 있게 한다.

작품에서 동명숙이 자기자식들에게 하는 대사 역시 비록 지금은 어렵게 살지만 앞날에 대한 락관을 간직하고 사는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신상태를 아무런 가식도 없이 자연스럽게 드러낸것으로하여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있다.

텔레비존실화극은 이처럼 설정된 덕성선, 인물관계,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상수단들이 생활의 본질이 비낀것을 취사선택하여 시대적높이에서 보여준것으로 하여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생활이 진실하고 뜻이 깊은것이기에 그속에서 사고하고 성장해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그토록 애정이 가고 감동깊게 안겨올수 있었다.

×

텔레비존실화극《꺼지지 않는 불》은 새롭게 창작되기 시작한 실화극중의 한 작품으로서 일련의 성과를 거두고있다. 작품이 거둔 성과는 앞으로의 실화극창작을 위해서 웅당 론의가 되어야 할것이다. 그런것만큼 일정한 성과를 거둔 실화극의 창작과정을 더듬어보는것은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본다. 여기서는 실화극문학창작과정에 대해 언급하려고 한다. 실화라는 문구가 새롭게 붙었으니 작품에 형상되는 인물의 운명선이 사실과 명백히 같아야 할것이다. 그러나 실화성이 기본인것처럼 여기며 작품의 극성이 다소 약해지는것은 일없다고 생각하는것은 경계해야 할 편향이다. 실화극은극의 특성을 최대로 살리면서 실화성도 정확히 보장하는것이 원칙적인 요구일것이다. 따라서 실화극은 작가의 사색과 탐구가 배로 경주되어야 한다.

텔레비존실화극《꺼지지 않는 불》의 극문학창조과정은 극의 본성도 살리고 실화성도 돌구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시사해준다.

주인공 동명숙의 원형에 대한 취재과정에 작가가 받아안은 충격은 컸다. 총멘 병사나 억대우같은 사나이가 아니라 수수한 가정주부가 생명을 바쳐 사람들을 구원한 미거는 작가를 흥분시켰다.

원형인물에 대한 애착심, 존경심으로부터 그에 대한 형상은 처음부터 긍정적인물로 하였으며 거기에 담을 극을 찾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잘 안되었다. 그러한속에 작가의 뇌리를 치는것이 있었다. 원형인물과 여러해동안 일해온 지배인이 한 말이였다. 원형인물에게 자기가 욕을 많이 했다는 여러가지 의미가 담긴 말이였다.

여기서 작가는 주인공을 생활그대로 처음에는 미

숙한 정신상태에 있다가 점차 시대의 전형으로 자리나는 과정으로 극을 끌어나갈수 있다고 생각했다. 작품의 대가 명백해지니 그토록 작품권박에서 맴돌던 신소에 대한 문제가 주인공의 운명에 걸리고 신소자와 신소받은 사람간의 관계라는 극적인 관계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처럼 실화극창작에서도 기본은 인물의 성격과 생활을 깊이있게 체험하고 창작적환상을 펼치는데 있다. 실화극이라고 하여 마치 인물의 운명선에서 꼭 있었던 일을 충실히 보여주는것만이 실화성을 살리는것은 아니라고 본다. 인물이 생활하는 과정에 체험하고 목격했을 일, 시대가 비끼고 생활발전의 합법칙성이 담겨진 생활을 그럴 때 참다운 의미에서 실화성을 살리는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실화극 《꺼지지 않는 불》창작과정은 시사적이다.

텔레비존실화극 《꺼지지 않는 불》창작과정은 경험도 주고있다. 그것은 종합예술인 텔레비존극문학의 특성에 맞게 형상수단들을 최대한 리용하는것이다. 작품창작에서는 기본형상수단외에 보조적인 형상수단들을 적중하게 리용하는 문제가 자못 중요하다. 텔레비존실화극은 종합예술로서 음악이 차지하는 형상비중도 크다.

초기 실화극문학에는 음악형상이 되어있지 못했다. 작가와 연출가와의 형상작업과정에 음악형상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 작품이 사람들에게 깊은 사색과 정서를 안겨주며 주인공의 생활세계에 스스로

끌려들어가는것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기》와 적지 않게 관련된다. 얼마나 많은 추억과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명곡인가. 작품에서 이 노래는 인물의 성격형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지배인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기》를 제일 좋아하며 언제나 이 노래를 듣는다. 이것은 혁명의 유서깊은 고향인 만경대에서 살며 일하는 남다른 공지와 책임감을 안고사는 지배인의 성격을 보다 형상적으로 규정해주고있다.

작품에서는 음악으로 장면의 극적정황도 긴박하게 조성시키고있다.

불치의 병 진단을 받고 지배인이 빈방에서 이 노래를 들을 때 판중은 그의 복잡한 심리세계를 받아안게 되며 문밖에서 지배인의 행동을 목격하는 동명숙의 심리상태는 극적으로 예리화된다.

이처럼 실화극에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기》를 잘 살림으로써 열, 백을 보여주는 형상적효과를 낳고있다. 작품의 창작경험은 작가들이 문학형상뿐 아니라 자매예술에 대해서도 깊은 파악을 가지고 창작에 적극 리용해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텔레비존실화극 《꺼지지 않는 불》은 극히 평범한 생활을 담고있지만 우리 인민들이 친근하게 체험한 생활, 생활발전의 합법칙성이 담긴 생활인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을것이다. 우리 생활에 불이 영원히 함께 있듯이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가는 숨은 애국자들도 지워지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있을것이다.

상식

다섯가지 음식맛의 작용

-단맛

단맛은 당분에 의하여 산생된다. 단맛은 기혈을 보충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며 독을 푸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단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혈당이 높아지고 콜레스테린이 증가함으로써 몸이 비대해지고 심장혈관질환을 일으킬뿐아니라 몸안의 칼시움과 비타민 B₁의 부족현상을 초래하며 심한 경우에는 시력에 손상을 준다.

-신맛

신맛은 초산, 젖산, 레몬산, 사과산과 같은 유기산에 의하여 산생된다. 신맛은 식욕을 높여주고 비장의 기능을 좋게 해주며 소화가 잘 되게 하고 간기능을 높이고 칼시움과 린의 흡수작용을 높인다.

초산은 독특한 해독, 살균작용을 한다.

그러나 산성음식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소화기능이 문란해진다.

-쓴맛

쓴맛은 유기염과 무기염 이온에 의하여 산생된다.

쓴맛은 오줌이 잘 나가게 하고 위가 약해진것을 보해주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쓴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증이 올수 있다.

-매운맛

매운맛은 각이한 특수화합성분에 의하여 산생된다. 매운맛은 위장의 운동을 자극하고 소화액의 분비를 높이며 혈액순환과 유기체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

그러나 매운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위점막이 손상되며 폐가 지나치게 성해진다. 치질, 홍문파열, 궤양, 변비, 신경쇠약,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매운 음식이 맞지 않는다.

-짠맛

짠맛은 대체로 식염에 의하여 산생된다. 짠맛은 세포와 혈액간의 침투균형을 조절하고 물과 염기의 대사를 정상화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짜게 먹으면 심장에 부담을 주고 고혈압을 유발시킨다.

단편소설

첫 소대장

-한 공훈탄부의 수기-

리경명

아직은 총기름냄새조차 가시지 않은 군복차림으로 탄전에 달려왔던 그때로부터 나는 한생을 막장에 몸담고 살면서 수많은 탄부들과 함께 탄을 캐왔었다.

채탄공들... 초소장들... 소대장, 중대장, 갱장들...

그들중에는 너무나 짧았던 생을 섬광같이 태우고 간 손창조소대장도 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였다.

빈터우에서 조국을 일떠세우던 전후의 그 나날에 채동탄광의 이름없는 한 마구리를 타고앉아 생의 마지막까지 탄을 캐다가 소리없이 막장에서 순직한 채탄소대장이였다.

그러나 살갗이 지나친 그의 삶이 왜 이다지도 못 견디게 나의 가슴을 허비는것인지?...

그는 잊지 못할 나의 첫 소대장이였다.

1

내가 제대배당을 걸머진채 령장자리 또렷한 군복차림으로 채동탄광에 나타난것은 지금으로부터 40여년전 바로 이맘때였다.

그때 갱로동지도원은 굳은살이 팻팻하게 들어박힌 거뭇한 손으로 내 손을 짚 움켜쥔채 말하였다.

《손소대장네 마구리에서 일을 하기로.

소대장도 동무와 마찬가지로 제대군인이니 배당이 맞을거요...》

이렇게 되어 나는 2중대 2소대에 발을 들여놓게 되였다.

내가 손소대장과 처음으로 낯을 익히게 된것은 별로 유쾌하지 못한 때였다.

탄부영웅이 될 앞날에 대한 터질듯한 희망, 위훈에로 잇닿은 열정과 일욕심, 제나름대로 그려진 막장에 대한 황홀한 환상과 기대를 안고 2중대 마구리로 들어서는 내앞에 현실로 펼쳐진 막장풍경은 너무나 나를 놀라게 하는것이였다.

왜냐하면 막장에서는 그때 한창 팔을 걷어붙인 《싸움군》들이 언쟁을 벌리고있었기때문이었다.

《여, 정신이 있어?... 우리도 모자라는 동발을 어디로 끌어간다는거야...》

《승인을 받았는지 않아!...》

보아하니 후에 말한 어리무던한 친구는 우리 소

대 채탄공이 아닌듯하였다.

《누가 승인을 해?...》

우리 소대쪽이 들이댔다.

《누군 누구야. 소대장이지...》

어리무던한 친구도 지지 않고 맞받아웨쳤다.

《이 친구가 이거...》

반죽종게 생긴 내 동갑또래 하나가 술뚜껑같은 손을 펴서 그의 이마에다가 능청스럽게 가져다붙이며 소리쳤다. 《...온기가 없지 않아?...》

약이 오를대로 오른 그 어리무던한 친구는 손을 힘껏 쳐갈기였다.

《와-》

웃음이 물방으로 터졌다.

어리무던한 친구의 이마뺨에 동갑친구의 손도장이 철썩 찍혔던것이다.

《왜들 이러는거야! 손소대장이 승인했는데...》

그 친구가 사나이답지 않게 울음반소리를 냈다.

《뭘?... 우리 소대장이...》

모두는 입을 하 벌린채 어이가 없어 눈들만 데룩거렸다.

우리 소대쪽에서 누군가 또 들이댔다.

《그것두 말이라고 해? ... 우리도 당장 동발이 모자라 그 문제를 제기하러 올라갔는데... 무슨놈의 가을빼꾸기같은 소리야...》

《주자구!》

어느사이에 나타났던지 툭 찍어만든듯한 거쿨진 청년이 떡 버티고 나서며 역시 한마디로 말했다.

그가 바로 손소대장이였다.

로골적인 불만이 터졌다.

《뭘라고요?》

《흥! 뭘가 뭘지 모르겠수다. 원...》

그러거나말거나 소대장은 똑같은 말을 찍어내듯 반복했다.

《주자구!》

죽지가 부러졌던 어리무던한 친구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쳇! 보라고...》

갱내소전차에 물린 두 대차의 동발이 소철레루를 딸가닥딸가닥 울리며 마구리를 빠져나갈 때까지 모두 말 한마디 없이 그쪽만 바라보고 서있었다.

반대로 손소대장은 손바닥을 맞부딪쳐 두어번 탁-탁- 소리를 내더니 허리춤에 두손을 얹고 제할바를 했다는듯 멀어져가는 동발대차를 바라보았다.

《올라가보니... 굴진은 우리보다 더 어려워! 어려울 때 돕는게 진짜 돕는게지!... 줘야 해!》

누가 듣거나말거나 소대장이 혼자소리처럼 하는 말이다.

동갑친구의 얼굴이 단번에 수수떡처럼 불깃불깃 살아났다.

《헛! 동발대신 소대장이 들어서구려...》

손소대장은 그런 도전에는 끄떡도 않았다.

《뭘 그리 떠드는거야! 손은 뭘다 뭘하겠다구... 내밀자구 생겨먹은게 손인줄 알아? 찾고 만들라구 붙어있는게 손이야.》

소대장은 또다시 손바닥을 맞부딪쳐 두어번 소리를 내더니 탄부들앞에 짹 펼쳐보였다.

이상했다.

그 한마디 말과 손동작에 결기가 살아올랐던 소대전투원들이 하나처럼 목을 움츠리며 짹곰해버렸다.

그 말마디와 손세에 무슨 알수 없는 수수께끼가 숨어있는듯했다.

두고보니 손소대장이란 부름 역시 그의 이름이 손창조라는데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그 수수께끼 같은 말에서 유래된듯싶었다.

《손은 뭘다 뭘하겠다구...》

말대로 그날의 모자라는 동발문제는 고갱에서 소대원들이 달려들어 회수해온 고갱목과 어제 새 공법으로 절약해두었던 동발로 말끔히 처리되었다.

우에 올라가 손을 내민것이 아니라 제손으로 찾고 만들어쓴 셈이었다.

나 역시 갯에 첫발을 들여놓던 그날부터 손소대장에게서 그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었다.

그런데 막장에 걸죽한 통담이 오갈 때면 왕창갈이 그 《손》이 《발》로도 변했다.

《여, 발소대장 못봤어?...》

《방금 여기 있었는데...》

이쯤되면 창조소대장은 자기 별명을 무슨 애칭으로나 여기는듯 별쪽 웃으며 나타났다.

《응, 발소대장 여기 있네. 왜 그러나?》

손으로 찾고 만들어내자면 발로도 어지간히 뛰어야겠으니 손소대장은 손이나 발을 한금새로 치는듯 싶었다.

창조소대장의 발에 대한 관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것 보! 철령동무... 그 신발꼴이 뭐요... 옛소, 이걸 신소!》

손창조소대장은 어느새 내 발을 여겨봤던지 새

로동화 한켠레를 나한테로 쑥 내민다.

갱내가 익숙되지 않아서인지 신은지 달포밖에 안되는 내 로동화가 볼품없이 껴졌던것이다.

《아니 이거야 소대장동지가 신어야 할...》

나는 창조소대장이 내미는 로동화를 받아들고 얼버무렸다.

《뭘 그러오! 신으랄 때 신어두는게 좋아! 신발은 날개라는데 ...》

갱안에서야 신발이 꺾꺾하지...》

그런 때 보면 똑 찍어만든듯이만 느껴지던 소대장이 사근사근 잘휘여드는 물푸레나무가지처럼 느껴졌다.

정겨운 소대장의 눈길을 받으며 나는 새 로동화의 끈을 바싹 조여신고나서 내가 신었던 헌 로동화를 집어 《휘익-》 뿌려던졌다.

그때 무엇때문인지 헌 로동화를 받아들려고 손을 내밀던 소대장이 어색한 손동작을 해보이며 뒤로 무춤 물러섰다. 헌 로동화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탄차우에 떨어졌기때문이었다.

《하... 어떻게습니까. 수류탄 던지던 솜씨지요...》

《허허참, 사람두...》

남에게 무얼 주는게 그리도 즐거운지 소대장은 동발을 굴진에 돌려주었을 때처럼 또다시 손바닥 울림소리를 내고나서 별썩 웃었다.

신발만 신겨준 소대장이 아니었다.

어쩌다 밥팩을 싸오는 날이면(누구라없이 먹는 것이 어려운 때때보니 그도 날마다 밥팩을 싸오지는 못했다.) 그것조차 내게로 밀었다.

《합숙생이야 늘 먹은 뒤가 없이 헛헛하지... 집을 쓰고 살면서도 언제나선뜻 이래보지를 못하누먼... 자, 받으라구...》

그렇지 않아도 허리띠를 남몰래 조이던터에 무턱대고 손이 나갔다.

렘치없이 불쑥 나가는 손이 민망스러워 얼버무렸다.

《아닙니다. 저야 뭘... 그래도 지금이야 합숙생활도 좋지요 뭐...》

《뭘 그러나! 어서 건사해두라구... 별거 아냐! 밀가루범벅인데 별맛이더군... 근기가 있어... 난 아직 든든하다니...》

모든것이 어려운 때였지만 막장은 언제나 떠들썩했다.

소대장의 그 유별스런 손세가 막장에 지칠줄 모르는 활력을 주는듯싶었다.

창조소대장은 작업분담도 짙막한 말마디와 손세를 배합하여 아주 전투적이면서도 명료하게 했다.

우선 손바닥을 탁-탁- 소리가 나게 맞부딪쳐 두손을 짹 벌려들어 소대전투원들의 주의를 집중시켰

다.

그러면 그 거밋거밋하고 거칠어만보이던 소대원들의 눈길도 학생들처럼 조용히 소대장한테로 모여 들었다.

소대원들의 조용한 눈길을 바라보며 그는 작업분담을 했다.

손가락 서너개를 펼쳐들고 《곡괭이!》, 또 다른 손가락 서너개를 펼쳐들고는 《삽!》, 나머지 손가락을 휘저으면서는 《운반!》 하는 식으로 작업분담을 끝냈다.

그러면 눈깜박할 사이에 곡괭이, 삽들을 비껴들고 탄벽으로, 공차로 다가붙었다.

처음 나는 어리둥절하였다.

반죽종게 생긴 친구가 땡해 서있는 나의 옆구리를 꼭- 찼었다.

《뭘해? 어서 가자구...》

《어디루?》

《어딘 어디야! 이자 소대장이 작업분담하지 않았어!》

《응?》

《차, 이 친구 이거... 그래 동무가 우리 소대 막내가 아니란거야?》

《뭐?...》

《섭섭해말라구. 어제까진 내가 새끼손가락이었지. 이제 신입공이 또 들어오면 친구도 나처럼...》

반죽종게 생긴 친구가 벌췌 웃으며 새끼 다음손가락을 세워보였다. 《...이거가 돼!》

피끗! 리해가 갔다.

방금전 소대장은 새끼손가락과 그다음 손가락을 휘두르며 《운반!》 하고 찍어말했던것이다. 하고보면 그와 내가 운반이라는것이다.

《허허 허허참, 거 정말 멋이 있는데요...》

《멋이 있지! 우리 막장은 바로 이런 막장이야.》

우리들은 신이 나서 경충경충 뛰어가 무뚝 실린 탄차에 어깨를 들이대고 밀었다.

막장의 휴식참이면 소대장의 그 특유의 손세는 교향악단 지휘자의 손길보다도 더 멋들어지게 소대원들의 흥취를 휘감아 올렸다. 세관게 틀어진 곡괭이로 탄벽을 찍어내던 소대장이 곡괭이를 쿵- 탄벽에 박아놓은채 두손벽을 울리며 돌아선다. 그러면 곧 휴식이였다.

《뭘해!》

이러면서 창조소대장은 식지손가락을 감아올렸다. 그러자 우리들속에 섞여있던 식지의 입자가 그 손가락에 보이지 않는 무슨 노끈이라도 련결된듯 펄쩍 따라일어나며 노래를 뻗다. 이쯤되면 창조소대장은 곧 지휘자처럼 손가락을 있는대로 다 펼쳐들고 멋지게 휘둘러댔다.

모두들 소대장의 두손에 붙은 제손가락들을 바라보며 신이 나서 합창으로 넘어 갔다.

무수히 둘러앉은 현악, 관악, 타악기수들을 손짓, 몸짓, 눈짓으로 다물아대는 대교향악지휘자이기나 한듯 열정적으로 흔들어대는 두손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손가락에 의해 그 손가락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노래에 힘을 주기도 하고 다소 더디게 또는 빨리 하면서 목청을 뽑아댔다.

그것이 곧 화음이 되고 박력을 주며 운치를 돋구었다.

모두들 어깨를 들썩거리며 힘차게 노래를 불러댔다.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

노래 2절이 끝나 갈 무렵이면 창조소대장은 열손가락을 감아뭉친 두주먹을 든채 소대원들앞에 나섰다.

...이 노래 높이 울리면

정날 튀는 굳은 암벽도

물먹은 담벽이 되고

이 노래 새겨 안지 못하면

푸실푸실한 석돌앞에서도

겁을 먹고 주저않더라...

그다음은 모두들 어깨를 견고 몸을 흔들며 3절을 계속해 불렀다.

2

...웃음과 노래로 귀가 멍멍할 정도의 떠들썩함이 없다면야 그게 무슨 막장이랴!...

그러나 그날저녁은 식을줄 모르는 열정에 늘 터질듯 달아올라만있던 막장에서 동발을 다스릴 때 마구 튀어나는 도끼밥처럼 울퉁불퉁 뿔돋친 말들이 오고 갔다.

《이달계획은 벌써 넘쳤군그래...》

그만하면 괜찮아. 동발까지 자체로 해결하면서...》

배포유한 늘어진 말을 단칼로 토막내어 서리찬 말이 날아들었다.

《그것두 말이라구 해! 세 교대중 맨 쫘지한 주체에 제길...》

올림굴에 동발을 올리밀 때처럼 이사람에게서 저사람에게로 말이 옮겨갔다.

《별수 있나. 너구리처럼 매일 남의 뒤나 주무르다나니 ...》

《도대체, 1소대가 틀려 먹었어...》
 전교대인 1소대에 대한 불만이다.
 《틀려먹긴, 그네가 괜찮지...》
 《맞아. 우리도 남사정 볼거 없이 털어먹어야 해.》
 《그러면 다음교대가 녹게?...》
 《녹긴? 3소대도 털어 먹으라지?...》
 《웁아! 그렇게 되면 1소대가 외려 골탕먹지.》
 《뭘 그리 불이 부어 우는 소리야!... 소대장 잘 만난 덕인걸... 손인지 발인지...》
 옥신각신하던 불만의 화살은 드디어 발과심지에 당긴 불꽃처럼 손소대장한테로 날아든다.
 《만날 손 손... 손밖에 모르니 별수 있나!》
 탄발을 털어먹는데 능수인 1소대에 왜 맞불질을 못안기냐는 말이다.
 달아오른 불만은 다지고다져진 화약처럼 얼핏 불꽃만 튀기면 폭발을 일으킬판이었다.
 바로 그때 며칠전부터 막장에 내려와있던 탄광병원 의사가 손소대장이 굴진편도쪽으로 올라간 틈을 타서 은근히 우리모두를 막장휴계실로 불러들였다.
 《정신들이 있소?...》
 의사는 무엇때문인지 휴계실 문쪽을 슬금슬금 걸 눈질해가며 격한듯 말했다.
 《건 또 무슨 똥판지 같은 소리요. 밀도끝도 없이...》
 동갑친구가 자기는 늘 건강하여 의사신세는 저볼 일이 없다는듯 똥똥한 몸을 흔들거리며 이죽거렸다.
 《왜 그리 말본새들이 거친가 그 말이요. 좀 고분고분 의견을 말할수도 있지 않소...》
 《의사선생하구 같겠소...》
 의사의 말이 그의 말을 동강냈다.
 《지금 창조소대장의 건강상태가 어느정돈지 알기나 하구들 그러오?...》
 《네?...》
 모두 의사의 얼굴을 지켜 보았다.
 소대장의 건강상태라니?
 《내 이 말만은 하지 않으려 했으나 동무들이 탕-탕- 내뱉는 말마디가 너무나 가슴을 허비기에...》
 모두는 옥- 의사를 에워쌌다.
 《우리 소대장이 어떻다는거요?》
 한동안 갑자리며 탄부들을 둘러보던 의사는 말하였다.
 《나는 군의로서 총탄이 우박치는 야전천막에서 소대장의 긴급수술을 했댔소! 생사를 판가름하는 세시간의 수술끝에 급한 고비는 넘기었으나 흉부에 박힌 한개는 끝내 끄집어내지를 못했소.
 그것이 너무나 치명적인곳들에 박힌 관계로 칼을 댈수 없었기때문이였소... 그자리가 도져... 지금은 그것이 엄중한 상태에 이르렀소!》
 《그럼 우리 소대장이 영예군인이란 말요?》
 《아직들... 모르고있었소?》

그리도 락천적이고 그리도 항상 신심에 넘쳐있는 소대장이 영예군인이라니?...
 그런데 파편창이 생명에 위급할 정도로 도졌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모를 소리요. 의사선생은 우리 소대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나 하구 그런 말이요?》
 《왜 모르겠소. 석탄밖에 모르는 사람이지요! 식량사정도... 누구네 집보다 더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 먹는것까지도...》
 《뭘-어라구요?》
 너무나 뜻밖이었다.
 《그게 사실입니까?...》
 나는 의사의 손을 잡아흔들며 다그쳐 물었다.
 《본인자신은 아직 자기의 병이 상태가 어느정도에 이르렀는지 모르는지 태연하지만 이건 어쩔수없는 사실이요...》
 《...》
 《무슨 수를 써서든 휴식을 시켜야겠는데... 본인은 막무가내요. 그렇다고 본인에게 이야기해줄수도 없고... 워낙 억대우같은 사람이다보니...》
 무엇때문에 의사가 요즈음 그리도 자주 왕진가방을 메고 우리 막장으로 내려왔는가 리해되었다.
 의사는 고통스럽게 말을 이었다.
 《말은 안하고있지만... 지금 나타난 병적증세로 보아 소대장은... 무너져내리는듯한 몸을 이겨내며 일을 할겁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내색도 없이 의사를 만나는 것조차 피하고 있지요.
 그저 탄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더는 소대장을 괴롭히는 거친 말마디들을 삼가해주길 바라오. 부탁이요!...》
 《!...》
 모두들 멍하니 선채 할말을 찾지 못하고있었다.
 어디선가 갱천정에 맺혔던 물방울이 물도랑에 떨어져 내리는 소리가 《물렁...》하고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막장공기가 일변하였다.
 룡담과 너털웃음 그리고 귀가 멍멍할 정도로 떠들썩하던 그 모든 막장특유의 소음이 시루밑에서처럼 잦아 버렸다.
 이때 굴진편도를 돌아본 창조소대장이 내려왔다.
 창조소대장은 자기의 새 결심을 내놓기만 하면 또다시 부딪치게 될 도전에 대응태세라도 취하려는 듯 몸을 꼭 박아세우고 말꼭지를 뺐다.
 그는 지금 자기가 소대원들에게 말하려는것이 자기로서도 너무나 어이없어보였기때문에 에둘러 말했다.
 《전쟁판에선 말이요... 달구지바퀴에 중기를 올려놓고 빙빙 돌려가면서도 적기를 수없이 씹떨구었소!
 여기서도 머리를 쓰면 무슨 순돌 생기겠지...》
 어느때같으면 벌써 굵지 않은 눈초리들이 소대장

의 얼굴에 쓸렸을 것이다. 저런 말폭지뒤엔 소대에 있는 무엇을 남에게 주자는 식의 뒤말이 틀림없이 따라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온화한 눈빛들이 지어 측은하기까지 한 눈빛들이 소대장의 얼굴을 더듬고 있었다. 무슨 임무를 주어도 말없이 해내겠다는 태도였다. 소대장은 혼자소리처럼 입속말을 씹었다.

《어려울 때 돕는것이 진짜 돕는것이지. 암, 제 배가 고프면서도 남을 위해 삶은 통강냉이 한줌이라도 선뜻 내놓을줄 아는 사람, 제 목이 마르면서도 물병을 동지에게 양보할줄 아는 정신…

목이 타드는 전호에선 물 한병으로 온 중대가 마시고도 남았었지…》

무슨 문제를 제기하려는데 여느때 없이 저리도 갑자르기만 하는것인가?

드디어 결심을 굳힌듯 소대장은 말했다.

《굴진을 채탄에 앞세워야만 석탄생산이 오르는것은 동무들도 다 알지요. 기름진 탄밭이 없어야 어디서 탄을 캐내겠소. 다음달부터는 우리 소대가 석탄생산을 천톤 더 늘여야 하오.

그러자면 우리 마구리의 소철레루를 해체해야겠소! 굴진은 우리보다 더 어려워… 레루가 굴진막장까지 가닿질 못해 버럭치러가 영 걸렸드란 말요!

소철을 뜯어내 굴진에 보내 주지요…》

《…》

아무런 대꾸도 없다.

모두는 멍하니 소대장의 얼굴만 지켜볼뿐이었다. 다른 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지시를 했더라면 불평이 폭발했을 것이다.

《우리 석탄을 등짐으로 저내라는거요?》

《소대장은 도대체 우리 소대장이요, 굴진소대장이요?》

《이제 속옷까지 벗어주자는겁니까… 내참 입이 쓰거워서.》

무슨 소린들 만나왔으랴…

그러나 지금은 누구 하나 말이 없다.

자기 몸을 다 산화시켜 석탄생산을 늘이려고 이처럼 애쓰는 소대장의 소행에 감복되어 모두는 측은한 눈길로 소대장의 몸을 어루췄다.

갑자기 조용해진 마구리공기에 소대장은 무엇인가 이상한 기미를 느꼈던지 한마디 덧붙였다.

《허참, 갑자기 왜들 이러오?》

《소대장동무!》

모두들 말없이 소대장을 에워쌌다.

《알겠습니다. 시키는대로… 하…겠습니다.》

전에는 들어볼수 없던 맥플린 대답소리… 오히려 소대장쪽에서 어성을 높였다.

《싱겁소! 딱딱 맞서면서 따라서는 맛이 있어야 탄부지… 이건 뭔가 지내 습습하지 않소!》

소대장은 제편에서 오히려 화가 돌힌듯 불평을 내뿜으며 와락와락 소철레루고정못을 뽑아내기 시작했다.

소대원들의 불평이 되려 창조소대장한테로 옮겨진듯싶었다.

하지만 모두는 말없이 따라나섰다.

《소대장동지!》

나는 끝내 참아내지 못하고 목메인 소리로 소대장을 불렀다.

모두는 나에게로 눈총을 건주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것인가고…

난들 무슨 말을 할수 있었으랴…

그런데 이때 내 가슴속을 들여다보기라도 한듯 창조소대장은 오히려 나를 위로했다.

《몹시들 지쳤구먼… 눈에 충혈이 다 지구. 하기가 그새 술한 일을 했지!

밤잠도 못자고 두드리고 깎고 다스려 뭘 하나만 들어놓고는 재미를 볼만하면 사흘도 못되어 남에게 쥐여주기만 하면서…》

모두는 레루밀에 지레대를 끼워 들추어대면서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쳤다. 실은 소대장 모르게 흐느낌을 뿜으며 눈물을 훔치고있었던 것이다.

《이번 휴식일에 산엘 좀 올라가보지요!…》

소대장의 그 소리에 나는 흠칫 몸을 떨었다.

(혹시? … 소대장자신도 자기의 생이 끝나가고있음을 알고 저러는것은 아닌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온갖 심혼을 다 바쳐온 탄광전경을 눈에 담고싶어 산에 오르려 하는것은 아닌가?…)

어쨌든 소대장의 건강을 위해서 산에 오르는것은 좋다.

이른봄날 따사론 봄빛에 눈시울을 쏘르르뜨고 산밭에 오르는것이상 탄부들에게 즐거운 때가 어디 또 있으랴…

《좋은 친구나!》

산정에 오른 소대장은 땀바위에 우뚝 올라서서 시를 읊기라도 하는듯 감정을 터쳤다.

《얼마나 좋은가!

내 나라, 내 조국의 풍요하고 귀중한 탄전이여!…》

우리들은 푸르른 하늘을 배경으로 바람에 옷깃을 날리며 서있는 소대장을 띄어보았다.

소대장은 아직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있으니 그렇듯 즐겁게 웅치고있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그럴수록 더 울적해졌다.

그전날 같으면 웃고 달음박질하고 부둥켜안으며 한없이 즐겁기만 했을 산놀이도 그리 유쾌한줄을 몰랐다.

그러나 소대장앞에서 그런 내색을 보일수도 없었다.

…산을 내릴 때에는 아름답리 참나무를 찍어 소대장자신이 먼저 돌려뒀다.

무슨 일에서나 그러했듯이 우리들도 말없이 따라미끈한 참나무를 한대씩 찍어뒀다.

그날부터 소대장은 산놀이때 찍어온 그 참나무들

을 깔고 다스려 막장에 참나무레루를 놓아나갔다.
소철레루를 뜯어내어 굴진에 넘겨준후 우리는 이렇게 참나무레루를 놓고 그우에 탄차를 어깨로 밀었다.

(소철레루와 함께 소전동차도 굴진마구리로 올려보냈던 것이다.)

이런 나날속에서 경쟁총화때면 우리 중대, 우리 갯은 판에 박은듯한 1등이었으나 또 역시 그에 속한 우리 소대는 늘 남보다 뒤지기가 일쑤였다. 소대장의 《덕》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누구도 이에 대하여 불평을 터뜨리지 않았다.

땅속깊이에 서서 조국을 떠이고선 탄부의 자세인 양 자신을 한껏 낮추어 중대와 갯을 높이 추켜세우는 소대장의 그 웅심깊은 마음의 샘이 이제는 모두의 폐부로 깊이 흘러든 것이었다.

《조금이라도 쉬십시오! 소대장동지 얼굴이 요즈음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소대장은 마치 산갈은 힘이 남아돌아 가기라도 하듯 가슴을 쑥 내밀고 빼기였다.

《거참, 모를 일이거든... 힘은 배로 솟는데 모두들 자꾸 내가 못쓰게 된다고들만 하니... 뼈속으로 살이 지는건지 원... 하.》

소대장은 소리내 웃었다.

우리도 따라웃었다. 아니 웃는척 했다.

자신에 대하여 너무나 모르고 있는 그 정상에 가슴이 어이는듯했다.

3

높이 세운 소대 월석탄생산계획에 증산과제 천톤까지 해낸다는것은 아름다운 일이었다.

창조소대장은 월초부터 일을 세차게 다그쳤다. 이제 남은 30톤... 광차로 치면 스무차의 석탄만 끌어내면 드디어 증산과제까지 합친 월석탄계획이 끝나는 그런 가슴벅찬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고있었다.

속보들이 준비되고 현장방송원은 벌써 축하방송 준비까지 끝내놓고 마지막탄차가 나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가두에서는 물론 학교에서도 소년단원들이 꽃다발을 준비하며 들썹해있었다. 한껏 환희로운 그 순간을 앞에 둔 그 시각!

참나무레루우로 마감탄차를 밀다가 쓰러진 창조소대장은 우리들의 등에 업히어 막장휴계실에 들어왔다.

《오늘... 내 왜 이럴까? 할일이 오죽 많다구... 철령이! 내 잠시 눈을 붙일데니... 조금... 있다... 깨워... 주지요, 응!...》

동갑친구가 소대장의 가슴우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떨었다. 언제인가 새 런닝그 하나를 동갑친구에게 입혀놓고 두손뼉을 울리며 기뻐하던 창조소대장이 그가 입었던 해진 런닝그를 촘촘히 기워서 입고 있을줄이야...

불현듯 나의 눈길이 소대장이 신고있는 로동화에 가닿았다.

아! ... 내 손에 번쩍 추켜들리어 탄차우에 던져졌던 그 로동화?... 그것이였다. 해진곳에 덧천을 대고 촘촘히 누벼박은 그 신발이였다.

손창조소대장은 이렇게 육신의 마지막까지 남을 위해 바치며 거기에서 기쁨을 찾았다.

남의 수고를 제 등에 옮겨지고서야 마음 가벼워짐을 느끼며 살아온 사람...

그는 막장휴계실에서 눈을 뜨지 못한채 우리 곁을 떠나갔다.

그의 령전에 선 소대원들은 불같은 의지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소대를 이끌어나간 불굴의 신념앞에 고개를 숙이였다.

더구나 나의 가슴을 뜨겁게 불태운것은 그의 일기장에 써여진 글발들이였다.

...굴진편도에 올라갔다 내려오니 막장은 텅 비어있었다.

웬일이냐싶어 막장휴계실쪽으로 걸음을 옮겨놓던 나는 우뚝 멈춰섰다.

휴계실안에서 탄광의사의 심상치 않은 말소리가 흘러나왔기때문이었다.

예견했던대로였다.

의사는 지금 파편박힌 부위가 도져나 엄중한 단계에 이른것을 내가 전혀 모르고있는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왜 모르겠는가!

알아도 너무나 잘 안다. 다만 모르는척했을뿐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온 나라기 재더미를 털고 일어서는 이때 병든 몸을 피탈해 나라에 부담을 끼치며 사느니보다 이 한몫 바쳐 일을 해나가다 막장에서 쓰러지는것이 당원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소대원들에게 나의 《비밀》이 알려졌으니 이제 부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일이 이렇게 되고보니 소대원들이 딱딱 맞서며 따라서던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던가 여겨진다.

말없이 웃어보이며 애쓰는 그들을 이끌어가자니 갑절 힘이 든다. ...

부엌쪽에서 탁-탁 불씨를 튕기며 타는 장작불소리가 가슴을 찢었다.

탄광에 산다고 나라의 탄사정이 어려운 이때 탄을 마구 퍼다 뺄수는 없다고 굳이 고집을 해서 소대장네 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썩은 동발을 주어다 꽤 때는데 습관된 것이였다.

생각이 숨엄해졌다.

세월은 많이도 흘러 어언 안전모를 눌러쓴 내머리에도 어쩔수 없이 흰서리가 내비치고있다.

소대장... 중대장... 갯장을 거쳐 교관이 된 오늘까지 나는 한생을 막장에 살면서 단 한번도 첫 소

대장을 잊어본적이 없다.

늘 손창조소대장이 곁에 있어 《이 손은 뒀다 뒀다 하겠다구...》하면서 두손벽을 딱-딱- 마주 울리며 벌썬 웃는듯만 했다.

내 막장에서의 한생!

때로는 동발이 탕탕 튕겨나는 숨막히는 지압속에서 때로는 생사를 가늠기 어려운 물통과의 판가름속에서 전후의 그 어려웠던 나날에 나에게 한생을 참담게 살아갈 신발을 신겨주고 위대한 수령님 받

들어 충성으로 참담게 살줄 아는 녀을 심어준 손창조소대장이 아니었다면 내 정녕 한생을 이렇듯 떳떳한 마음으로 돌아볼수 있겠는가!

나는 늘 자신에게 묻곤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받들어 그이를 결사옹위해 그날의 손창조소대장처럼 살고있는가?!

나는 가슴에 빛나는 금별메달을 더듬어보며 다시 한번 나의 첫 소대장을 마음껏 뜨겁게 추억하였다.

삼식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기후의 영향

기후와 사람의 건강간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체로 사람들은 무더운 여름이면 몸이 여위고 추운 겨울에는 몸이 좋아진다. 왜냐하면 여름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고 인체의 신진대사가 굼뜨며 위액분비가 적어지고 위장운동이 약해지며 식욕이 떨어지는것과 함께 운동으로 인한 열량소모가 많기 때문에 몸무게가 줄어든다. 반대로 겨울에는 인체의 신진대사가 강화되고 식욕이 높아지기때문에 몸무게가 늘어난다.

기후는 사람들의 정서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다. 폭우가 쏟아지기전에 우뢰가 울고 번개가 칠 때면 공기중의 음이온함량이 늘어나므로 사람들은 지쁜한 감을 느끼게 된다. 겨울철의 햇빛은 사람들의 마음을 유쾌하게 한다. 그러나 비가 오기전의 저기압상태는 사람들의 심정을 안절부절하게 만들고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는 사람들의 정서를 저락시킨다. 이밖에 저기압상태에서 기온이 높아지기 하루이틀전에는 사람들의 정서가 초조해지고 쉽게 노하며 행동거지가 굼뻐진다.

기억력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사람마다 기억력

이 좋고 나쁠 때가 있다. 이것은 기억력이 날씨의 영향도 받는다는것을 말해준다. 고기압상태에서의 낮은 온도와 습도는 흔히 사람들의 사유를 민감하게 하고 명석하게 한다. 이른아침이나 깊은 밤에 기억효과가 좋은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찌는듯한 더위는 사람들의 시력에 나쁜 영향을 준다.

인체의 건강에 가장 좋은 기후조건은 온도가 15~18℃, 상대습도가 30~60%, 기압은 1표준대기압이며 부드러운 햇빛이 비치고 산들바람이 부는 날씨이다.

고기압조건에서 급성심근경색발병률이 제일 높고 1~2월에 뇌출혈로 인한 사망률이 제일 높으며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동맥경화성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제일 높다. 그다음 7~8월에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 이것은 찌는듯한 더위와 살을 에이는듯한 추위가 모두 심장과 대뇌를 자극하여 혈압을 높이고 나아가서 심장과 대뇌의 부담을 증대시키기때문이다. 이밖에 여름, 가을에는 적리, 위장염, 간염 등 질병이 제일 많이 발생한다.

수필

숲에 대한 생각

엄성영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나 역시 숲을 사랑한다. 숲, 속으로 조용히 넘어면 눈앞에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성한 산림이다. 키높이 자란 나무들이 뻗뻗하게 들어찬 울울창창한 수림, 가없이 푸른 하늘아래 넓없이 펼쳐지는 나무잎새들의 정다운 속삭임, 폐부를 찌르는듯한 맑고 청신한 공기, 상가지에 앉아 꼬리를 초췌하는 새들의 청고운 지저귀, 바람결에 실려오는 향긋한 송진냄새, 조잘대는 여울물소리...

우리 나라에는 산이 많다. 국토의 80프로를 차지하는 산림에는 빨리 자라는 나무도 있고 풍성한 열매로 하여 식용적 가치가 큰 나무도 있다. 산림조성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분류도 각이하다. 용재림, 경제림, 방목림, 풍치림, 기림나무림, 땀나무림, 종이원료림...

어찌 그뿐이랴! 무성한 숲은 어지러워지고 오염된 대기를 맑고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하나의 자연 《공장》이기도 하다. 어느 책에 쓰여진 자료를 보니 숲 한정보에서 일년 동안에 배출되는 산소량이 6~7톤이나 된다고 한다.

하다면 우리가 숲을 사랑하는 것이 이러한 숲속의 정서나 신비경, 자연의 혜택, 인민경제적의의때문만이겠는가?

얼마전 나는 북방의 한 림산마을을 찾은적이 있다. 달리는 열차의 창턱에 마주앉아 한손으로 턱을 고인채 언뜻언뜻 스쳐지나는 창밖의 전경에서 나는 눈길을 떼지 못했다. 멀리로는 수림이 우거진 우중충한 산발들이 연출연출 늘어서고 가까이로는 양지바른 산기슭을 따라 아담한 문화주택들이 줄지어 늘어 섰다. 때는 미침 식수계절이어서 높고낮은 산마다 봄철나무심기가 한창이었다. 노동자, 사무원들과 대학생들, 소년단백타이를 맨 학생들이 하얗게 펼쳐나선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생각은 자연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나무를 심으신 뜻깊은 사적이 깃들여있는 장산으로 줄달음쳤다.

미제가 불을 지른 3년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불타버린 장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날 산마다 푸른 숲 우거지게 하자면 빨리 자라고 꽃이 향기로운 아카시아나무들 많이 심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몸소 석비레땅에 구멍이를 파시었다.

그이께서는 나무는 어느때 심으며 깊이는 얼마나 보장해야 하는가 등 나무심기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일찌기 조국땅을 푸른 숲이 우거진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물려주신 사회주의 내 조국을 세상에서 아름답고 풍요한 제일강산으로, 모든것이 흥하는 무릉도원으로 꾸리시기 위하여 최근년간 여러차례에 걸쳐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잘할데 대한 귀중한 말씀을 주시었다. 식수절도 새롭게 제정해주시고 많이 심어야 할 수종까지 손꼽아가시며 온나라를 원림화, 록화할데 대한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이 있음으로 하여 이렇듯 조국의 산과 들, 거리와 마을, 유원지와 공원, 명승지들에 로동당시대, 주체시대의 시대상이 새롭게 펼쳐지고있는것이 아닌가!

열차는 길손이 적은 산촌의 자그마한 간이역에서 멎었다. 나는 표발은곳을 빠져나오기 바쁘게 곧 림산마을로 향했다. 어지간히 바쁜 출장길이기도 했지만 해가 뉘엿뉘엿한데다 목적지까지 가닿으려면 령을 하나 넘어야 했다. 나는 부지런히 걸음을 다그쳤다. 어느새 등골이 척척해졌다. 선우개령입구에 겨우 들어섰는데...

가없이 펼쳐진 수림은 바람을 안고 좌좌 설레이고있었다. 저녁노을을 받은 숲우듬지들이 금빛으로 번쩍거리더니 어느새 불길처럼 황황 타오른다.

나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인적드문 산중에서 걸음을 팔 경향이 못되었다. 얼마쯤 그대로 걸음을 옮겨놓던 나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기띤 말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량심이 없단 말이야, 량심이!》

노염이 섞인 거센 목소리가 길 오른쪽 산비탈에서 들려왔던것이다. 주위를 두리번 살피던 나는 소나무에 반나마 가리워진 비탈면에 서있는 두사람의 모습을 띄어보았다. 목소리의 입자는 나들이차림의 나이지숙한 사람이였다. 기상이 여간만 표표하지 않았다.

(웬일인가, 이 산중에서?...)

나는 그리로 발뼘발뼘 다가갔다. 질책을 받고있는 사람은 젊은 청년이였다.

《목석같은 녀석! 그래 이 나무를 찍어넘길 때 손이 떨리지 않던가말이야. 엉?》

그제서야 나는 사태의 진상을 어렴풋이 예상할수 있었다. 그럼 젊은이가 산중의 조용한 저녁시간을

리용하여 슬그머니 제집에 쓸 나무를 찍어냈단 말인가. 아닐세라 주위에는 도끼밥들이 허영게 널리고 찍히워 나딩구는 나무에서는 상처의 아픈인듯 진액이 흐르고 있었다. 가슴이 울컥해지는 순간 거센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부끄러운줄 알라구. 산림은 나라의 자물쇠 없는 창고야!》

(자물쇠 없는 창고?!...)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산림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그런데 벼락맞은 소고기 베여가듯 저마다 망탕 찍어낸다면 나라의 산림이 어떻게 견디겠는가?

웅대한 타매였다. 자물쇠 없는 나라의 창고를 량심으로 지켜야 한다는 그 마음은 얼마나 깨끗하고 결박된것인가! 나에게서는 문득 이 사람이 조국의 푸른 숲을 가꾸고 지켜가는 립업일꾼이거나 산림감독원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며 저도 모르게 존경이 갔다. 그럴수록 젊은이의 무지막지한 행동이 야속하게만 생각되었다. 조국의 산마다에 푸른숲 우거질 때 날로 늘어나는 공업원료에 대한 인민경제적 수요도 더 원만히 보장할수 있고 토지보호를 비롯한 국토환경보호사업을 더 잘할수 있으며 나라의 면모를 아름답게 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유족하게 해나갈수 있다는것을 그래 이 청년은 모른다 말인가. 더욱 안타까운것은 청년이 웅대한 질책앞에서 량심상 가책을 느낄대신 너무도 뻔뻔스럽고 태연자약한 태도였다. 오히려 두눈이 생글생글 웃고있지 않는가. 도대체 뭘하는 젊은이인가?

가슴속에 다시금 화가 치미는 순간 청년의 총알같이 야무진 목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아바이, 고맙습니다!》

《고맙다니? 무슨 소린가?》

나보다 먼저 놀란 아바이의 반문이였다.

《산림을 아끼는 그 진정말입니다. 전 나라의 자물쇠 없는 창고를 가꾸고 키워가는 산림감독원입니다.》

(산림감독원?...)

나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청년의 말대로 그가 산림감독원이라면 어떻게 나무를 망탕 찍을수 있단 말인가? 젊은 사람이 산림감독원이라는것도 잘 믿어지지 않았다. 나의 이러한 의혹을 가져주려는듯 청년이 공손한 어조로 말꼬리를 이었다.

《군대에서 제대된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산림감독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찍어넘긴 저 나무는 꼬부랑소나무가 아닙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나라의 산림수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시며 잣나무를 많이 심을데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전 이곳에 잣나무림을 꾸릴 결심입니다. 그래

서...》

나의 예상은 순간에 뒤집혀지고말았다. 알고보니 이 젊은이 또한 얼마나 훌륭한 청년인가! 시대를 안고사는 청년, 인적드문 산중에서 해저물 때까지 자기의 성실한 땀을 바쳐 조국의 푸른 숲을 가꿔가는 청년! 하기에 그리도 당당하고 여유작작한것 아닌가. 량심에 부끄럽지 않는 일을 한 사람은 남의 비평을 두려워하지 않는것이다.

《그럼 진작 그렇다고 할노릇이지. 허허... 날 탓하라구.》

아바이가 젊은이의 어깨우에 손을 얹으며 곁곁 웃었다.

《어찌나 혼쫓이 나게 다블러대는지 어디 대답할 겨를이 있어야지요? 허지만 탓하지 않겠습니다. 내게는 그것이 오히려 힘이 되고 고무로 되었으니까요. 허허... 그런데 아바이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나 말인가? 도양어사업소 양어공이야. 방금 차에서 내려 령을 넘다가 자네의 도끼질소리를 들었지...》

나는 가슴이 뜨거워올랐다. 출장길에서 만난 저 양어공아바이나 인적드문 산중에서 해저물도록 산림수종을 바로잡는 청년의 마음은 얼마나 순결하고 아름다운가, 얼마나 깨끗하고 귀중한것인가! 일하는 초소와 직무, 나이는 서로 달라도 생각은 오직 하나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려는 충성의 일념으로 가슴불태우고있는것이 우리시대 사람들의 공통된 지향인것이다. 그 지향, 그 열망에 떠받들려온 조국의 미래는 또한 얼마나 푸르창창할 것인가!

나는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기차를 함께 타고온 양어공아바이처럼 왜 산림을 돌볼 생각을 못했는가. 령길을 넘으면서 눈석이물에 패워 드러난 나무뿌리에 왜 흙 한줌이라도 덮어줄 생각을 못했는가.

죄스러운 생각에 나는 선뜻 그들에게로 다가갈수 없었다.

숲에는 고즈넉한 정적이 깃들고 어둠이 천천히 밀려들었다.

하지만 나는 갈길을 서두르지 않았다....

얼마후 우리 셋은 령을 넘었다. 쟁반같은 보름달이 떠올랐다. 나는 달빛에 젖은 숲의 아름다움보다도 함께 걷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에 매혹되어있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무성한 숲이 대기속의 오염을 정화시켜주듯이 사람들의 흐리터분한 정신세계도 맑고 깨끗하게 정화시켜준다고.

그때문에 더더욱 숲을 사랑하는것이 아닌가고.

생활에서 새겨둔 생각 몇토막

김석주

길어지지도 짧아지지도 않건만
학습총화나 시험을 앞두고는
늘 한시간이 모자라 덤벼치는 사람

빨라지지도 늦어지지도 않건만
월말이나 년말을 앞두고는
늘 하루가 모자라 분주탕을 피우는 사람

래일하지 래일하지 미룰 때
어찌 모르던가, 미룬다는거야 버린다는것
그런 사람에겐 시간이 빨라도지고 짧아도지는것
버린 그것이 인생의 한토막인것을

×

시내물에 징검돌 놓여 있어
사람들 고맙게 딛고 건너가누나
하지만 딛고 건너가서는
뒤도 안돌아보고 가버리나니
아마도 저편 기슭에 올라서면
어느새 잊어버리는 모양

너에겐 그런 일이 없었던가
한때의 남의 도움을
징검돌처럼 딛고 건너가서는
쉬이 잊어버림이

×

기쁜 일로든 피로운 일로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있을 때
만약 동무들이
너에게 부탁하기를 싫어한다면

멀고 위험한 밤길을
단 둘이서 가야 할 그런 일이 있을 때
만약 동무들이
너와 함께 가기를 꺼려한다면

만약 그렇다면
너는 그래 어떻게 사는 사람이나?
너의 진심, 너의 믿음, 너의 성실성을 묻는다

×

세월은 물과 같다 흔히 말하지만

물이야 흘러서
인생결을 무심히 스쳐가도
세월이야 흐르면서
박정하게 인생을 실어가지 않습니까

하기에 덧없이 보내면 흔적없이 흘러가도
값있게 산 하루하루는
글을 새긴 돌처럼 남아있지 않습니까
세월의 물결도 실어가지 못한
삶의 무게로...

×

찾는곳도 많고
시키는 일도 많아서
늘 바쁘게 돌아치며 잠도 설칠 때는
그래도 네가 참말로 사는것 같던 때

어데서 찾는데도 없고
그 누가 시키는 일도 없고보면
얼마나 그리워지랴 늘 바쁘던 그때가
사람들 관심밖에 있다는 그 서글픔...

×

네거리에서 문득
스무해전 동무를 알아 보았다
한순간
그도 나를 알아본듯했건만
얼핏 외면한채 그냥 지나가버렸다...

멀리 그뒤모습을 보며 이런것을 생각했다
인생에 만나고 헤어지는 일 많아
헤어질 때면 누구나 다시 만나자 말하건만
다시 만남도 쉽지 않지만
그 상봉앞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는것을

작별의 긴 공간에
성공한 생활의 떼떽함이 없으면
쉽지 않은 상봉마저 피하기도 하거니

×

뒤소리는 나쁘다고 늘 경계하는것
하지만 뒤소리를 나르는 사람이

더 미운 사람이 아닐까
별치 않은 말도
상대방의 귀에 쏟아낼 때는
죄를 하늘소만큼 보태고 꾸미기도 하거니

그가 타산하고 바란것이
아침이 아니고 리간이 아니라면
다른 또 무엇이란 말인가

×

깎아지른 절벽 중턱에
한그루 락락장송이 서있다

날개달린 작은 솔씨앗
바람에 날려 우연히 떨어진 돌벼랑

씨앗은 자리가 나쁘다고 탓하지도 않고
더 좋은곳을 골라 다시 날아가지도 않았다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연약한 뿌리를 박으며
몇백년... 돌을 쪼개며 바위를 버리었다

투쟁하고 창조하는 삶은 그렇게 역센것이다
그런 삶의 뿌리는 돌보다 더 강한 법이다

×

일을 배우기전에
사는 법부터 배웠던가
실속없는 말도 귀맛 좋게 잘하고
어디서나 살 구멍수도 잘 보아
그래서 한 일보다
더 많은것을 받으며 사는 사람
간혹 우리 주위에도 없지 않더라

하지만 오래 섰지 말라구
허수아비도 한여름 서있으면
새도 속지 않고 거기에 날아와 앉지 않던가

×

-십분만 빨리 왔어도 렬차를 타는걸
-한시간전에만 떠났어도 만나는걸
그런들 무엇하랴, 기회는 이미 가버린것을

생활엔 얼마나 많은가, 이런 일들이
늦잡고 게으름부리며 놓쳐버린
좋은 때, 좋은 기회, 좋은 순간들은

시간은 꽃을 안고와서
열매를 약속하건마는
그것을 신중히 대하고 무겁게 여길줄 몰랐거니
한생이 다 간 그날에도 그렇게 말할것인가
-40년전만 해도
나도 한참 젊은이였던걸...

×

나이들면 그전에 못보던것도 보게 되어
싫은 소리가 많아지는것인가
눈에 거슬리는 이런 일 저런 일 말해주면
그것이 싫다네, 아이들도 안해도

그래서 며칠 돌처럼 말이 없으면
일을 들고 찾아오네, 싫은 소리 해달라고
《적당히 하구려》 하고 좋은 소리 해주면
이번엔 그것이 싫다네, 싫은 소리가 아니라고

이제는 알만한가, 싫은 소리가
생활에 필요한 좋은 소리인줄
그것이 몇십년세월을 두고
술한 쌀을 축내면서 배운것이라네

×

래일은 늦는다
래일은 못한다
래일은 안된다
래일은 못간다
오늘 하지 않고, 오늘 뛰지 않고, 오늘 서두르지
않으면

×

삶을 서두르며
내게 하는 말

뜻은 높아
하늘의 별을 따려 하건만
별은 멀고
인생은 짧더라

철의 기지에서

장동일

나는 이 원고에서 김책제철소 로동계급이 것처럼 간고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겨 주신 나라의 생명선을 지켜 어떻게 싸웠으며 작가인 나는 그들의 투쟁에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문화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사상전선을 지켜선 우리의 작가들은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아들여 하며 작가의 필봉은 언제나 당을 옹호하는 혁명의 보검으로 빛나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와 같이 지적하시면서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작가의 생활체험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데 많이 좌우되며 탁상문학, 취재문학을 하는 현상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나는 지금 김책제철소에 파견되어 현지에서 생활을 하고있다.

김책제철소는 요즈음 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어 사람들을 놀리우고있다. 사붕과 순평을 련결하는 대도로의 구름다리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연기가 솟아오르는 용광로며 소결로의 굴뚝을 그리고 흰구름마냥 피어오르는 해탄로의 소화탑증기를 황홀하게 바라보군한다. 어떤 사람들은 대형용광로의 거세찬 송풍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구름다리에서 십여리나 상거한 2강철직장의 백톤전로 은빛굴뚝을 났을 잃고 바라보다가 《아, 취련을 하는구만! 전로에도 쇠물이 넘어갔군!》 하고 환성을 지르며 가던 길을 바꾸어 2직장쪽으로 달려가는것이였다. 아마 그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오래동안 벗어섰던 전로를 두고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것이라고 제나름으로 속단했던 사람같았다.

주체85(1996)년 12월하순부터 주체86(1997)년 3월초에 이르는 기간에 김철 철강재생산의 첫 공정이며 판문이라고 말할수 있는 해탄로에 원료탄이 떨어져 로의 불을 끄지 않으면 안되게 될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였다.

남조선피뢰역도는 우리 나라와 원료탄을 가지고 유무상통하는 어느 한 나라에 이미 몇해전부터 우리와 한 계약을 취소하게 하는 한편 그것을 다른 나라로 빼돌리게 하는 비렬한 수법을 감행해왔다.

때를 같이하여 피뢰역도는 그해 새해 벽두에 북조선의 대야금기지라고 하는 김철의 해탄로가 이제 1월 9일이면 불을 죽이게 되고 1월 12일이면 용광

로가 숨을 거두게 될것이다, 이렇게 되면 렬차들이 멎어서게 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될것이며 북조선의 사회주의는 마침내 종말을 고하게 될것이라고 떠벌였다고 한다.

한편 피뢰 《안기부》놈들의 그 집요하고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마침내 1, 2호 해탄로의 온도는 10도, 20도... 내려가기 시작했다. 30여년동안 해탄로와 함께 살아 온 오랜 해탄공들이 로바닥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통곡했다.

그도 그럴것이, 이제 해탄로의 온도가 730도 아래로 내려가면 40여년간 한번도 불을 끈적이 없었던 해탄로가 서게 된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 1호해탄로앞에 수천을 헤아리는 김철로동계급이 모였다. 그앞에 김철당위원회 책임비서 리하준이 나섰다. 그는 방송차마이크를 들어쥐고 1호해탄로 꼭대기에 올랐다. 그는 먼저 놈들의 악랄하고 비렬한 책동을 까뻑한 다음 아버지 수령님의 한생이 어린 붉은기를 끝까지 지켜 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탄로의 불-사회주의의 불을 고수하며 살려낼데 대한 비상대책을 선언하였다.

낮에 밤을 이어 진행된 기술협회의회는 해탄로에 원료탄대신 나무를 때면 온도를 보장할수 있다는 합의를 보았다.

물론 이것은 수백년 야금력사에 없는 일이며 더우기 제철소주변에는 나무가 없다는것으로 하여 반대 의견도 제기되였다.

그러나 제철소사택마을을 누비며 두대의 방송차가 달리었는데 거기에서는 눈물에 젖은 방송원들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여러분들도 가마에 넣을것이 없어서 끼니를 건느고있는줄 압니다. 하지만 해탄로에 땀것이 없어서 로가 식어질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나무 한가치도 좋고 두가치도 좋으니 있는대로 해탄로앞에 가져다주십시오...》

그로부터 이틀도 못되어 무려 870립방의 나무산이 해탄로앞에 솟아났다. 그 나무산에는 이불장과 양복장, 칼도마와 당콩대, 지어 3천개에 가까운 방상도 들어있었다.

내가 해탄로로 갈것을 결심한것이 바로 이러한 때였다.

해탄로는 내가 60년대초에 병사배낭을 벗어놓고 첫 로동생활을 시작한곳이다. 하기에 나에게 천리마시대의 도덕문리를 배워주었으며 나를 작가로 키워준 해탄로는 나의 《고향》이였다.

그럼에도 나는 해탄로에 현실체험 나가기를 꺼리었다. 그것은 나의 량심에 티가 있었기때문이었다. 용서를 빌며 터놓고 말하자면 나는 작가양성반을 졸업한후에도 또다시 1~2년은 제철소에서 현실체험을 했다. 그러다보니 13년이나 해탄로앞에서 불덩어리를 다루었는데 이제 또 무슨 체험인가 하는 생각이 불쑥 났던것이다. 하여 나는 작가의 자격으로 취재를 하는데 그쳤던것이다...

그러나 제철소가, 해탄로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키는 《전쟁》마당에서 결사전을 벌리고있는 준엄한 현실은 나를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했던것이다.

마침내 나는 천리마대고조시기에 해탄로앞에서 입던 방열복을 입고 해탄로앞에 나섰다. 준엄한 현실이 바로 작가인 나로 하여금 본연의 자리에 서게 하였던것이다.

바로 이 과정에 나는 붉은기를 어떻게 지키었는가 하는 김철로동계급의 산 모범을 생동한 현실로 받아안게 되었다.

붉은기를 지키는 투쟁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해탄로에 나무를 화입한후 근 한주일동안이나 로의 온도를 유지한후 기름깡치를 취입하여 전보다 더 세찬 불길이 타오르고있었다.

이럴 때 누군가 이상한 소문을 날라왔다.

그것은 해탄로에서 불과 200여미터 상거한 서항부두(해탄로원료탄 하선전용부두)에 어느 한 나라의 지배가 정박하고있었는데 그 배의 갑판란간에서 정체불명의 자들이 쌍안경을 눈에 대고 줄곧 해탄로를 주시해보고있었다는것이였다. (후에 판명된바에 의하면 이자들은 그 배의 선원으로 가장한 남조선피뢰 《안기부》요원들이었다고 한다.)

그때 이놈들은 김철해탄로가 1월 9일이면 불이 죽게 된다고 상전이 《자신있게 말》했는데 어째서 불길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지 그 까닭을 알수 없다고 서울에 전신을 날려보내었다고 한다.

그 내막을 알게 된 김철일군들은 마침내 선언하였다.

《그놈들이 우리 해탄로때문에 몹시 궁급해하는 것 같은데 대답을 주시다. 붉은 기발로 대답을 주시다!》

이것은 김철로동계급의 한결같은 의지였다.

그날밤에 제대군인이며 해탄직장 청년돌격대 대장인 송명철이 수십미터의 1호해탄로 굴뚝우에 올라 대폭의 붉은 기발을 쫓았다. 날이 밝고 해가 솟아오르자 김철로동계급의 강철같은 의지의 상징인 붉은 기발은 눈부시게 휘날렸다.

다음날 그 집배는 황황히 부두를 떠나갔다.

이 일을 계기로 김철당위원회에서는 붉은기를 지키자면 더 많은 붉은기가 있어야 한다는 진리를 포착하고 모든 당조직들에서 붉은기를 만들것을 호소했다.

당위원회의 호소는 즉시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냈

다. 어떤 당원은 붉은기를 만들데 대한 당적분공을 수행하기 위해 며칠분밖에 공급받지 못한 식량마저 서슴없이 바쳤다.

지금도 김철에서는 아침출근을 할 때 사람들의 대오가 공장으로 걸어들어가는것이 아니라 붉은기의 물결이 공장으로 흘러들어가는것 같다. 나도 그 붉은기물결과 더불어 제철소로 흘러들어간다. 이 거창한 철의 대오속에서 당의 작가로서 나는 우리 로동계급의 불타는 충성의 열도를 심장으로 받아안았다.

실로 티없이 맑은 충성심에 기초한 김철로동계급들의 수령결사옹위의 정신이 나로 하여금 더욱 창작적열정으로 끓게 하였다.

대대로 물려오던 소중한 가구와 밥상마저 해탄로의 《연료》로 하면서 로의 온도를 고수한 김철로동계급들은 사장되어있던 기름깡치를 취입함으로써 로의 온도를 900도계선까지 올릴수 있었다. 그러나 콕스를 소성하자면 1,300도이상 보장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산을 하겠는가? 과연 1,300도계선까지 올릴 방도가 없겠는가?

또다시 수십차례의 협의회를 거듭하였으나 신통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오직 한가지, 산소를 동시에 취입하는것이다. 그러나 그 대책을 누구나 선뜻 말하지 못하고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서운 폭발을 전제로 하기때문이었다.

그때 김철 지배인 최현기는 말했다.

《...나도 기름과 산소를 취입하면 큰 폭발이 일어날수 있다는것을 알고있다. 그러나 폭발이 무서워서 그냥 앉아있을수 없다. 만약 폭발이 일어나 우리가 해탄로와 함께 순직하면 력사와 후대는 우리를 잊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이 상태로 앉아몽개다가 해탄로의 불마저 죽으면 우리는 력사와 후대앞에 치욕을 남기게 될것이다!》

그리고는 주저하고있는 기사장앞에 다가가 산소취입지도서를 자기앞에 끄당겨놓고 거기에 수표를 하였다.

산소취입을 시작하기전에 지배인은 해당한 공정에 한사람씩만 남겨놓고 모두 대피할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지배인의 지시대로 대피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 한것은 그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하여,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한몫씩 서슴없이 바쳐 싸울 각오가 철석같았기때문이었다.

산소취입은 진행되었다.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해탄로의 온도는 24시간내에 1,300도로 상승되었다. 그리하여 그동안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련한 원료탄을 장입하였다.

이처럼 간고한 100일간의 결사전으로 남조선피뢰도당이 불이 죽기를 그렇게도 바라던 김철의 해

탄로에서는 더 세찬 불길이 라올랐으며 용광로는 더 거센 숨결을 내어 뿔었다.

나는 바로 이 격동적인 사건을 쓰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나는 준엄하고도 거창한 현실을 어떻게 써야 하겠는지 혼자 모대기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준엄한 시대앞에 작가는 어떻게 살며 창작해야 하는가를 깨우쳐주신분은 바로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6(1997)년 3월 28일 작가들의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여주시고 우리 작가들이 책상머리에서 앉아몽개지말고 《고난의 행군》으로 들끓는 현실속에 뛰어들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있는 영웅적사실들을 가지고 혁명적인 작품을 써낼데 대한 현명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리하여 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담력을 받아안고 중편실화문학 《불은 끝수 없다》를 빠른 시일에 써서 세상에 내놓을수 있었다.

나는 지금도 동맹소설분과와 판독있는 소설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쓰는것이 바로 이번에 장군님께서 작가들의 회의에서 가르쳐주신 사상과의도이라고 하면서 고무해주던 뜨거운 조언을 잊을수없다.

우리 혁명이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던 나날에 제일 앞장에서 강철로 당을 받들어온 그러한 로동계급이기에 오늘도 변함없이 장군님만을 받들어가고 있다.

나는 요즈음 김철2강철직장에서 현실체험을 하면서 직장장 박찬명의 방에 자주 들리곤한다.

20대 청년시기에는 1강철직장에서 용해공을 하였고 이어 청년동맹일군도 하였으며 40대와 50대에 이르는 오늘까지도 역시 강철직장에서 당일군을 거쳐 직장장사업을 하고있는 박찬명이다. 중기에 다부진 체구인데 크지 않은 눈동자는 많은것을 생각하고있으며 말소리는 언제나 신목소리다. 늘 직장을 떠나지 않으니 목소리인들 쉬지 않겠는가.

어느날 한 교대작업반이 로력이 긴장하여 칠보산도로공사에 동원되는 인원수를 좀 조절해달라고 제기했다.

그러자 박찬명직장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벌떡 일어났다.

《반장, 똑똑히 알아두라구. 칠보산도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실 도로야! 장군님을!》

이런 립장에서 박찬명직장장은 김정숙어머님의 고향-회령시를 꾸리는 사업을 비롯하여 살림집건설과 중소형발전소건설, 양어장꾸리기 등 위대한 장군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일이 제기되면 제일 끝끝하고 성실한 장정로력을 내보내고 그자신은 3교대를 이어하면서 생산을 지휘했다.

이렇게 령도자를 숭배하고 조국과 공장을 열렬히 사랑하는 인간일수록 자기가 데리고 일하는 로동자들도 뜨겁게 사랑한다는것을 나는 2강철직장 강편조작공으로 일하던 나의 딸이 순직하였을 때 누구보다 가슴아파하던 그의 동지적의리심에서 더 잘 알게 되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일을 잘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공장, 협동농장, 시, 군, 도들이 많다. 여기에는 반드시 수령관이 투철한 일군들이 앞장에 서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그것을 《고난의 행군》 시기에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해탄로를 고수하는데 나무가 필요하다고 방송차의 방송원들이 눈물겨운 호소를 하였을 때 압연분공장 구내길에서 한 로동자가 가로수를 찍고있었다. 그것을 2강철 초급당선전부비서 리원철이 목격하고 달려갔으나 이미 나무는 기울어지고있었다.

리원철이 그 로동자의 목살을 움켜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웨쳤다.

《너는 어느 직장에 있니? 이 나무가 어떤 나무라고 여기에 도끼날을 대느냐? 잉?!》

아버이수령님께서 이 구내길을 걸으시면서 구내길에 나무를 심으니 참 좋다고 하시었다. 어느때든 우리 장군님께서 이 구내길에 오실지 아느냐. 이, 이놈아, 당장 나무를 그대로 붙여놔라. 살려놓으란 말이다! 이 배은망덕한놈아!》

그 로동자는 넘어진 가로수에 눈물을 떨구며 사죄했다.

《부비서동지,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도 어제 부억바닥널마루까지 걸어가지고 해탄로에 갔었는데 밥상이나 부억널마루 같은건 새발에 피입니다. 그런데 해탄로엔 계속 나무를 요구하지... 그래 생각하던 끝에 그만... 부비서동지, 제 오늘밤중으로 이와 똑같은 나무를 떠다 심어놓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김철의 구내길을 수없이 걸었다. 60년대와 70년대초에는 교대작업을 나가느라고 걸었고 지금은 현실체험을 위해 걸고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공장구내가 정결하고 웅장하게 꾸려진적은 일찌기 없었다. 제철소는 천을 짜거나 정밀기계를 만드는 공장이 아니기때문에 아무리 청소를 하여도 구내가 늘 연재가루, 쇠가루에 덮여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지금 김철구내의 사령실이나 작업반휴게실 그 어디에나 《위대한 장군님을 모실수 있게 언제나 준비하자!》라는 구호를 써붙이고 기대설비들은 물론이고 구내길과 마당을 깨끗이 포장하고 하얀 수재를 깔고 나무를 심고 구호판을 도색하였으며 조금만 먼지가 앉으면 또 도색을 한다.

눈부시게 깨끗한 제철소의 구내길을 걸으며 건물들을 볼 때마다 나는 2강철 초급당선전부비서 리원

철과 같은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어있는 티없이 맑은 충성심을 생각하군한다.

더더구나 최근에 김철에서 일어난 전환은 나로하여금 작가의 사명을 더 깊이 깨우쳐주며 창작을 더욱 분발케 하고 있다.

해탄로를 고수한 그 다음해에도 김철의 사정은 여전히 긴장하였다. 원료가 우선 긴장하였고 전력사정이 극도에 달하였다. 이런 형편에서 할수없이 김철을 세우게 된다는 소문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도와 중앙에서 사람들이 내려와 료해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자 제철소 구내와 사택마을이 벌둥지를 쭈서 놓은것처럼 웅성거렸다.

《우리 공장을 세운다는구만, 끝내...》

《뭐? 제철소를 돌릴 방도를 찾겠지...》

《그건 나쁜놈들이 퍼뜨린 소리야.》

(...김철을 세우다니? 이 공장이 어떤 공장이기에 세운단 말인가?...)

나도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나 역시 김철의 로동계급처럼 그 소문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후에는 또 《합영소문》이 돌아갔다.

제철소를 한주일동안이나 료해한 《합영 그루빠》는 그만하면 합영해볼만한 공장이라는 립장을 표명하였다고 한다. 후에 알려진바에 의하면 공장이 깨끗하고 설비관리를 잘한것을 두고 크게 감동되었다는것이다. 이번 《합영그루빠》에 망라된 로씨야의 한 기술자는 이전 쏘련이 붕괴되기전인 60년대 후반기와 70년대초 기술일군으로 김철압연분공장계통건설부터 조업까지 관여하였다고 한다. 그는 이번에 압연분공장계통을 돌아보면서 나는 조선이 《봉쇄》속에서 시련을 겪으면서 공장이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기에 김철의 압연분공장의 설비들이 다 녹이 쏘고 폐기되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와보고 놀랐다. 모든 설비들은 조업을 할 때와 똑같이 보존되어있었으며 잘 관리되었다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그러니 그들이 정식 합영을 제기해오지 않을수 없다.

《합영그루빠》는 1차료해니, 2차료해니 하면서 적지 않은 기간을 머물러있었는데 그들은 면담과정에 현대산업의 자동화추세를 내걸고 로동자는 물론 기업소의 관리체제와 그 성원들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합의를 보지 못한채 몇달이 지나간 지난해 3월이었다.

3월 27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북변땅 함경북도에 몸소 오시였다. 그이께서는 멀고 험한 길의 로고도 푸실사이 없이 친히 도내 금속공업부문 일군협의회를 여시고 김책제철소 지배인과 책임일군들을 부르시였다.

벌써 지난해에 성진제강소를 비롯한 나라의 금속공업부문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이 부분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최근에도 반사회주의세력들은 합영의 간판을 걸고 큰 공장을 하나하나 먹어들어가는 방법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붕괴하려고 한다고 깨우쳐주시면서 금속공업부문 로동계급은 혁명의 핵심부대로서 강성대국건설의 전초병, 개척자, 밀뿌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김철의 로동계급은 전후 가장 어려웠던 천리마대고조시기에 공청능력을 깃부시고 수십만톤을 더 생산하여 우리 당을 만든 영웅적로동계급이라는 값높은 칭호를 주시고 김책제철소가 나라의 생명선으로서 하루빨리 설비를 현대화하여 생산을 정상화할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막대한 자금을 보내주시는 뜨거운 배려와 신임을 안겨주시였다.

그러시고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변동된 로력실태를 료해하시고 3,000명의 끝끝한 제대군인들모두에게 조선로동당원의 영예와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주시고 제대증이 아니라 파견장을 수여하여 김책제철소로 보내주시였다.

그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이 평양에서부터 김철까지 열렬한 환영을 받도록 해주시였으며 도착하자마자 아무런 불편도 없이 나라의 전초병, 개척자로서 모든것을 다할수 있게 보장해줄데 대한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나는 감동적인 현실을 그저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나는 《제대군인환영벽시전시회》를 조직하기로 결심하였다.

하지만 일은 첫걸음부터 풀리지 않았다. 것처럼 강력하던, 수많은 작가들을 배출한 김철문화소조는 운영되지 못하지 오래이며 전도가 양양하던 일부 문학소조원들은 문학창작과 먼 거리에 있었다.

이럴 때 나를 도와준것은 역시 당조직이었다.

김철당위원회에서는 흩어진 문학소조원들 20여명을 모두 모이게 했고 도작가동맹 초급당에서는 출장갔던 시인들까지 불러오게 하였다.

마침내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3천명 제대군인이 도착하는 날 사상예술성이 높은 30여편의 벽시를 김철로동자합숙뜨락에 전시할수있었다.

수많은 제대군인들이 그 벽시를 수첩에 적어넣었으며 제대휴가를 미루고 배치받은 새 일터로 달려들어갔다.

한편 김철의 각 직장, 청진시내의 각 기업소들에서 김철로동자합숙(일명 《3천명합숙》이라고도 한다.)에 달려와 호실들을 꾸리였다.

김철책임비서 리하준은 자기 집에서 보던 천연색

텔레비죤수상기, 책상, 의자, 지어 어항이며 딸 시집보낼 때 주려던 레장감까지 죄다 들고나와 합숙의 옷보로 쓰도록 하였다.

지금 3천명제대군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나이론이불을 덮고자며 그이께서 보내주신 콩기름을 먹고 일하고있다. 얼마전에는 그들이 장가갈 때 입을 고급양복과 와이샤쯔, 지어 고급모포와 세탁비누까지 배려해주시였다.

(나는 그 3천명제대군인들중의 한사람을 사위로 삼았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시기에 제대군인들이 알뜰하게 꾸려진 합숙에서 살고 일하고있으며 한쪽에서는 그들이 살 2천세대의 살림집이 빠른 속도로 일떠서고있다.

그러니 김철의 생산이 어찌 정상화되지 않겠는가. 지금 선철과 강철, 소결광, 압연강재생산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비해 2배로, 콕스생산은 2.5배로 정상화되였다.

나는 이처럼 전변된 김철의 구내길을 걸어가기 즐거웠다. 그러다가 신분증도 보이지 않고 불쑥 해

탄이나 2강철직장 마당에 들어서면

《아, <불은 끝수 없다 아바이>구만요. 어서 오시우. 마침 점심시간인데 식당에 가서 국수나 한그릇 합시다. 허물하지 마시구.》하고 모두들 반겨맞아 준다.

나는 이것이 내가 한생에 받은 표창중에서 가장 크고 값높은 표창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김철을 사랑한다. 평양이나 우산장에서든, 그 어디에서도 김철을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 이러한 감정을 안고 나는 지금 두번째 《불은 끝수 없다》를 쓰고 있다.

나는 작가는 량심을 가지고 시대의 명작을 써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김철로동계급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체험하며 쓰겠다.

그리하여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서의 사명을 다할것을 굳게 결의한다.

이 길은

최광일

곧게만 곧게만
뻗어 갔구나
청춘로반
평양-남포고속도로는

걸음도 가벼이
마음도 가벼이
네 입구에 들어서서 이 순간
깊어지는 생각이여

시원히 뻗어 간 이 길우에
청춘, 그대들이 흘린
땀과 더운 피가
자욱자욱 스며있어
무겁게 옮겨지는 내 마음의 자욱아

말해다오 길이어
어려워도 어려워도
곧게만 뚫고가야
인생의 곧음도 잃지 않기
고난많은 조국도 나아가기에
산악도 허물고 강도 메우며
에돌지 아니한 위훈이어

홀렁이는 혁미를 의지로 조여 매고
휘여지는 목고채에 어깨를 깊이 대며
힘겹게 실리는 무게로
조국의 크나큰 짐을 털어준 그들을
너는 소중히 새겨안지 않았더냐

이 길을 끝까지 열어가야 했기에
굴러내리는 바위에 한몸을 던져
동지들을 구원한 처녀를 못잊어
사나이들 주먹으로 흠치던 눈물을
너는 어느 갈피에 간직했느냐

오 길이어
한치한치 가슴으로 열어난 이 길이
자연과의 투쟁만이 아니여서
너는 더더욱 귀중하구나

이 길은
시련의 날
어머니조국과 함께
땀땀이 걸어 간
이 나라 아들딸들의 곧고곧은
마음의 길이어라!

《봉쇄》와 처녀들

리광숙

《봉쇄》-우리는 그 말을
생활에서 쓰지 않았다
책에서만 때로 읽었던
그 낯선 말이
우리의 생활에 깃들려 하였다

원썬들은 바랬다
우리의 두볼에 미소는 사라지고
슬픔과 한숨만이 깃들기를
우리의 살결은 거뭇게 타고
반짝이던 구두엔 먼지가 쌓이기를

원썬들은 바랬다
우리의 맑은 눈동자에 눈물이 고이기를
출근길에 넘치던 웃음소리 잦아들고
기대에는 일감이 모자라
매일 넘쳐하던 계획을 미달하기를
우리들의 싱싱한 아름다움을 말리우려 했다

그래서 그래서
원썬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쌓으며
우리의 처녀시절은 더욱 꽃피고 있다
바람세찬 《봉쇄》의 들판에
싱싱한 꽃들은 꺾이지 않았다
드넓은 이 땅을 붉은기의 색조로 고이 물들이며
지혜로운 처녀들이 살고 있다

행복한 날에 지어 입은 옷
구김살 없이 다리여 입고
기분 좋게 땀 흘릴 일감은 적어도
기대를 알뜰살뜰 닦으며 살았다

좋은날보다 더 크게 웃으며

두터운 《봉쇄》의 검은 구름도
꽃송이같은 그 얼굴들에 피어난
그 웃음만은 지우지 못했거니

거짓도 요령도 허영도 없는
다함없이 청신한 우리들의 모습에
이 땅은 눈부시여라
제국주의 《봉쇄》의 격전을 지나서
강행군 승리의 노을이 비껴 오고있다

이 땅의 밝음에 그늘을 던지려는
준엄한 《봉쇄》를
꽃피는 우리의 모습으로 이기며
고난의 오늘에
장군님의 딸들은 더더욱 아름다워졌다
장군님과 정이 더 깊어졌다

《봉쇄》를 헤쳐가는
우리의 힘은 진하지 않았다
꽃은 어떻게 망울지고 피어나는가를
장군님의 딸들은 세상에 보여주었다

이 땅을 《봉쇄》의 그물로 뒤덮는대도
우리의 처녀시절 붉은기와 함께 꽃피고
처녀들의 밝은 웃음
사회주의 신념만은
뺏지도 지울수도 없나니

아 조선처녀 우리는
시련속에서 더욱더 아름다워지며
고난을 박차고 청춘의 향기 뿌리며
이 땅에 삶의 뿌리 더 깊이 내리었다
태양의 꽃으로 더 아름답다

동생의 부락

장은하

진정으로 가는가
시집을 안가겠다던 그 다짐은
어디에 버리고
누이는 가는가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였고
우리 가정의 꽃이였고 등불이었던
아버지 어머니 몰래 욕먹을짓도 함께 하며
웃고 떠들던 그밤도

이제는 다 지나갔구나

명절이면 우리 3형제
준비하던 자작공연도
환한 등불아래 늘이던 오색테프도
이제 더는 보지 못하는가

진정으로 보내야 하나
나의 살점과도 같은

아버지의 한생이 어리고
어머니의 육체가 비껴
저토록 아름다워진 누이를
진정 보내야 한단 말인가

누구나 한번은 의례히 겪을 일이건만
누이가 간다 하니 울적한 이 마음
무어라 말할수 없구나

허나 나는 막지 않으리
마음은 비록 허전해도
행복을 찾아가는 누이를 막지 않으리

우리 가정에 향기를 더해주고

생활의 꽃을 피워 주던 나의 누이야
이웃들과 동무들의 사랑속에
언제나 웃음났던 누이야
떠밀지는 못하고
발목을 붙잡는 이 동생을 용서해다오

그리고 부탁하오
시집을 가서도
부디 꺼지지 않는 생활의 등불로
새 가정의 창가를 밝게 비쳐다오

그리고 남겨다오
더 아름다운 또하나 생활의 꽃밭을
더 밝은 또하나의 가정을
그리고 받아다오 이 동생의 축복을!

품자시

《상봉》

홍철진

《푸에블로》 호가
《서면》 호와
《상봉》을 했소
대동강기슭의
격침비앞에서
어허, 뜻깊은 《상봉》을 했소

물밑에선
물귀신된 《서면》 호가
소리쳐 부르고
물우에선 《푸에블로》 호가
눈굽을 흘치며 화답을 하오
《애야-》
《할아버지-》

뉘 알겠소
기슭에 떠있는
저 흰거품
물속에서 백년나마
기르고기른
《서면할아버지》의
오리오리 백발인줄

그 사연많은 백발로
《할아버지》는 《손자》를
힘껏 껴안았소
미국땅 통채로
끌어안은 심정으로
《손자》를 그리안고
놓지를 못하오

-용케도 왔구나

바다에서 강으로
강아지처럼 끌려오자니
고생인들 오죽했겠니?
-고생이라니요?
할아버지가 세운
표식비를 보고
《訃》을 따라왔는데요 뭐
-그래 이 격침비가
바다에서두 보이더란 말이지
-그럼요
태평양 한끝에서두 보이는걸요
지금 다들 이 표식비를 보고
달려오고있는중이에요

흐뭇하다 《서면》 호
대동강 물귀신으로
백삼십년나마
산 보람이 있다
아무렴, 아메리카가
제 조상을 잊을라구?

오늘은 《푸에블로》 호가
품에 안기고
래일은 아메리카가
통채로 품에 안길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절통해
《서면》 호는 노상 우거지상이요
이 기슭에서 철썩-
저 기슭에서 처절썩-
저승에서 다시 만난다는것이
이런걸 두고 한 말이 아니겠소

단편소설

누이의 목소리

김교섭

저녁무렵이었다. 도인민병원 외과과장 김죽희가 퇴근차비를 마치고 방금 의사실을 나서려는데 구급실간호원이 달려와 응급인민병원에서 승용차를 보내왔다고 알려주었다.

도소재지에서 30리나 떨어져있는 군병원에서 갑자기 어려운 수술이 제기되어 그의 방조를 청한것이다. 김죽희는 자기한테서 시간을 다투는 긴장한 수술은 대체로 퇴근무렵이 아니면 퇴근후에 제기되는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위생복을 꺼내어 외출복우에 덧쳐입었다.

그는 손자까지 두고있는 할머니였지만 절제있는 섭생으로 하여 풍채가 좋고 나이에 비해 늙어보이지 않았다.

파란 뺨끼칠을 한 병원문밖에서 적십자표식을 단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김죽희는 자기처럼 위생복을 입은 젊은 간호원이 승용차뒤문을 잡고 초조한 기색으로 서있는것을 보았다.

《동무가 나를 데리러 왔는가요?》

《네.》

김죽희는 다년간 응급병원에 내려가 여러차례 방조를 주었다. 그에게 방조를 청할 때마다 오랜 지기인 기술부원장이 직접 데리러 오거나 환자상태를 립상학적으로 설명해줄수 있는 의사가 오곤했었다.

그런데 오늘은 처음 보는 애젊은 간호원이었다.

김죽희는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간호원을 보내준 병원측의 경솔한 처사를 불만스럽게 여기며 승용차에 올랐다. 뒤좌석에는 얼굴이 까맣게 탄 50대의 사나이가 두손을 무릎짚에 끼우고 웅색스럽게 앉아있었다. 녀의사가 나타나자 사나이는 다소 어쭙은 미소를 짓더니 차지붕에 머리를 쿵 췌으며 깎듯이 인사했다.

김죽희는 운전사와의 안면으로 승용차를 얻어타고 가는, 자기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일것이라 생각하며 그에게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사람들의 왕래가 번잡한 도시를 벗어날 때까지 김죽희는 침묵을 지키었다.

승용차가 무연한 논밭을 꿰치르고 지나간 포장도로에 들어서자 그는 사나이옆에 앉아있는 간호원에게 물었다.

《어떤 환자인가요?》

그러자 녀인들사이에 앉아있던 사나이가 강한 남도지방의 억양으로 말을 꺼냈다.

《선생님, 제가 말씀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죽희는 비로소 이 사나이가 간호원이 데리고 온 환자의 동무이거나 친척되는 사람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녀의사가 고개를 끄덕여보이자 사나이는 긴장해지며 굳어진 어조로 떠듬떠듬 말했다.

남조선배가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하다가 풍랑을 만났다. 파도에 조타실이 파손되면서 한 선원이 그 밑에 깔리워 다리를 크게 다치였다.

이틀동안이나 바다우에서 표류하던 고기배는 근처에서 고기잡이하던 공화국북반부 어선에 의하여 구원되었다. 2시간전에 배들은 부두에 닿았다.

환자는 병원으로 실려가고 선원 한사람이 간호원과 함께 도병원으로 급히 달려왔던것이다.

《아, 남조선에서 온?... 차를 좀 세워주세요.》

놀란 김죽희는 사나이쪽으로 돌아앉으며 그의 손목을 뜨겁게 그러쥐었다.

《내 일생에 남녘동포의 손을 잡아보기는 두번째이지만 이렇게 가까이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어보기는 처음이에요. 정말 반가워요!》

녀의사한테 손을 내밀긴 사나이는 황송해하며 눈두덩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승용차는 가로수밑에서 스르르 멈춰섰다.

감격의 몇순간이 지나가자 김죽희는 드디어 침착한 목소리로 다친 사람은 또 없는가고 물었다.

그는 없다고 대답했다.

《그만해도 다행이지. 배가 침몰되었으면 어쩔뻔했겠나요.》

김죽희는 가볍게 몸서리치며 혼자소리로 중얼거리고나서 다시 물었다.

《집에서들은 소식을 알고있겠지요?》

《모르고있을거우다. 모두 바다귀신이 되었다고 생각할테지요.》

《저런, 녀자들은 속이 까맣게 탔을테지. 아이들은 또 아버지를 찾으며 얼마나 울었겠나.》

녀의사는 눈물이 글썽해지며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러자 선원은 녀의사의 손을 더욱 힘주어 움

켜줘며 부르짖었다.

《나는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만나자 긴장이 순식간에 풀렸수다.》

선원이 무슨 일때문에 긴장해하였는지 알수 없었지만 김죽희는 시간이 매우 급하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승용차를 도중에서 멈춰세운 자신의 성급한 행동을 후회하며 운전사에게 빨리 떠나자고 일렀다.

《그래, 환자는 어떻게 되었다구요?》

승용차가 떠나자 김죽희는 자세를 바로 가지고 앉으며 물었다.

선원은 환자가 피를 많이 흘렸으며 이틀동안이나 처치받지 못해 상처가 더욱 나빠진것 같다고 자기 나름의 견해를 말했다.

의사가 이런것도 알고 있으면 수술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환자의 가정래력까지 이야기했다.

환자의 이름은 김우범, 고향은 전라북도 김제군 석동리였다. 일찍부터 고아로 자란난 그에게 혈육이란 전쟁때 북으로 떠나간 누이 하나뿐이었다.

누이 이름은 김외양녀라고 했다.

《우범이는 누이 얼굴을 모릅니다. 어렸을 때 자기를 안아주던 생각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누이를 잊지 못해합지요.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하다가 분계선상에서 배를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걸음만 들어서면 북반부 바다인데 들어설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면 우범이는 갑판에 나가 북녘하늘을 향하여 목이 터지게 누이이름을 부르곤했수다.》

선원의 목소리는 떨리더니 여기서 푹 끊어지고 말았다. 그는 별스레 몸을 꿈지럭거리더니 갑자기 승용차좌석의 좁은 짬에 무릎을 꿇고앉으며 녀의사의 발등에 이마가 닿도록 절을 하였다.

《우범이를 살려주시오. 불쌍한 그를 살려주시오.》

《이러지 말아요.》

김죽희는 사나이를 붙들여 자리에 앉혀주며 자신으로서도 알수 없는 그 어떤 울분을 느끼며 말했다.

《그는 죽어서는 안돼요. 어머니가 없는 사람한테는 누이가 어머니맛잡이예요. 누이도 만나보지 못하고 죽다니. 누이가 살고있는 땅에 와서 죽을수 없어요.》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두손을 깎지끼여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눈을 내리감았다.

30여년전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서 첫 수술을 준비하던 때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내가 흥분했구나.)

어려운 수술을 앞두고 흥분하는것은 금물이였다.

그는 병원에 도착하기전까지 흥분을 누갯혀보려고 일체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눈앞에서는 보지도 못한 환자의 얼굴이 집요하게 어른거렸다.

어느덧 승용차는 숲변두리에 자리잡고있는 병원에 도착했다.

군병원 기술부원장이 밖에 나와 기다리고있었다.

김죽희와 동년배인 그는 거의나 승배에 가까운 존경심을 가지고 녀의사를 맞이했다.

《빨리 환자를 만나봅시다.》

김죽희는 승용차가 완전히 멈춰서기도전에 뛰어 내리며 서둘렀다. 기술부원장은 방금전에 환자를 수술실로 옮겨갔기때문에 만나볼수 없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한발 늦었구나.) 지난 시기에다 시간이 급한 나머지 환자를 만나보지 못하고 수술실로 곧장 안내된적이 한두번만 아니였다. 하지만 김죽희는 뜻밖에 놀라운 일을 당한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환자는 자기가 지금 어느곳에 와있는지 알고있는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김죽희는 심각하게 말했다.

기술부원장은 부두에 달려나가 구급대책을 취하고 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복새통에 그 문제만은 알아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그가 무슨 말이라도 했을텐데 들은 소리가 없는가요?》

《환자는 세번 물을 찾았습니다. 수술장으로 들어갈 때 <누님.>하고 부르는 소리를 얼핏 들은것 같습니다.》

《됐어요!》

김죽희는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환자가 누이를 불렀다면 자신이 지금 공화국북반부땅에 들어와있다는것을 알고있음을 말해주었다.

자신이 어느곳에 와있는가를 아는것이 환자한테는 수술보다 더 급한 문제라고 김죽희에게는 생각되었다.

《수술실로 갑시다.》

어느덧 마음을 가라앉힌 녀의사는 복도로 걸어가면서 손가락에 낀 반지를 뽑아 건사했다.

그의 행동에서는 믿음직한 침착성과 드림없는 결단성이 느껴지였다.

2

부서진 다리뼈조각을 끄집어내고 혈관을 잇는 긴장한 수술은 무려 3시간이나 걸렸다.

의사실로 돌아온 김죽희는 쓰러지듯 팔걸이의자에 앉았다.

물먹은 숨처럼 온몸이 나른해지며 밑으로 잦아드는 것 같았다.

김죽희는 자기가 오늘 수술에서 최대의 정신력과 힘을 발휘하였음을 깨달았다.

의사실로 따라들어온 너의사들과 간호원들이 달려들어 그의 잔등을 두드려주고 팔다리를 주물려주었다.

《환자는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가요?》

김죽희는 누구에게라 없이 물었다.

그의 어깨를 주물려주던 의사가 환자는 병실로 옮겨가자 신음소리를 그만두었다고 대답했다.

《환자가 신음할 때면 혈관속에서 흐르던 피마저 얼어드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도 아팠을까? 어때요, 상처의 아픔이 가져다주는 신음소리였을가요?》 김죽희는 하얀 수건으로 가리워놓은 환자의 얼굴쪽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던 일을 생각하며 물었다. 질문하는 그의 목소리에 신음소리같은 음조가 비껴있어 의사들은 놀라운 눈길로 마주보며 대답을 못했다.

그때 기술부원장이 의사실로 들어오더니 김죽희 곁으로 미끄러지듯 다가갔다.

《떠나시려면... 지금 차를 준비했습니다.》

김죽희가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일이 끝나면 곧 떠날 수 있게 차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해두었는데 수술이 끝나자 기술부원장은 직접 직일실에 가서 알아보고 왔던 것이다.

맥을 놓고 팔걸이의자에 앉아있던 그는 졸지에 놀라며 일어섰다. 영문모를 일이었지만 그는 오늘 몇번째 놀라는지 모른다.

《저를 환자한테 안내해주세요.》

김죽희가 요구하자 그를 너무 혹사시켜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해하던 기술부원장은 황급히 막아나섰다.

《밤도 깊었고 지치었는데 그냥 떠나주십시오.》

《그를 만나보지 않고 떠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가 어떤 환자인가요? 남녘땅에서 들어온 사람이 아닌가요. 막지 마세요.》

그가 단호하게 요구하자 누구도 막아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를 선원이 있는 병실로 안내했다. 김죽희는 팔에다 수혈주사바늘을 꽂고 첫번째 침대에 누워있는 사십대의 사나이가 수술환자임을 알아보았다. 피를 얼구는 듯한 신음소리를 지르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질고 순박해보였다.

누군가 침대곁에 의자를 가져다놓자 김죽희는 거기에 앉았다. 환자가 덮고있는 모포를 벗기고 봉대감은 다리로부터 시작하여 팔고루 쓸어만지며 올라가다가 얼굴에서 손을 멈춘 김죽희는 상태가 대단히 나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의식을 잃은 환자는 죽은 사람처럼 숨소리도 없

이 고요히 누워있었다. 환자의 이 모습을 멀리 남쪽에 있는 그의 안해나 북반부에 있는 그의 누이가 보게 된다면?

김죽희의 눈앞에는 환자를 불안고 통곡하는 녀인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환자를 불러보았습니까?》

김죽희는 눈앞에 떠오른 어지러운 환영을 지워버리려고 애쓰며 날카롭게 물었다.

곁에 바싹 붙어 환자상태를 말해주던 직일의사는 아무리 불러도 환자가 반응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대로 방임해두면 피를 많이 흘린 환자의 심장은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멎어버릴 수 있었다.

(내가 들리기를 잘했지.)

김죽희는 환자가 의식을 차리는 것을 보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처럼 깊은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를 소생시키는 방법을 알고있었다.

《김우범이라 했던가?》

이렇게 중얼거린 김죽희는 수혈을 중지하라고 일렀다.

환자의 혈관에 꽂은 주사바늘을 뽑고 고무줄을 치워버렸다.

김죽희는 랑쪽 팔소매를 한 번씩 접어올린 다음 대수술을 받은 환자라는 사정은 조금도 보지 않고 주먹으로 환자의 심장에 두어번 강한 충격을 주었다.

《우범이, 우범이-》

환자는 기척이 없었다. 녀의사는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이번에는 환자의 목을 그러안으며 세차게 불을 비비었다.

《우범아, 눈을 뜨거라. 어서. 누이가 왔다. 응. 어서, 눈을 떠야 살아.》

그의 행동은 의사라기보다 사경에 처한 혈육을 불안고있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몸부림이었다.

환자는 눈을 떴다. 풀어진 눈으로 앞을 보았으나 자기 목을 역세게 그러안고있는 녀의사를 보지 못한채 스스로 눈을 감아버렸다.

그때 환자의 발치에 서있던 선원이 침대머리쪽으로 비집고 나왔다.

《이자식아, 정신차려라. 누님이 왔어.》

그는 환자의 가슴을 치려던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팡팡 두드리었다.

선원의 웨침소리는 그의 가슴속에 런던의 정을 모닥불처럼 확 지펴올리었다. 그는 더욱 세차게 그러안으며 환자의 창백한 불을 비비었다.

《그래, 내가 왔다. 석동리에서 떠난 누이가 왔다. 우범아, 눈을 뜨라는데두. 눈을 떠야 누이를 볼게 아니냐.》

우범이는 다시 눈을 떴다. 초점없이 허둥거리던 눈길은 드디어 자기 목을 그러안고있는 녀의사의 얼굴에 멎었다. 김죽희는 그 눈길을 놓아주지 않

면서 환자의 얼굴에 뜨거운 숨결을 끼었으며 말했다.

《우범아, 내가 외양녀이다. 네가 가슴속에 피멍이 들도록 기다려온 누이가 네곁에 왔다!》

환자는 안타까이 살먹을 몇번 꿈틀거렸으나 끝내 말을 꺼내지 못했다. 다만 두눈에서 수은처럼 무거워보이는 눈물이 불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녀의사의 가슴속에서도 급기야 오열이 솟구쳐올랐다. 오래동안 물어보지 못한 그였지만 자꾸 눈물이 솟아나왔다.

두사람은 말없이 마주보며 눈물을 흘리었다.

이윽고 김죽희는 어린애처럼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환자의 머리를 베개우에 내려놓았다.

급격한 감동의 파도가 지나가자 그는 저도 모르게 비칠거렸다. 직일외사의 부축을 받으며 의자에 앉은 그는 목갈린 소리로 중얼거렸다.

《어쩐지 마음이 자꾸 끌리더니...손을 이리 다오.》

환자는 부들부들 떨며 손을 내밀었다.

녀의사는 환자의 손목을 끌어당겨 가슴에 꼭 눌러대며 별에 탄 손등에 뜨거운 눈물을 떨구었다.

3

김죽희는 법정에 나가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렌트겐실 의사를 기다리고있었다. 우범의 다리를 촬영한 필름을 가져오기로한 의사는 약속시간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는다.

혈육의 정에 이끌려 환자의 누이가 되어버린 김죽희는 아예 군병원으로 내려와 그의 치료를 맡아나섰다.

뜻밖에도 누이를 찾게 된 우범이는 빨리 원기를 회복하였다.

김죽희는 될수록 그와 오랜 이야기를 피했다.

이야기할 자신도 없었지만 우범의 상처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가고있어 자나깨나 치료문제를 모색하느라 실상 이야기를 나눌 짬이 없었던것이다.

그동안 2차수술을 진행하였고 여러가지 치료방법도 진공적으로 들이대였으나 별반 효과가 없었다.

나들문이 열리더니 렌트겐실의사가 아니라 근엄한 표정을 한 기술부원장이 필름을 들고 들어왔다. 말없이 필름을 넘겨받은 김죽희는 손이 떨리는것을 느끼며 창문쪽에 대고 필름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입에서는 부지중 《절단.》하고 신음소리같은 부르짖음이 새어나왔다.

《인차 손을 씻어도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것입니다. 환자는 아무런 처치도 받지 못한채 바다우에서 떠다니었으니까요. 병원에 실려왔을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기술부원장은 난감해하며 그를 위로했다.

(우범이를 불구로 만들다니.)

누이를 만나고보니 막막해보이던 조국통일이 다된것 같다고 그리도 기뻐하던 우범이었다.

나라가 통일되면 그날로 달려와서 누이를 업고 몇천리를 걸어서라도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였다. 그런 사람을 한쪽다리가 없는 불구자로 만들어야하는것이다.

김죽희는 심장이 비틀리우는것처럼 아파났다.

기술부원장은 컴컴하게 질린 그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며 죄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내가 절단수술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는 김죽희의 참가없이 진행한 의사협의회에서 결정했다고 조심스럽게 알려 주었다.

김죽희는 병원측의 요구를 대변하고있는 기술부원장의 마음을 잘 알고있었다. 그가 환자곁에서 떠나기 쉬울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것이다.

(이제라도 동생이 아니라는것을 말하고 떠나가 버리면 어떨가?)

문득 김죽희의 눈앞에는 아이적에 두편으로 갈라달리기를 하던 때 일이 떠올랐다.

한편이 《조국》하고 웨치면 저쪽편은 《통일》하면서 거리로 달리군하였다. 자기도 남들처럼 기차를 타도 《조국통일》호를 타고싶었고 러객선을 타도 《통일》호 러객선을 타군했었다.

어느 해인가 남조선에서 큰물피해가 났을 때 흰쌀을 비롯하여 막대한 원호물자를 보내던 일도 떠올랐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집없이 한지에 나앉은 남녘동포들을 생각하며 부두로 달려나가 원호물자를 실는 일을 도와 주었다.

쌀 한알이라도 젖을가보아 자기 옷을 벗어 쌀포대와 세멘트포대를 덮어주며 밤을 새우지 않았던가.

그처럼 나라의 통일을 갈망해왔고 통일위업에 한몸 바치고싶었던 자기가 오늘은 불구의 운명을 지닌 남녘동포의 곁에서 떠나다니.

《아니예요. 우범이는 내 동생입니다. 부인할수없는 동생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해요!》

김죽희가 어쩌나 절절하게 말했던지 기술부원장은 설복할 생각을 그만두고 물러섰다.

방안에 혼자 남은 김죽희는 다시 필름을 잔잔하게 들여다보았다. 다시 검토해보았으나 틀림없는 절단이었다.

《내 정성이 부족한탓이지.》

1차수술을 한것도 자기였고 2차수술을 한것도 자기였다. 의사들은 상처가 악화된 원인을 환자가 바다우에서 지체한데서 찾고있지만 집도자인 내가 부주의한탓으로 상처가 악화되었는지도 모르는것이다.

그때 간호원이 달려와 김우범아저씨가 선생님을 만나러 온다고 알려주었다.

무거운 생각에 짓눌려있던 김죽희는 자세를 바로 가지며 간호원을 꾸짖었다.

《부축해주어야 하는 환자를 혼자 두고 오면 되겠나요?》

《부축하는것이 다 됩니까? 그는 자기곁에 누구

도...》

간호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쌍지팽이에 몸을 의지한 우범이가 땀을 뚝뚝 흘리며 문지방우에 나타났다.

김죽희는 달려가 부축해주고싶었지만 극도로 흥분한 우범의 얼굴에서 누구도 접근시키지 않으려는 독한 마음이 느껴져서 감히 다가갈수 없었다.

《무슨 일인가? 동생.》

김죽희가 물었다.

우범이는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말을 못했다.

《무슨 말인지 어서 하라구.》

《다리를 잘라주시우.》

우범이는 흐려진 눈으로 그를 스쳐보며 말했다.

《저때문에 속을 썩이지 말아주시우. 누님도 시름을 놓으시고 선생님들도 시름을 아예 놓게 다리를 자르겠수다.》

《동생까지 그러면 나는 손맥이 풀려 어떻게 일을 하겠나.》

김죽희는 안타까운 나머지 손으로 책상을 탁 쳤다.

우범이는 천천히 머리를 떨구었다. 날이 갈수록 그는 부드러운 손길만이 아닌 다심한 그 마음에서 혈육의 정이 가슴그득히 안겨왔다. 하지만 언제인가는 살뜰한 누님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웅이처럼 가슴에 맺혀 내려가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기술부원장한테서 누이가 가망없는 동생의 다리를 불안고 밤잠도 못자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자 우범은 모진 결심을 내리고말았다.

헌데 수척해지고 눈에 피발이 선 누이와 마주서게 되자 저도 모르게련민의 정이 앞서 다리를 잘라달라고 했던것이다.

《누님, 나때문에 너무 속을 쓰지 말아요.》

우범이는 그를 감히 마주보지 못하고 실성한 사람처럼 제 말만 되풀이했다.

말없이 한동안 우범이를 지켜보던 김죽희는 다가가서 그를 부축해주었다.

《동생은 나와 함께 있자구.》

그는 자기가 사용하고있는 침대로 우범이를 이끌어 갔다.

《오늘부터 나와 함께 이 방에 있자구. 혼자 두었더니 동생은 마음이 약해졌어. 나도 동생과 함께 있으면 마음을 다잡을수 있을것 같애. 저쪽에다 내 침대를 하나 더 들여놓게 하지.》

부목을 댄 다리를 침대우에 뻗치고 기진해버린 자세로 앉아있던 우범이는 어디가 쿵 찢리우기라도 한듯 몸을 흠칫 떨었다. 그는 황급히 쌍지팽이를 거드랑이밑에 끼며 일어섰다.

그가 한사코 달래었으나 우범이는 끝내 고집을 부리며 쫓기는 사람처럼 방안에서 나갔다.

땀방울을 뚝뚝 떨구며 나가는 그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누를 길 없어 저도모르게 흐느끼었다.

4

교정기구공장에서 온 기술자가 우범의 신발문수와 다리치수를 재는 동안 김죽희는 침통한 낯빛으로 침대결에 서있었다.

그의 손에는 우범의 다리를 촬영한 두번째 필름이 들려있었다.

나흘이 지난 오늘 행여나해서 다시 촬영한 필름이었는데 환자의 몸에 중독현상이 나타나 절단을 미루게 되면 생명이 위협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더는 인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다리를 잘라야 했다.

김죽희는 자기가 어찌서 숙명적인 이 필름을 들고 여기로 왔는지 알수 없었다.

당황해서 그런것 같기도 하고 우범이한테 변명하려는 마음에서 들고온것 같기도 했다.

방안에서는 그 어떤 익살로서도 밀어낼수 없는 무거운 공기가 떠돌고있었다. 그래도 유쾌해보이는 사람은 당사자인 우범이었다. 그는 기술자가 요구하는대로 일어나 앉기도 하고 옆으로 돌아눕기도 했다.

우범이는 오로지 그의 기분을 돌구어보려는 한가지 생각밖에 없는것 같았다.

《누님, 걱정마시우. 세상에 다리없는 불구자나 하나뿐이겠나요? 앉아서 하는 일감을 볼들게되면 식구들을 먹여살릴수 있수다.》

우범이가 쾌활해진것을 보고 누구보다 감동된 사람은 면목이 없다고 하면서 김죽희의사를 은근히 피해다니던 기술부원장이었다.

《고맙다. 네 마음이.》

김죽희는 견딜수 없어 자기 방으로 돌아오고말았다. 방안에 들어서는 순간 창문과 창문사이 벽에 걸려있는 사진에 눈길이 갔다. 판문점에 세운 아버지 수령님의 친필비사진이었다.

한평생을 나라의 통일에 바쳐오신 아버지수령님께서 끝내 통일을 보시지 못하고 가신것이 가슴아파 온 나라 인민들과 함께 자기도 그때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그러한 자기가 남녘동포를 불구자로 만들어야한단 말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도 의사인 나를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김죽희는 두손으로 금시 터질것만 같은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제라도 만일 생체뼈이식수술을 잘만 하면 그의 다리는 소생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헌데 누가 일생 절름발이 되기를 각오하고 자기 뼈를 내놓겠는가.

복도에서 다급하게 뛰어다니는 발자국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다.

등뒤에서 출입문을 벌컥 열어보고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었지만 김죽희는 돌아보지 않았다.

잠시후 다시 출입문이 열리며 간호원의 숨가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범환자를 보지 못했습니까?》

김죽희는 천천히 돌아섰다.

《무슨 일인가요?》

《우범환자가 없어졌어요.》

《뭐라고?》

간호원은 두시간전에 슬그머니 없어진 환자를 찾느라 복닥소동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병원구내를 살살이 뒤지었으나 우범이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김죽희는 병원뒤뜨락의 약초밭을 지나 백사장소 나무숲으로 나갔다.

그의 눈앞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있었다. 성한 다리로 모래밭을 딛고 소나무에 비스듬히 기댄 우범이는 쌍지팽이를 겹쳐쥐고 앞에 서있는 소나무를 후려치고있었다.

산산이 쪼개진 쌍지팽이조각들이 파편처럼 사방으로 뿌려지었다.

우범이는 공장에서 온 기술자앞에서는 태연해보였지만 절단수술을 앞두고 절망에 빠졌었던것이다. 그는 문득 자신의 광신적인 행동을 깨달은듯 손에 남아있는 작대기조각을 멍하니 들여다보다가 그것을 팽개치더니 두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소나무밑에 털썩 주저앉았다.

김죽희는 달려가서 우범이를 안아일으켜주고싶었으나 걸음이 나가주지 않는다. 어느새 기술부원장과 간호원이 달려왔다. 세사람이 다가와서 빙 둘러서서 우범이는 천천히 얼굴을 들고 녀의사를 보았다.

깊고 어두워보이는 그의 눈에서는 그 어떤 애절한 빛이 떨고있었다.

나라가 통일되면 자기를 업고 몇천리를 걸어서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던 그의 말이 생각나면서 김죽희는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았다.

녀의사는 재난의 흔적을 없애버리기나 하듯 나무조각들을 주어모아 보이지 않는곳에 던져버렸다

《의족을 하게 되면 쌍지팽이가 필요없기에 없애버렸다.》

우범이는 애써 웃어 보이며 변명했다.

《그래도 당분간은 필요할텐데... 자, 업히라구.》

기술부원장이 우범이앞에 등을 들이대었다.

김죽희는 혼자 일어서려고 모지름쓰는 우범이를 뒤에서 안아 기술부원장의 등에 업혀 주었다.

두 녀인은 량쪽에서 우범이를 받들어주며 따라갔다.

《동생, 바다가에 나와 무슨 생각을 했더랬나?》

김죽희는 우범의 기분을 돌구어주려고 말을 걸었다.

《남쪽에서 기다리고있는 아이들과 집사람을 생각했수다.》

김죽희는 가슴을 한대 쥐여박힌 사람처럼 흠칫 떨며 멈춰서고말았다.

알수 없는 힘이 녀의사를 남쪽으로 돌아서게 했다. 해가 지자 해풍이 세차지면서 파도소리는 높아졌다. 남쪽하늘에서 기러기떼가 날아오고있었다.

서로 찾고 부르며 머리우로 지나가고있는 기러기들은 김죽희에게 그 어떤 절박한 사연을 목갈리게 전해주는것 같았다.

어느덧 녀의사의 눈앞에는 아버지를 안타깝게 기다리고있는 아이들과 녀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들의 뒤에는 마을사람들이 서있었다.

모든 남녘동포들이 지금 자기네 선원을 기다리며 북녘하늘을 바라보고있는지도 모른다.

남녘형제들이 자기를 지켜보고있다고 생각하자 녀의사의 가슴속에서는 하늘에서 불타고있는 노을처럼 무엇이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애들아, 내가 아버지의 다리를 고쳐주마. 내 비록 늘그막에 성한 몸이 못된다 해도 너희들 아버지만은 고쳐놓고말테다. 통일된 나라를 중흥무진으로 활보하게 고쳐놓을테다.》

그의 얼굴표정은 속에 품고있는 비장한 결심으로 하여 엄숙하게 굳어지었다.

자기의 결심이 그 어떤 설복으로도 움직일수 없는데까지 이르렀음을 느끼자 김죽희는 분연히 병원을 향하여 힘차게 걸음을 내짚었다.

5

김죽희는 벌써 몇시간째 의식을 잃고 있었다.

열은 40도에서 오르내리고 까맣게 탄 입술에는 고기비늘같은 까풀이 일어났다.

《기다려라. 울지 말고 기다려라.》

그는 이따금씩 기다리라는 말을 소원처럼 외우며 헛소리를 쳤다.

병원에서는 기술부원장을 책임자로 김죽희의 치료조가 조직되었다. 의사들은 교대로 그의 침대를 지키었다.

김죽희는 자기 다리에서 뼈를 꺼내어 우범의 다리에 넣어주었다. 그리하여 남조선동포의 다리는 고쳐놓았지만 자신은 죽을 때까지 다리를 절게 되었고 머리는 거의 백발이 되고말았다.

우범이는 자기 몸에 녀의사의 뼈가 들어있다는것을 알게 되자 죽은 사람처럼 축 늘어지었다.

그러던것이 별안간 갈범같은 기세로 상반신을 벌떡 일으키며 자기를 그의 곁으로 옮겨달라고 소리쳤다.

김죽희가 입원하고있는 병실로 우범이를 옮겨갔다. 그제서야 우범이는 조금 진정되었다.

드디어 김죽희가 정신을 차리었다. 그는 먼저 우범의 일부터 알아 보았다.

《우리 동생은 어떻게 되었나요? 큰 수술을 용케 견디여내긴 했지만.》

《나 여기 있수다. 죄많은놈이 여기 있수다.》

열침대에서 사나이의 목소리가 들려 왔다.

김죽희는 그쪽으로 얼굴을 돌리었다.
《오, 동생이구만. 손을 이리 보내라구.》
우범이는 후들후들 떨리는 손을 너의사쪽으로 내밀었다.

《손이 차구만.》
김죽희는 우범의 손을 쓸어만지며 걱정했다.
《그동안 내가 누이구실을 쓰게 못하다보니 동생의 속만 썩었어.》

김죽희의 목소리는 가책으로 하여 떨리었다.
그때 출입문이 벌컥 열리더니 입원병동에서는 도저히 허용할수 없는 란쪽한 걸음으로 병실에 뛰어 드는 사람이 있었다.

너의사의 침대를 둘러싸고있던 의사들은 모두 그쪽을 보았다.

얼굴이 파랗게 질린 간호원이 란손에 전보장을 하나씩 들고 문앞에 서있었다.

《선생님, 우범아저씨, 전보가 왔어요.》
의사들이 놀라며 무슨 전보인가고 물었으나 간호원은 입술을 피나게 깨물며 대답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있던 김죽희가 《전보?》 하고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일어날 기세를 보이며 몸을 움직이였다.

의사들이 달려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김죽희는 간호원을 향하여 명령조로 말했다.

《전보를 읽으세요.》
그제서야 간호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똑같은 글자가 적혀있는 두사람에게 온 전보를 소리내어 읽었다.

《1950년 여름 전라북도 김재군 석동리에서 떠난 누이 김외양녀 출발. 기다릴것. 농업과학원 연구사 김영숙.》

긴장한 표정으로 듣고있던 김죽희는 정겨운 눈길로 우범이를 보며 말했다.

《됐구만! 누이를 찾아내었으니 마음이 놓여.》
김죽희는 우범이의 친누이를 찾아내려고 밤에는 문을 걸어놓고 편지를 썼으며 아침에는 바다가로 산보나가면서 편지들을 몰래 우편통에 집어넣곤하였다. 김영숙연구사도 바로 그 편지를 받고 두사람한테 전보를 쳤던것이다.

《그러니 선생님은 처음부터 제가 친동생이 아니라는것을 알고계셨단말입니까?》

우범이는 너의사의 백발이 된 머리를 바라보며 떠듬떠듬 물었다.

김죽희는 대답대신 눈가장자리에 피로가 겹쌓인 주름살을 지으며 느슨하게 웃어보였다.

의사들은 갈라질수 없게 된 두사람사이에 미지의 녀인이 불쑥 뛰어들자 아연해지고말았다. 간호원이 병실로 뛰어들며 놀라운 전보라고 부르짖은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것이다.

《죽희선생, 이렇게 묻는것을 용서해주시오.》
기술부원장이 엄숙하게 침묵을 깨뜨리었다.
《남녘땅에 부모나 형제들이 있겠지요?》
《아무 친척도 없어요.》
《그럼 남반부에 고향이라도...》
《나의 고향은 공화국북반부랍니다.》
《누님, 동생이 아니라라는것을 알면서도...》
무섭게 눈을 번뜩이던 우범이는 끝내 황소같은 소리로 울부짖으며 어깨를 떨었다.
《우범이, 나라가 분열된지 몇해째인가? 반세기가 넘었어. 그런데 아직도 혈육만 찾겠나? 분열된 땅에서 누이를 찾은들 무슨 소용 있겠나? 가슴이나 더 아팠지. 민족이 단합하여 통일의 길에 떨쳐 나셔야 해. 조산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길에서 자기 뼈를 바치고 살을 바쳐야 한다고 봐. 이렇게 하는것이 우리 수령님의 통일유혼을 받들어나가는것이야.》
너의사는 우범이를 나무람한다기보다 자신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그의 얼굴은 의연히 창백하고 침착하고 조용했다. 하지만 호수처럼 그윽하게 빛나는 눈에서는 성스럽게 반짝이는 눈물이 그들먹이 고여올랐다.

6

세사람은 관자를 간 미끄러운 갑판우에 서있었다. 우범이는 울어서 눈이 부어오른 누이와 마지막작별인사를 나누고있었다.

김죽희는 란간을 짚고 서서 그들의 작별인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눈이 시글도록 섬팡이 아물거리는 바다를 내려다보고있었다.

말복이 지났지만 날씨는 여전히 뜨거웠다.
물에서 이따금 역풍이 내날 때면 찻찻한 모래가 이발에 딱딱 씹히였다.

《봉-》
드디어 출발을 알리는 배고동소리가 울리었다.
누구나 두렵게 여기고있던 운명적인 시간은 끝내 닥쳐오고야말았다.

김죽희는 다리를 절며 두사람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가 다가오자 연구사녀인은 비켜서며 자리를 내주었다.

김죽희와 마주선 우범이는 그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려가며 쪽 훑어보다가 다리에 시신을 멈추었다.

《누님, 아팠지요?》
《아팠됐다.》
김죽희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곁에 서있는 녀인에게 시신을 보내며 계속했다.

《하지만 그만한 아픔은 각오해야지.》
연구사녀인은 감동하여 머리를 끄덕이였다.
《분열된 땅에서 혈육을 찾으면 가슴이 더 아프다

고 한 말씀이 옳수다.》

우범이는 울대뼈를 꿀꺽거리며 속으로 눈물을 삼키었다.

출발을 재촉하는 배고동소리가 다시 울리었다.

두 녀인은 서둘러 배에서 내렸다.

바줄을 걸어올린 배가 잔교에서 천천히 물러섰다.

소란을 피우며 옥신각신하던 갈매기들이 드디어 갈길을 정한듯 배를 따라갔다.

우범이는 눈물을 흘리며 여전히 쇠란간을 붙잡고 서있었다.

선원들이 와서 그를 설복하더니 부축하여 선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런데 잠시후 안에서 탁 밀치기라도 한듯 선실문이 벌컥 열리며 우범이가 갑판으로 뛰쳐나왔다. 배전밖으로 몸을 내던지듯 상체를 앞으로 꼭 숙이던 그는 가까스로 중심을 잡고 바로 섰다. 배전에 둘러친 쇠란간이 그의 가슴을 때리며 정신없이 앞으로만 달려가는 그를 제지시켰던것이다.

《누님, 저를 부르던... 그 목소리를... 잊지 않겠소.》

우범이가 두손을 나팔처럼 입에 오그려 불이고 웨쳐대는 고향소리가 바람결을 타고 김죽희의 귀에도 간도간 들려 왔다.

두 녀인은 한결음 두결음 내짚으며 배를 쫓아가다가 바다물에 막혀 더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범의 목소리를 듣게 되자 김죽희는 위험하다는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바다물을 건너차며 앞으로 나갔다.

그는 옆에서 팔을 잡아채는 힘찬 충격을 느끼고 그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아무리 목청을 돋구어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배는 멀리 가있었다.

김죽희는 한결음이라도 더 나갈수 없는것을 안타까와하며 맞받아 소리쳤다.

《동생, 그건 한 녀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남녘동포들을 부르는 북반부형제들의 목소리라것을 잊지 말아요. 통일을 위해 잘 싸워 달라구!》

우범이는 두팔을 머리에 추켜들고 손을 꼭 마주 잡았다.

《저건 들었다는 신호예요.》

연구사녀인이 울음을 삼키며 하는 말이였다.

《듣지 못했다 해도 내가 무슨 부탁을 하였는지 우범이는 알고있을거예요.》

김죽희는 자신있게 말했다. 파도는 두 녀인의 무릎을 때리며 치마폭을 적시었고 해풍은 그들의 머리카락을 갈기처럼 훑날리였다.

상식

대뇌활동의 월규칙성과 일규칙성

정신로동은 대뇌의 기능활동을 생리적기초로하는 로동이다. 때문에 대뇌활동의 기능을 높이려면 반드시 그 규칙성을 알아야 한다.

과학자들이 장기간 관찰하고 실험한 결과 대뇌활동에는 월규칙성과 일규칙성이 있다는것을 밝혀 냈다.

대뇌활동의 월규칙성 다시말하여 지력주기는 매개 주기가 33일간이다. 매개 주기에는 전기, 후기, 림계기가 있는데 전기와 후기는 15.5일간씩이고 림계기는 2일간이다.

전기에는 정신이 맑고 론리적사유력이 강하여 학습의 효과가 비교적 크며 후기에는 대뇌의 반응이 비교적 뜨고 림계기에는 대뇌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때문에 계산능력, 기억력, 리해력 등이 다 약하다.

대뇌활동의 일규칙성에서는 머리로 사고하는데

서 오전 8시에 신중하고 주도세밀하며 오후2시에 가장 빨리 진행된다. 그리고 기억력은 저녁 8시에 제일 좋다. 추리력은 낮에는 시간이 감에 따라 점차 약해진다.

때문에 정신로동에서 가장 좋은 효과를 얻으려면 대뇌활동의 규칙성에 따라 시간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상상력이 비교적 풍부하므로 령감을 잘 리용하여 구상성이 강한 일을 하여야 한다.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는 신중성을 요구하는 일을 하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빨리 끝내야 할 일을 하며 저녁에는 깊이 기억해야 할 일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 단계의 나머지 시간에는 정신력을 크게 소모하지 않는 실무적인 일을 하여야 한다. 비교적 어려운 정신로동은 지력주기의 전기에 넣어 수행하여야한다.

혁명하는 인민들은 《평화》와 《인도주의》를 부르짖는 제국주의자들의 궤변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한다.

-공동사설에서-

단편소설

류다른 결혼식

김덕철

나무잎과 풀대를 흔들며 설렁한 바람이 불어왔다. 어쩐지 잎새들은 메마른 소리를 질렀다.

해가 진 서쪽하늘에 불빛한 저녁노을이 길다랗게 비껴있었는데 까마귀떼가 노을을 등지고 먼 하늘로 날아 갔다.

마을에서 가까운 야산기슭의 풀밭에 앉아서 서울 행렬차가 사라진 철길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송희보는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고머리를 하여 더 동실해보이는 검스레한 얼굴과 작을사한 두눈에 짙은 고뇌의 빛이 어려있었으나 그 밑바닥에 터치지 못한 울분이 깊숙이 깔려서 꿈틀거리고 있는것이 알렸다.

송희보는 땅거미가 내려앉은 마을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었다.

그가 집에 오니 저녁밥을 지어놓고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서둘러 밥상을 들여 왔다.

《시장하겠구나. 어서 밥을 먹어라.》

송희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참 서울에서 전보가 왔다. 널 결혼식에 와 달라는 전보더구나.》

아들이 밥먹는 모습을 시름겨운 눈으로 지켜보던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난듯 이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송희보는 수저를 놀리다 말고 전보를 가지러 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자기 혼자 고개를 기웃거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에게 그런 전보를 보낼 사람이 없었기때문이었다. 어머니가 전보를 잘못본것 같았다. 그러나 어머니가 가져다준 전보를 본 송희보는 깜짝 놀랐다. 작을사한 두눈이 커지고 가슴은 널뛰듯 활랑거렸다.

《7일에 진행하는 저의 결혼식에 송희보씨를 초대합니다. 서울에서 미경.》

송희보는 혹시 자기가 잘못 보지 않았는가 하여 보고 또 보았으나 전보내용은 같았다.

내가 꿈을 꾸고있는것이 아닐까? 꿈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수 있단 말인가?

송희보는 혀를 깨물어보았다. 꿈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아팠다. 꿈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미경의 신랑감이었던 권투선수 김득구는 한달전에 미국에 가서 경기를 하다가 상대방의 란폭한 반

칙에 뒤통수를 얻어맞고 정신을 잃은후 병원에 실려가서 죽었다. 그런데 누구와 결혼식을 한단말인가?

너자가 아무리 낮가죽이 두텁다 해도 자기와 약혼까지 했던 남자가 죽은지 한달만에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할수가 없지 않은가? 아니다. 그럴수 없다.

송희보의 눈앞에 한송이 백합꽃처럼 아름다운 얼굴에 단아한 용모를 가진 미경의 모습이 선히 떠오르면서 미국으로 떠나가기 전날 자기를 찾아와서 하던 그의 말소리가 귀전에 쟁쟁히 울려 왔다.

《이번에 득구씨의 경기보조자를 송희보씨가 신다지요? 정말 수고 많으시겠어요. 저의 마음까지 합쳐서 득구씨를 잘 돌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그래 가식이고 침탈린 소리였단말인가?

송희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을 할때 미경의 얼굴표정과 어조에는 너무나도 진정이가 어려있었기때문이었다.

송희보의 눈앞에 이번에는 자기를 친동생처럼 아끼고 사랑해주던 김득구의 남자답게 잘 생긴 너부죽한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가 하던 말소리가 다시 귀전에 울려 왔다.

《미경씨는 정말 훌륭한 처녀야. 인물도 곱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고와. 너도 알겠지만 우리 아버지 내가 두살때 세상을 떠났어. 그런데 미경씨 말끝마다 아버지없이 나를 키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우리 어머니의 여생을 행복하게 해드리자고 하거든. 난 미경씨가 꼭 그렇게 하리라고 믿어.》

득구형님이 미경의 사람됨됨을 잘못 볼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 전보는? ... 미경이가 자기에게 이런 거짓전보를 칠수야 없지 않은가? 필경 무슨 곡절이 있는것 같았다.

송희보는 그 내막을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자면 빨리 서울로 가야 했다. 래일이 7일이니 지금 당장 떠나야 결혼식전에 가닿을수 있었다.

술가락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난 송희보는 서둘러 떠날 차비를 했다.

《너 어데 가자고 그러니?》

어머니는 아들의 거동을 의아스레 쳐다보며 물었다.

《서울로 가요.》

《서울에 가도 먹던 밥이야 마저 먹고 가야 할게 아니냐.》

《밥먹고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어머니, 내 인차 갔다 오겠어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온 송희보는 마을에서 초간히 떨어져있는 역을 향해 부지런히 걸었다. 빨리 가지 않으면 오늘밤 서울행 막차를 타지 못할수 있었다.

잔등이 땀에 폭 젖어가지고 역에 이른 송희보는 인차 차표를 사가지고 홈으로 나갔다. 그가 역홈에 나와서기 바쁘게 렬차가 도착했다. 조금만 늦어도 차를 놓칠번했다.

시골역이어서 그런지 내리고 오르는 손님이 많지 않았다.

어느 한 차칸에 오른 송희보는 요행 빈자리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 가앉았다.

아직 밤이 그닥 깊지 않았으나 차를 타고 오면서 지친 사람들은 렬차의 진동에 몸을 맡긴채 끄덕끄덕 졸기도 하고 입을 하 벌린채 잠들기도 했다.

송희보는 자기도 자보려고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두눈을 감고있었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렬차가 레루이음목을 넘어설 때마다 툭툭적으로 울리는 소음과 함께 김득구와 미경의 얼굴이 떠올랐다가는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는 또다시 떠올랐다.

미경이가 결혼식을 한다는것이 지금도 믿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바지주머니에 구겨넣었던 전보를 꺼내어 다시 펴들었다. 믿어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할수도 없어서 더 오래 들여다보게 되는 전보였다.

전보를 들여다보다말고 멍하니 앉아있는 송희보의 눈앞에 한달전 미국에 가서 있었던 일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김득구와 만시니간의 경기는 도박의 도시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악마의 도시 라스베가스에서 진행되었다. 이 경기에 대한 권투애호가들의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았다. 두 선수 다 주먹이 강하여 라도선수로 알려진데다 경기 회전수가 다른 경기들보다 훨씬 많았기때문이었다.

국제프로권투련맹이 주관하는 세계선수권쟁탈을 위한 경기는 12회전까지 했으나 이 경기의 조직자들은 구경군들의 인기와 흥미를 끌기 위해 20회전을 하도록 했던것이다.

두 선수는 처음부터 자기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서로 치고 막는 격전을 벌렸다.

투닥투닥 투다닥... 권투장갑이 부딪치는 소리와 두 선수가 내쉬는 거칠은 숨소리만이 조용해진 경기장안의 교요를 깨뜨렸다.

관람석에 꽂 들어찬 구경군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두 선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김득구의 관리인 김현치와 담당의사 최일 그리고

송희보가 심판석결의 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경기를 긴장하게 주시해 보고 있었는데 송희보의 얼굴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밝아졌다흐려졌다 했다.

두 선수의 실력이 비슷했기때문에 아직은 승부를 가려보기가 어려웠다.

송희보는 휴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권투장우로 재빨리 올라가 김득구의 입에서 이보호를 뽑아주고는 수건으로 땀을 씻어주기도 하고 팔다리의 근육을 주물러 주기도 했다.

10회전까지 어스뽀듯하게 진행되던 경기는 절반 고비를 넘어서면서부터 실력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김득구가 경기속도를 높이며 련속 강타를 들이대는 반면에 만시니는 뒤로 비실비실 쫓기다가 불시에 김득구의 목을 그려안아서 경기를 중단시키군했다.

11회전이 끝나자 권투장으로 뛰어 올라가서 보조자의 임무를 수행하고난 송희보는 회심의 미소를 지어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형님, 좋아요. 그대로 나가면 이번 회전에서 문제없이 썸세기를 시킬것 같아요.》

그러나 12회전이 시작되자마자 만시니가 로골적으로 란폭하게 반칙을 하는 바람에 경기가 저조해졌다. 만시니는 경기규정에 타격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상대방의 뒤통수를 공공연하게 타격했다. 그런데도 주심은 그것을 못본척하고 경기를 그냥 하게 했다.

뒤통수를 세계 얻어맞으면 어떤 사태가 빚어진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송희보는 김득구에게 무슨변이 생길가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저거야 싸움이지 무슨 경기야? 그런데 주심은 어째서 저런 교의적인 반칙을 보지 않는가 말이요, 응?》

하지만 누구도 그 항변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었다.

14회전에서 만시니의 반칙은 더욱 우심해졌다.

지금껏 만시니의 란폭한 반칙에 개의치 않고 자기의 높은 기술과 고상한 체육정신을 보여 주며 경기를 하던 김득구도 더는 참지 못하고 주심에게 반칙을 보아달라고 제기했다. 그런데 주심은 반칙이 아니라고 도리질했다.

김득구가 재차 반칙을 보아달라고 제기하자 주심은 그 요구를 들어줄 대신 그에게 간접반칙을 주어 점수를 한점 삭감하게 했다.

《개새끼! 저렇게 편심하는 법이 어데 있어?》

송희보가 분통이 터져서 이렇게 소리치자 그의 곁에 앉아있던 김현치도 의분을 참지 못하여 심판장을 찾아가서 정식으로 항의했다. 심판장은 손을 내흔들며 반칙이 아니라고 그 항의를 무시해버렸다. 김현치가 거듭 항의했으나 심판장은 그를 거들떠 보지조차 않았다. 억울하고 분해도 어데 가서 하소

할곳이 없었다.

주심의 묵인하에 집요하게 반칙동작을 계속하던 만시니가 드디어 김득구의 뒤통수를 힘껏 때렸다. 급소를 맞은 김득구는 정신을 잃고 그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송희보는 보지 말았어야 할것을 보았을 때처럼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주심이 얼굴높이로 쳐들었던 손을 칼질하듯 아래로 내리우며 《하나, 둘, 셋...》 하고 셈을 세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송희보의 고막을 세차게 때리며 우뢰소리처럼 들렸다. 그의 가슴은 느닷없이 놀뛰었다. 송희보는 애간장을 태우며 김득구가 어서 빨리 일어나주기를 바랬으나 주심이 열을 셀 때까지 그는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주심이 만시니의 주먹을 공중으로 높이 쳐들어 주었다. 만시니는 경기가 아니라 파렴치한 폭력행위를 하고도 이겼다고 좋아서 경충경충 뛰었다.

그걸 보고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느껴야 할 미국 《신사》들이 짐승처럼 좋아하며 박수를 치기도 하고 손가락을 입안에 넣어 휘파람을 불어대기도 했다.

《세상에 저런 날강도놈이 어디 있소? 내 저놈을 당장...》

너무 격분하여 리성을 잃은 송희보가 주심을 단매에 요정내려고 그한테로 달려가려 했다. 그런것을 김현치가 팔을 잡아서 가까스로 제지시켰다.

어느새 권투장으로 달려올라간 최일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있는 김득구를 진찰하기 시작했다.

《어떻소?》

송희보를 제지시키고 그와 같이 권투장으로 올라온 김현치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있는 김득구를 불안하게 내려다보며 울었다.

《뇌진탕인데 수술을 하면 인차 소생할수 있소. 빨리 병원으로 후송합시다.》

그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담가대가 김득구를 담아 싣고 미리 대기시켜놓았던 구급차에 날라다 실었다.

구급차가 앞서고 최일이네 일행이 탄 차가 그뒤를 따랐다.

김득구가 실려간곳은 데저트 스프링스병원이었다.

병원특유의 소독약냄새가 풍기는 진찰실에서 키가 크고 얼굴이 칼칼하게 생긴 미국인의사 해머그렌이 김득구를 진찰하기 시작했다. 최일이네 일행이 그결에서 해머그렌을 긴장하게 지켜보고있었다. 진찰을 끝낸 해머그렌은 그들을 바라보며 태연하게 말했다.

《환자가 소생하겠는가 못하겠는가 하는것은 아직 확정할수 없습니다. 뇌타박상태가 심하기때문에 일정하게 경과를 두고보아야 알수 있습니다.》

그러자 최일은 그의 앞으로 한걸음 다가서며 자

기 견해를 피력했다.

《내 생각에는 뇌수술을 하면 인차 소생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당신은 누구니까?》

해머그렌은 유리알처럼 파란 눈으로 최일을 못마땅하게 흘겨 보았다.

《이 선수의 담당의사입니다.》

해머그렌은 그제야 알겠다는듯 고개를 주억거렸다.

《그러나 이 병원에서의 주치의사는 남니다. 그러니 내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당신의 견해를 무시하자는건 아닙니다. 당신의 말대로 뇌수술을 했다가 돌이킬수 없는 불행을 초래할수있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환자가 수술을 받아도 되겠다고 인정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경과를 보아야 합니다.》

최일은 그 론거가 타당하다고 보았는지 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정측에서 관심이 높은것만큼 우리가 책임지고 치료를 잘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마음놓고 돌아가 주기바랍니다.》

송희보는 중태에 빠져있는 김득구를 병원에 혼자 두고 가는것이 마음에 걸려서 자기가 남아 간호를 하겠다고 자청해나섰다. 그러자 해머그렌은 병원 규정과 질서를 코에 걸고 끝내 승인하지 않았다.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그날밤 거의나 뜬눈으로 밤을 밝힌 세사람은 아침 일찌기 병원으로 찾아갔다.

산소호흡기를 쓴 김득구는 여전히 정신을 잃고있었다. 해머그렌이 아직도 결과를 더 두고보아야한다고 하는 바람에 그들은 하는수없이 다시 숙소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날밤 김득구의 어머니 양선녀가 그들의 숙소에 나타났다. 정말 뜻밖이었다.

서울도 아닌 시골에서 사는 양선녀가 어떻게 되어 이 소식을 알고 여기에 왔는지 누구도 짐작할수가 없었다. 그래서 세사람 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우리 득구가 어떻게 됐나?》

양선녀는 그들을 보자 경향없이 물었다.

《...》

누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침묵은 아들의 상태가 몹시 중하다는것을 강조하는것 같아서 양선녀는 더욱 사색이 되었다.

《그런데 어머니 어떻게 되어 여기로 왔습니까?》

김현치가 세사람을 대표하여 물었다.

양선녀는 그걸 설명하기가 어려운지 자기를 데리고 온 김성백을 얼른 돌아보았다.

얼굴이 히어털끔하고 머리를 귀밑까지 길게 자래운 김성백은 마흔살가량 나보이는 사나이였는데 사교적인 미소를 지어보이며 양선녀를 대신하여 이렇

게 말했다.

《나라와 민족의 슬기를 떨치는 체육선수들을 귀중히 여기는 <대통령> 각하께서 김득구선수의 병문안을 위해 어머니를 친히 여기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아들의 병문안과 함께 전통적인 <한>미친선에 적극 기여하여 <대통령> 각하의 은총에 보답하도록 잘 도와주어야 하겠습니까.》

세사람은 체육선수들에 대한 《대통령》의 극진한 《사랑》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동되었다. 그래서 눈물이 그렇게진 눈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 쳐다보았다.

그날은 밤이 너무 늦어서 김득구를 만나러 가지 못하고 이튿날 아침 모두 데저트 스프링스병원으로 갔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누워있는 김득구가 아들임을 알아본 양선녀는 그를 와락 그러안으며 목메인 소리로 부르짖었다.

《득구야, 득구야. 내가 왔다.》

정신을 잃고있는 아들은 어머니가 온줄을 몰랐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나, 응? 어서 정신을 차리려무나, 어서! 득구야-》

너무 억이 막혀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던 양선녀는 그제야 세차게 흐느끼며 목놓아 울기 시작했다. 양선녀의 비통한 울음소리는 곁에 서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허비며 이역의 먼 하늘가로 울려 갔다.

이때 해머그렌이 그들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병원에서는 환자의 소생을 위해 마지막 대책으로 미국에서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캘리포니아대학 메데카센터의 의료진을 초빙해왔습니다.》

해머그렌의 말이 끝나는것과 동시에 메데카센터에서 온 의료진성원들이 방안으로 우르르 끌어들여 왔다.

《이제부터 협의회를 해야겠으니 미안하지만 모두 나가주기 바랍니다.》

해머그렌이 량해를 구하자 모두 방에서 나왔다.

숙소에 돌아온 최일은 협의회소식을 초조히 기다리고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해머그렌의 사선생의 말이 옳습니다. 캘리포니아대학 메데카센터는 미국에서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제일 권위가 있는 의료진영입니다. 그러니 이제 좋은 소식이 올겁니다.》

그 소리에 모두 한가닥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되어 얼굴이 한결 밝아졌다.

그러나 그 시각 데저트 스프링스병원 수술실에서는 짐승도 낮을 불힐 귀축같은 만행이 벌어지고있었다. 살아있는 김득구의 몸에서 심장과 신장을 떼내어 돈이 많은 늑다리 미국놈한테 이식수술을 했

던것이다.

그날밤 늦게 숙소에 들어온 김성백은 양선녀앞에 깊이 머리를 숙이며 자못 슬픔에 잠긴 어조로 말했다.

《어머니, 오늘 협의회에서 환자의 소생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내린후 두시간만에 유감스럽게도 아드님이 사망하였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에 와있는 동포들을 대표하여 어머니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바입니다.》

《뭐? 득구가 죽었다고?! 》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고 한동안 허탈상태에 빠져있던 양선녀는 그자리에 툭당 주저앉아서 손으로 방바닥을 내리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 소식에 접한 사람들은 모두 비감에 잠겨 눈물을 머금었다.

《득구형님, 형님이 죽다니 웬일이요, 예? 형님-》

송희보는 크나큰 상실감과 비통감을 금할수가 없어서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었다.

김성백은 양선녀를 일으켜세워 소파에 앉힌후 침탈린 소리를 했다.

《어머니, 고정하십시오. 일이 이렇게 된바 하고는 마음을 크게 먹고 이제부터 좋은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양선녀와 주위 사람들의 기색을 재빨리 살펴보고나서 뒤말을 이었다.

《어머니, 인도주의적립장에서 아들의 내장을 병원에 <기증>하십시오.》 《우리 득구의 내장을 어떻게 한다구?》

《아들의 내장을 다른 사람한테 이식하면 령혼이 그의 생명속에 있기때문에 아들이 살아있는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안돼! 안된다. 내가 죽어도 그것만은 못한다.》

양선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자 김성백은 낮색을 바꾸고 위협조로 말했다.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치료비가 막대한데 지불 못하면 시체조차 찾아가지 못할수 있습니다.》

김성백의 속심을 모르는 김현치가 끼여들었다.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해서라도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그 순간 김성백은 살기가 번뜩이는 눈으로 김현치를 쏘아보며 뽕뽕하게 내뱉었다.

《당신은 가만히 있소. 이것은 <대통령>의 뜻이요.》

《대통령》의 뜻이라니?! ...

송희보는 너무도 놀라와서 덩둘해진 눈으로 김현치와 최일을 쳐다보았다. 그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며 서로의 얼굴을 의아스레 마주보고있었다.

《그럼 어머니가 승인한것으로 알고 난 가보겠습니다.》

김성백은 이것이 기정사실이므로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듯 양선녀에게 꺾듯이 인사까지 하고 가버

렸다.

모두 땀하여 그가 나간 문쪽을 지켜볼뿐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그게 정말 《대통령》의 뜻일까? 설마 《대통령》이 그런 일까지...)

송희보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다음날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미국의 이름있는 신문들이 인류의 복리를 위해 아들의 장기를 《기증》한 양선녀의 소행을 찬양한 기사를 대서특필하여 실었다.

《인류의 복리를 위한 희생적복무의 모범?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어머니가 언제 승인하고 <기증>했는가 말ियो, 흥!》

신문을 보고 흥분한 송희보가 우들쩍거리며 코방귀까지 귀었다. 김현치와 최일은 말을 하지 않았으나 얼굴표정들은 매우 심각해졌다.

그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이 양선녀에게 조전을 보내오고 얼마간의 《위문금》을 보내온것이였다. 김성백이 《대통령》의 위임으로 그것을 양선녀에게 전달했다.

장례식도 성대히 진행되였다.

송희보는 그 의식에 참가하고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모든것이 미리 짜놓은 각본에 따라 계획적으로 진행된것 같았다. 그래서 김현치와 최일에게 자기 생각을 털어놓았다. 그들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니 경기조직자측에서 초청전에 먼저 김득구의 건강검진을 해갔단 말ियो?》

송희보의 이야기를 듣고난 최일이 자못 의아쩍어하며 반문했다.

두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때도 그랬소?》

《아니, 아직 그런 판례는 없었소.》

《음.》

최일은 뭔가 짚이는것이 있는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기가 놓여있는곳으로 가더니 어디엔가 전화를 걸었다.

두사람은 전화를 거는 최일이한테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전화를 하던 최일은 어쩌서인지 송수화기를 들고 한동안 기다리다가 전화를 마저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무슨 전화를 했는지 그의 얼굴은 당장 살인이라도 칠것처럼 무섭게 변했다.

《악마같은놈들!...》

최일은 증오에 차서 부르짖고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말을 계속했다.

《캘리포니아대학 연구원에 와서 류학하고있는 내 친구한테 이번에 여기로 온 캘리포니아대학 메데카센터 의료진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는지 알아보아달라고 부탁했더니 그가 알아본데 의하면 그들이 다 심장파 신장 계통의 전문가들이라고하오.

병원측이 환자의 소생을 위해 초빙해왔다면 그들이 뇌신경계통의 전문가들이여야 할게 아니요. 그런데 뇌신경계통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지 않고 심장파 신장 계통의 전문가들을 데려왔다는것은 무엇을 말하오? 병원에서 애초부터 환자를 소생시키려고 한것이 아니라 그의 몸에서 심장파 신장을 떼내려 했다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하오. 때문에 그들은 뇌수술을 하면 인차 소생할수 있는 환자를 끝내 수술하지 않았던거요. 나는 의사로서 그것을 명백히 단언하오.》

《웁아요. 개새끼들!》

송희보는 그놈들을 모두 박살이라도 낼것처럼 불끈 들어온 주먹을 얼굴앞으로 쳐들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째서 이 일에 관계했을까?》

김현치는 리해가 되지 않는지 고개를 기웃거렸다.

《거야 뻔하지. 교활한 미국놈들은 산사람한테서 내장을 떼내어 이식수술을 했다가 사회적몰의라도 일어날가봐 자기네 말을 잘 듣는 우리 <대통령>에게 내장을 <기증>해달라고 했을거요. 그러니 <대통령>인들 어찌겠소.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줄수밖에. 그렇지 않다면 광주에서 술한 사람을 죽이고도 눈섭 한오리 까딱하지 않던 <대통령>이 경기를 하다 정신을 잃은 김득구가 뭐라고 어머니까지 미국에 보냈겠소. 어머니를 아들의 병문안으로 보내는 것처럼 했지만 실상은 어머니를 통해 아들의 장기<기증>놀음을 벌리기 위해서였소. 그리고는 그 내장을 가리우기 위해 어머니에게 조전이요 위문금 전달이요 성대한 장례식이요 하는 요사를 부려서 내외여론을 오도했소.》

송희보는 그것이 매우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했다. 너울을 벗기고 보니 이번 사건의 진상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송희보의 가슴은 세차게 뒤끓어 번졌다. 더운피가 꺼꾸로 치솟아 오르면서 판자노리가 당장 터질것처럼 툭툭 소리를 내며 옥신거렸다.

《이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하오?》

송희보는 열기가 올라서 벌개진 눈으로 두사람을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일은 생각깊은 눈으로 송희보를 마주 바라보며 년장자답게 조용히 타일렀다.

《송군, 너무 흥분하지 마오. 이것이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과학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근거가 없이는 그놈들을 징벌하지 못하오. 더우기 이 일에 <대통령>이 관계한만큼 서둘러 불질을 했다가 크게 화를 입을수 있소.》

《그렇다고 그 악귀같은 놈들을 가만히 내버려둘수야 없지 않아요?》

최일은 동감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침착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때가 오면 그 피값을 꼭 받아내야 하오.

그러나 지금은 참아야 하오.》

최일의 우려는 결코 공연한것이 아니었다.

미국을 떠나기전에 김성백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서늘한 눈길로 그들 세사람을 둘러보며 단단히 오금을 박았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면 기자들이 여러가지 질문을 할수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막 하여서는 안되겠소.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 사소한 부주의로 무슨 시끄러운 일이 생기는 경우 당신들은 런대책임을 질뿐아니라 모두 무사치 못하다는걸 알아야 하오. 이젠 빈소리가 아니요. 내가 무엇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지 잘 생각해 보고 행동거지를 바로 해주기 바라오.》

거기에 겁을 먹은 김현치는 송희보가 걱정되어 서울에 돌아오자마자 그를 당분간 고향에 가있다고 했다.

《아닙니다. 전 서울에 남아서 득구형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사람들한테 알려주겠습니다.》

두사람의 이야기를 곁에서 듣고 있던 최일라도 그가 넘려되어 한마디했다.

《그 일은 의사인 내가 더 잘할수 있으니 나한테 맡기고 송군은 관리인선생의 말대로 하는것이 좋겠네.》

그들이 자기를 위해 그런다는것을 깨달은 송희보는 더 고집을 부릴수가 없었다.

그러지 않아도 미경이를 만날(그가 찾아올것은 틀림없었다.)일이 걱정스럽던 송희보는 차라리 잘된것 같아서 그 길로 서울을 떠나고말았다. ...

렐차는 여전히 쉬임없이 달리고 있었다.

서울에 도착한 송희보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미경이네 집에 이른것은 정오무렵이었다.

송희보는 대문밖에 서서 한동안 집안동정을 살폈다. 결혼식을 하면 사람들이 분주히 드나들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겠는데 그런 일은 없고 이상하게 조용했다. 결혼식을 하는것 같지 않았다.

(아무렴 그렇겠지.)

송희보는 내심 바라던 일이어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느닷없이 울렁거리던 가슴도 저으기 진정되었다. 그래서 주저없이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서 주인을 찾았더니 기다리기라도 한듯 미경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오셨군요.》

서글픈 미소가 어려있는 미경의 얼굴은 추연해보였다.

《미경씨, 결혼식을 한다는건 거짓말이지요?》

송희보는 인사말도 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미경은 머리를 살래살래 흔들었다.

《그럼 결혼식을 한다는게 사실이요?》

미경은 대답대신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그 순간 송희보의 두눈에서 번개불이 번쩍했다.

《그래 누구와 결혼식을 하오? 누구와!》

송희보는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고 계속 분노를 터뜨렸다.

《사람이 어쩌면 그럴수가 있소? 득구형님을 모욕하지 말란 말이요!》

그리고는 숨이 차서 헐떡거렸다.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다소곳이 숙인채 까딱 움직이지 않고 서있었다.

《하루에도 열두번 변하는것이 너자의 마음이라고 하더니 그래 너자란 모두 그런 인간이란 말이요?》

피로움을 참을수가 없어 하늘을 우러르며 자기혼자소리로 개탄하던 송희보는 미경의 발치에 침을 뱉고 책 돌아섰다. 그와 더 얼굴을 마주하기조차 싫었던것이다.

《송희보씨, 진정하고 저하고 같이 가자요.》

지금껏 잠자코 서있던 미경은 그제야 이렇게 한마디했다.

《가긴 어릴 간단 말이요?》

대문쪽으로 걸어 가던 송희보는 뒤로 돌아서며 역정을 썼다.

《미장그릴에서 결혼식을 해요.》

《뭐? 미장그릴에서?!》

송희보는 너무나 흥분하고 분통이 터져와서 눈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을 때처럼 푸들푸들 떨리었다.

자기와 약혼했던 남자가 죽은지 한달만에 결혼식을 하면 응당 부끄러워하고 남이 모르게 가만히 해야지 서울에서도 소문난 미장그릴에서 결혼식을 하면 어쩌겠다는건가? 어쩌면 저렇게도 뻔뻔스러울수 있는가?

《배반자!》

송희보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그런데 그사이 어느새 방안에 들어갔던 미경이가 사진을 넣은 커다란 액틀을 하나 들고 나왔다. 사진을 본 송희보는 전류에 감전된 사람처럼 그자리에 굳어져버렸다. 크게 확대한 활짝 웃고있는 김득구의 사진이 액틀안에 있었기때문이었다.

《이긴 또 뭐요? 무엇때문에 그 사진을 가지고 내앞에 나타났는가 말이요? 그래 내 심장이 터져서 죽는걸 보고싶어서 그러오. 응? 내 눈앞에서 그 사진을 당장 치우오. 당장!》

격할대로 격한 송희보는 미친듯이 소리쳤다. 그리고는 적의에 찬 눈길로 미경을 무섭게 노려보았다.

하지만 미경은 거기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전 이 사진을 놓고 오늘 결혼식을 하자고 해요.》

(?! ...)

송희보는 너무 놀라와서 자기도 모르게 멍청해졌

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송희보는 얼마후에야 자기를 수습하고 물었는데 그의 어조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득구씨 어머니 장례식에...》

《아니? 득구형님의 어머니가 잘못되었소?》

송희보는 미경의 말허리를 꺾으며 반문했다.

《그래요. 미국에서 돌아와 고향으로 간 득구씨 어머니는 실성한 사람처럼 <내 아들을 내나라, 내 아들을! 어느놈이 내 아들을 죽였느냐. 누가? 누가 죽였느냐.> 하고 계속 외우다가 농약을 마시고 이 세상을 떠났어요.》

송희보는 너무나도 비통하고 가슴이 아파서 아래 입술을 피가 터지도록 짹 짓씹으며 고개를 아래로 푹 떨구었다. 자기가 딛고 선 땅이 천길나락속으로 깊이 떨어져내리는것 같았다.

득구형님한테 미안하고 죄스러웠다. 그리고 어머니의 생명을 지켜드리지 못한 자기 자신이 저주롭기 그지없었다.

미경의 말소리가 다시 들리었다.

《득구씨 어머니 장례식에 참가하러 오셨던 최일 선생이 득구씨가 어떻게 되어 생명을 잃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주었어요.》

송희보의 눈앞에 최일의 얼굴이 우렷이 떠올라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최일선생은 득구씨 어머니의 죽음까지 보고나니 이제 더는 참을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놈들과 그 하수인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온 세상에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최일선생이 갑자기 행방불명되었다가 며칠후에 한강변에서 변사체로 나타났어요.》

송희보의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던 최일의 얼굴이 불시에 살기쁜 김성백의 얼굴로 바뀌어졌다. 그놈이 최일의 목숨을 앗아간것이 틀림없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일이 빚어질수가 없었다.

송희보는 자기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다.

얼마나 무섭고 험악한 세상인가? 내가 만약 서울에 남아서 김득구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자기도 최일이처럼 목숨을 잃었을것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악귀같은놈들!》

증오에 차서 부르짖는 송희보의 온몸에서 뜨거운 피가 세차게 끓어번지면서 짹 틀어잡은 두주먹이 부르르 떨리었다.

《그래서 전 득구씨와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오늘 득구씨의 사진을 놓고 미장그림에서 결혼식을 함으로써 득구씨와 득구씨 어머니 그리고 최일선생이 어떻게 되어 목숨을 잃게 되었는지 온 세상에 고발하자고 마음 먹었어요.》

아, 그래서였구나!

송희보는 아무나 쉽게 할수 없는 결심을 한 미경이가 얼마나 미덥고 돋보이는지 몰랐다.

미경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나도 비겁하고 량심이 없는 인간이었다.

송희보의 생각은 자연히 깊어졌다.

김득구, 양선녀, 최일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가고 미경의 행복을 빼앗아간 장본인은 전적으로 미국놈들과 그 하수인들이었다. 그들이야말로 이 남조선땅의 모든 불행의 화근이었다. 그 불행의 화근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행을 당할지 몰랐다. 그런데 나는 그 불행의 화근을 제거하기 위해 나설 대신 나 하나의 목숨이 두려워 고향에 도피해가있지 않았는가? 만약 내가 서울에 남아서 득구형님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만천하에 고발했다라면 양선녀와 최일의 운명이 그렇게 되지 않을수도 있고 미경이가 사진을 놓고 결혼식을 할 비장한 결심도 하지 않았을게 아닌가.

생각할수록 송희보는 의롭게 살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이 커지면서 그들앞에 부끄럽기 그지없었다. 이제 더는 그렇게 살고싶지 않았다.

늦긴 했지만 미경이가 결혼식을 하기전에 내가 먼저 량심선언을 발표하여 김득구와 양선녀 그리고 최일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만천하에 고발하자. 그리하여 미국 야수들과 그 하수인들의 귀족같은 만행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단죄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미경의 결혼식이 더 의의가 있고 빛이 날것이다.

송희보의 마음은 한량없이 북받쳐올랐다.

《미경씨, 갑시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앞장에 서서 힘있게 발걸음을 옮겨놓았다.

력사의 추물들을 단죄한다

어디 좀 보자

(서두에)

김송남

하는짓 열백가지 그 모두 악한짓
노는 꼴 백천가지 통털어 웃기는 꼴
그래도 인간이라
눈도 코도 귀도 있다는
그 낯짝들 어디 좀 보자

그 눈이 뜬자리가 아니라면야
한치앞은 내다볼줄 알아야지
그 귀가 말귀가 아니라면야
몰아쳐오는 무서운 폭풍을 가려야 하지

분별없이 피를 물고 날뛰는 인간추물들
국제쌍둥이들 그 낯짝 좀 보자

서반구에도 몇몇
동반구에도 몇몇
이 행성에 한줄도 못되는 무리
네놈들로 하여 원한에 치떠는
이 강토 3천리의 증오앞에 나서라!
세계 60억의 단죄앞에 나서라!

클린톤 《능력》

김송남

미국민을 위해
우방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각오돼있고
《능력》도 있노란다
미합중국 대통령 빌 클린톤씨

우리를 걸고들며
타격 《능력》이 있노라고
휘둘러댄다
《스텔스》를 전략폭격기들을...
뻗쳐든다
미싸일들을 최첨단살인장비들을...

하기야 그대는 《용맹한》 사나이
일찌기 그 《능력》 시위하였지
그것은 아직
다만 바지피춤속 그 《상용무기》로
처녀의 봄을 짓몽겐 침대우의 《타격능력》
(상대는 모니카 루원스키,
백악관의 나 어린 타자실습생...)

그 침대우에서 《승리자》로 일떠나
기고만장해졌던가 빌 클린톤씨
정육의 《타격》을 넘어
살륙의 타격도 이미 시험해봤지
수단과 아프가니스탄 공격전을 거쳐

이라크땅의 《사막여우》 작전으로
유고슬라비아의 꼬꼬보공습으로...

헛참, 거기선 더러 얻어맞기도 해
침대우의 상대와 좀 다르긴 했지만
그래도 세계앞에
《승리》를 광고했으니
그만해도 팬찮은 《능력》
(사실이야 《부동목표》에 불과한 모래사막땅들도
연약한 모니카와 비슷하였지...)
자네가 걸고드는 핵무기는 없다해도
핵보다 더 무서운
일심의 쇠몽치를 버려들었거니
이 한대머는 《아이쿠!...》 소리도 다 못하리
(두대째는 아예 필요없을걸...)

자네의 《용맹》한 그 타격을
우리의 용서없는 타격이 짓몽개려니
순간에 재가루되리라
자네가 딛고 선
최많은 그 땅덩어리도
자네의 《친근》한 그 우방도...

그모두를 위한다는 그 《능력》이
그모두를 지옥에 끌어내치는
그런 《능력》이 되면

그거야말로 야단이 아닐텐가?
아무리 봐야 클린톤 《능력》은
약자앞에 《강한 능력》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가늠 못할

무서운 《의혹》의 상대에 대한 타격보다는
만문한 그 무엇이 꼭 있음을 알고 덤벼드는
그런 《타격》에나 알맞춤한것이
클린톤 《능력》일가보네!

난쟁이

서진명

타고난 난쟁이야
나무랄바 못되지
정신만 온전하다면야
존경도 받을수 있지

하지만 세상 꼴불견은
제 키도 모르고
제 몸값도 모르고
으시대며 세상앞에 나서보려는
일본이라는 정치난쟁이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
검은것도 희다고 때로는 생억지
남의 땅에 사정없이 폭탄을 퍼부어도
그것이 상전이라 꼬리치며 여우웃음

오물속에 제몸 어지러워졌어도
더러운줄 모르는 아이처럼 날치네
살륙에 성폭행에 얼룩진 몸뚱이
아직도 씻지 않은채
신사복을 걸치고 넥타이를 척 매고...

한다는 수작질을 보면
속심은 뻔한데도
인류를 위해 그 무슨 《기여》를 하겠다고
놀아나는 행동거지를 보면
아이들 코묻은 떡 자랑하듯
《엔》몽치를 흔들며 돌아치는 꼴이
일본은 분명 수염난 어린애

쳐다볼것을 쳐다봐야지
탐낼것을 탐내야지
상임리사국의자에 올라앉아보려
그 아무리 발뒤꿈치를 고인다 한들
난쟁이 그 키가 어디에 갈까

어른이라면야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알아야 하지
어른이라면야
제 잘못에 얼굴을 붉힐줄 알고
제 몸에 묻은 때
제 손으로 씻을줄도 알아야지

리속을 알아도
할바를 모르고서야
타산은 밝아도
속심이 어두워서야
백년가도 아이는 아이
천년가도 난쟁이는 난쟁이

자기를 모르고 그렇게 날치고
자기를 모르고 최악의 전철을 계속 밟는다면
비발치는 세계의 조소, 세계의 분노속에
너 난쟁이 일본의 키는
하늘로가 아니라 땅속으로
영영 잣아들고 말리라
흔적도 없이... 흔적도 없이...

이제는 한식구

최정용

어랍쇼
이제는 《한식구》라
놀랐습시다그러, 《대통령》 각하!
소름끼치는 지난날을 감감 잊은듯
제발로 《국정원》을 찾아가
추파를 던진 그 몰골이

백주에 남의 나라 호텔에까지 쫓아와
량심을 마대속에 꿰저넣은자가 누구던가요
뉘도 몰래 물귀신 만들겠다고
당신을 개처럼 갑판우에 질질 끌고다니던
그놈들과 이제는 침발린 밥알까지 꺼내줄
그렇구그런 사이라

각하! 어깨우에 놓여있는게
머리입니까? 배주덩입니까?
그날의 모락국이 너무 끔찍해
세상사람들도 아직 잊지 않고있는걸
당사자인 각하가 잊었던 말입니까

무척 정에 겨운듯
요원들 등까지 두드려주며
짐짓 미소까지 띄운 그 얼굴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바꾸어주며
《이제는 한식구야...》
제법 부드러운 그 목소리

각하! 지금이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나에게는 보입니다 각하가
불을 끄고 안경을 꺼내드는 열간이처럼
너편네인지 딸인지도 분간 못하고
마구 덤벼드는 천치처럼

하기야
거짓공약으로 민중을 우롱하며
외세의 입김타고 힘겹게 올라앉은
그 권좌를 지켜내자니

흰손 검은 손 가리게 되었습니까

《대통령》이랍시고
더 흑심한 재난만을 들썩운 남녘땅
그 민주화의 무덤, 그 송장경제우에서
《국민의 정부》요 《민주정치》요
하는 소리마다 허울뿐이더니
어쩌면, 그 한마디만은 잘한셈입지요 각하!

정말 한식구입지요
그놈이 그놈인 한식구입지요
달리아 되겠습니까 당신의 운명도
총탄에 맞아죽은 박《대통령》
감방에 갇혔던 전두환, 로태우
미구에 심판대에 오를 저능아 김영삼
다름없는 매국배족의 그 길로 따라걸고있으니

신통한 말입니다 각하!
지당한 말입니다 각하!
칠성판에 오른 그 《국정원》과
사형선고받은 《국민의 정부》는
지옥의 기름가마에 함께 들어갈
최많은 한식구
무덤속의 한식구가 분명합지요!

미싸일발작증

리영

병이 생겼네
병중에도 피이한 병이 생겼네
의학전서에도 올라있지 않는
《미싸일정신병》이
섬나라 온 일본땅에 만연되었네

《천황》도 《미싸일발사》, 《미싸일발사》
총리도 《미싸일발사》, 《미싸일발사》
허참, 웃어른들부터 이래놓으니
외무성의 나라들도 《미싸일》, 《미싸일》
방위청의 장관들도 《미싸일》, 《미싸일》

온 세상이 감탄의 눈길로 우러러보는
조선의 《광명성 1》호
우주장천에 밝은 빛 뿌리건만
두눈을 가리우며 보이지 않는다네
두귀를 틀어막으며 생억지를 부리네

삼척동자도 그것을 모를라구
그 누구의 《미싸일위협》을 교아대면서

돌아앉아 날치는 그 지랄
핵이발을 갈고 또 갈며
위협중의 큰 위협을 제놈들이 몰아오는줄

세상이 무슨 눈뜬 소경이라구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되살려
이제는 해외파병
《선제타격》까지 부르짖는놈들
저 소가지 못된놈들을 그냥두다간
지구에 큰 불이 일겠네

그건 정말 병치고도 큰 병이라네
벽도 문이다는 《억지병》
본심을 감싸려는 《위장병》
재침에 분별없는 《지랄병》

병에 병이 겹친 《합병증》
현대의술로써는 도저히 고칠수 없으니
국제적십자사에 통지할수밖에
저 미친 족속들을

세상에서 말끔히 격리시켜버리라고
하거야 그쪽에서 미쳐 손쓸새 있을라구
《미싸일발작증》은 불치의 병
이미 위험계선을 넘어섰으니

멀지 않았네
제가 쌓아올린 핵더미에 깔려죽을 날이
그날에 내뿜을 최후의 비명도
그 외마디일거야, 《미싸일》... 《미싸일》...

별보고 짓는 개, 땅보고 짓는 개

민병준

듣기만 해도 역겨워라
미국에서 일본에서 남조선에서
신통히도 같은 소리로 짓어대는것들
소란스러운 개무리 3중창
때로 달보고 짓는 강아지 있어
세상의 웃음거리 되기는 했었지만
감히 《광명성 1》호를 보고서
《미싸일발사》라 짓어대는 네놈들은
미친개무리
하늘보고 짓는 개
별보고 짓는 개
못된 소리만 치는 네놈들 머리우에
마른 하늘 날벼락이 비수되어 쫓히련다

저주로워라
오히려 제 나라, 제 땅에
핵무기, 핵창고 가득히 늘이면서도
우리를 두고서 지하핵시설이 있다고
《의혹》, 《의혹》...

미국개가 짓어대니
일본개 남조선개 덩달아 쾅쾅쾅...

미친개 땅을 파며 악을 쓰듯이
《시찰》이요 《강경대책》이요 떠들어대면서
제 무덤 제가 파며 돌아치는 무리
별보고 짓는 개들
땅보고 짓는 개들

화약내 지독한 그 아가리로
강성대국 포성울린 우리를 걸고드는
가소로운 네놈들 미친 소리에
하늘도 땅도 대노했으니

불보듯 명명백백하여라
네놈들
한낱한시에 꼭 같은 모양으로
그 하늘 그 땅이 내리는 천벌을 받으리

맺음시는 그대에

김송남

이것은 아직 맺음시가 아니다
네놈들 마지막발악에
지금껏 우리 땅이 갈라져 몸부림치고
지각을 깊이 적시며
즐벅히 피흐르는 대륙들이 있어...

그 몸부림 우리의 시행에
저주의 비수가 되어 끝없이 번쩍이리
그 뜨거운 피가 스며 우리의 시어는
단죄의 불벼락으로 쏟아지고 쏟아지리
네놈들 마지막씨종자까지 재가루로 날려보낼

최후의 가차없는 징벌을 부르며...

맺음시는 그대에 주마
제가 지른 핵전쟁의 불속에
죄많은 그 몸뚱이들
한줄기 연기로 서려오는 날
하늘의 《복음》을 받은
《승천》의 그 《영광》에
다함없는 《축복》을 보내는
우리의 맺음시를! ...